

MAXIM

● SOUTH KOREA

Dirty Wild Sexy 가수 J

SUMMER PLAN

시원한 벌레 빙수
서늘한 스킨러와
인기 웹툰 삼매경
복근 만들기

호나우두의 옛 여친
라이카
올리베이라

VICTORIA'S
SEXIEST SECRET
셀리타 이뱅크스

원 나이트 러브에 대해
당신은 모르는 여자의 생각



MAXIM 구독구독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일 세 없이 선물미 터진다!

SONY MP3 / 아이스리빙 카메라 / 최신 게임 소프트웨어 / MAXIM 라일라
/ LAB 303000 바다 스타일링 톱 / KNOX의 보드스포츠 / 현역 아메리칸 워터민 전담 사관생
/ 유자명 (그리스) 리치 데탕 / 월드급 공연가 자필레나 "뒤 더 필요한지 없었"



부수공사가구
한국ABC가합

MAXIM은 발행부수를
부담하지 않고 9.9.2. 매
월 MAXIM의 발행부수
는 국제적 부수인증기
구 ABC가 인증합니다.

JULY 2010



9 772093 422007

ISSN 2093-422X

www.maximkorea.net

MAXIM 이오..

2010년 7월, MAXIM 한국판
iPhone App을



APPLE 앱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 앱스토어에서 검색 또는 MAXIM 으로 검색하십시오



잡지의 미래다.



- 곧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MAXIM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기간

MAXIM APP

2010. 7. 13~

2010. 7. 31

Features JULY 2010

81

셀리타 이벡코스

같은 속옷도 빅토리야 시크릿 모델이 입으면 패질이 다르다. MAXXI이 이를 증명하고자 셀리타 이벡코스의 뜨거운 런제리 쇼에 당신을 초대한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녀의 섹시한 자-스트링으로 번신하고 싶은 생각이湧솨슴치는 게 당연하다!

23 원 나이트 스탠드 해? 말아?

거사를 앞둔 지금, 그녀는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42 GIRL NEXT DOOR

이웃집 이쁜이: 최혜연 얼굴과 마음, 둘레까지 작은 독자 모델 1호 최혜연은 초모덕의 스멜이 진동하는 멋진(?) 여자였다.

45 DRINK

쉽게 만드는 칵테일

남자라면 알아야하는 여름 특산 제조법.

74 FITNESS

트레이너 강이 당신의 심장상을 전격 방송시킬 운동법을 소개한다.

76 ICON:

JACK WHITE

화이트 스트라립스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 잭 화이트가 새 밴드에서 드럼 치고 동물 박자를 모으는 이유가 궁금한가?

78 황당 사인(死因)

죽는 이유도 가지가지

88 ICON: 류현진

볼세움의 예이스 그는 괴물을 넘어서 전설로 진화 중이다.

90 FOOD

차가운 에디티의 차가운 그린티 아이스크림 비교 분석기

98 MAXIM BUSINESS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발표 잘 하는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미는 재미 흥구멍만큼이나 없는 경제 신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당신 대신 MAXIMI 전문가에게 물어봐. 다 당신 잘이라고.



FX

모든 것 다 가진 남자 채널이다.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Echannel  SCREEN  HomeX  CINE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Departments

91 제이(J.ae)

MAXIM에 스친 제이의 비람, 물처럼 순수하지만 할 줄 알았던 그녀의 삼패인 같은 발칙함을 보고 싶지 않나?

113 STYLE

수영복을 입은 세 남녀의 격정적인 원시 본능 이야기. 뜨거운 여름 더위도 먹고 패션 센스도 올라가는 모자 고르는 법, 바르거나 해도 싫어 찌죽 찌죽해지는 보디 솔리밍 겔. 향님의 문신에서 패션으로 진화한 타투

124 RED, WHITE & BIKINI

미국 MAXIM에서 독립 기념일을 맞이한 기쁨을 우리와 나누고자 선물을 보냈다. 10페이지에 달하는 빅키니 화보! 지금부터 만구 정화에 돌입한다.

144 24 HOURS TO LIVE

노라조의 조빈
그를 보고 있자니 삼각김밥이 먹고 싶어진다.

10 MAXIM INSIDE

본격 MAXIM 캐논 (보리의 마음) 재팬 작가 굿-나잇루 주연! 무더운 여름을 빌미로 태업을 시도한 MAXIM 편집부

12 CIRCUS MAXIMUS

여름철 1등 간식 바삭바삭 발라 팔방수, 지금 같았으면 근육 깊을 허준의 어깨 채워진 모습, 스타에게 배우는 사인하는 방법, 당신의 스토커 분홍 체크리스트, MAXIM 수컷의 처어러링 도전기(보고 토하치 마세요, 미리 사과할게요), 비노기와 친분이가 말하는 토끼 탈출법, BEAT THIS CAPTION

26 RATED

싱그러운 사과 같은 신인 가수 김여희가 아이튠즈의 감정을 뱉다. 신작 영화 (이름리스)의 크리스틴 스투어트의 '뽀뽀뽀' 타령, 마음대로 매겨본 아이돌 성격표, 매력 만점 파니 핑크와 흥대 마녀 오지은, 케이클 TV 야구 프로그램 3패션,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배우 하주희, 개입으로 돌아온 패러시아 원자, (컴투스 프로야구 2010) 개발 PD와의 인터뷰, (종지마 정삼수) 작가의 정삼수를 연 인터뷰, 7월에 볼 만한 스티븐 오모

46 SPORTS

MAXIM 스포츠 뉴스, 월간 (루카) 조한일과 돌아온 NBA 09~10 시즌, 프로야구 시구 상반기 결산, 미녀 골퍼의 향연

55 STUFF

아이폰 4G를 질러야 하는 이유, 하이브리드 디카 체험기, 그녀와의 유쾌한 캠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캠핑 기어, 라세티 프리미어 vs 로르테, 코란도 C의 배일을 벗기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 격대별 국내 시판 자동차 총량과 리스트, 남자를 몰타오르게 하는 로보 피규어

100 MAXIM BRAZIL

라이카 올리베이라
과거에 이 초특급 슈퍼모델이 호나우두(브라질)의 여자가 그리 좋아 사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32



124



72



124

최고 Good Shopping 10% SALE



쇼핑고수의 Must Have-

KB Good Shopping 카드

나는 세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아니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전국 모든 백화점은 물론 마트, 슈퍼마켓, 홈쇼핑, 대중교통까지
최고 10%까지 할인해주는 굿쇼핑 카드가 있으니까!



10% 쇼핑할 때 최고 10% 할인!!

- 전국 모든 대형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명세점
-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포함) : GS, C.J, 현대, 롯데, 농수산
- 인터넷 쇼핑물 :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옥션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10% 할인!!

- 버스, 지하철 (전월 신관 결제금액 30만원 이상/월간/월간으로 차감된 할인율 10%)

* 상기 서비스는 개별제공조건이율실적/할인/카드/카드종류/카드
KB국민은행 및 제휴업체 사정으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콜센터
(1588-1088)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588-1688



MAXIM

South Korea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이혜성

전문이사 김경성 / 이사 양지웅 / 이사 권해진 / 이사 소상혁

FEATURE EDITORIAL Team

EDITOR

편집장 sarah@maximkorea.net, 권해진 hy@maximkorea.net,
김상진 psycho@maximkorea.net,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박상우 daydreamer@maximkorea.net, 이영미 yo@maximkorea.net,
임가람 soccerhoic@maximkorea.net

FASHION EDITORIAL Team

EDITOR

고정희 koko@maximkorea.net, 권해진 jin@maximkorea.net,
서민정 h@maximkorea.net, 조장진 JJ@maximkorea.net

EDITORIAL DESIGN Team

DESIGNER

장성민 ssung_ma@maximkorea.net, 장지원 dofuldo@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Team

STRATEGIC PLANNING Director 소상혁 so@maximkorea.net
ADVERTISING Manager 김진옥 14@maximkorea.net
박혜진 maxxim@maximkorea.net, 홍솔희 soulmate@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Manager 전우빈 woobi@maximkorea.net
FINANCE PLANNING Manager 최인경 jy@maximkorea.net
CREATIVE PLANNING Manager 유은진 sm@maximkorea.net
MARKETING PLANNING Manager 김중국 jk@maximkorea.net

교열 신선경 kshin0111@dsum.net

WEB SERVICE 후원 / IT Director 서정민 oreiss@tlowen.com

PHOTOGRAPHY ARC STUDIO

FILM MAKING Elton Kim

FINANCIAL CONSULTANT

승강회계법인 / Accountant 김홍락 Consultant 김희영

인쇄 · 원색분쇄 / 인쇄인 유성근 (주)삼화인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7-10

DISTRIBUTION 승주 출판유통



발행처 (주)에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미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
TEL. 02-323-1182 / FAX. 02-6465-0193 / 2010년 7월호 통권 제39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본지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4 구독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MAXIM SOUTH KOREA는 세계 3개국 편집부에서 발행되고 54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남성잡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에이미디어 그룹은 2009년 1월 2일부터,
대한민국의 (주)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
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에이미디어 그룹과 에이미디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에이미디어 그룹에 귀속되므로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0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JOE MANGIONE
GENERAL COUNSEL
DAVID SIMCOX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ENTRAL AMERICA**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Nicaragua, Costa Rica, Panama
-  **CHINA** United States, Hong Kong, Taiwan, Singapore, Malaysia, Australia, Canada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SLOVENIA**
-  **ROMAN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VENEZUELA**
-  **MEXICO**
-  **PUERTO RICO**
-  **COLUMBIA**
-  **CHILE**
-  **ECUADOR**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  **PHILIPPINES**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안전 때문에 수입차를 탄다는 건 이제 구차한 변명이 되었다



라세티 프리미어 세계 최고등급 안전성 획득

한국, 호주, 중국 NCAP에 이어 유럽에서도

별 5개로 세계 최고의 충돌 안전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



MAXIM은 잡지의 미래다 #2

종이 잡지의 **변신**.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읽자.



1. 책에서는 볼 수 없던 동영상을 감상하고 싶다면?
 2. 땀방 터지는 선물 보따리를 받고 싶다면?
 3. 에디터가 소장한 미공개 사진을 보고 싶다면?
 4. 기사에 나오는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고 싶다면?
 5. 재미없는 기사를 쓴 에디터에게 욕을 하고 싶다면?
-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QR 코드를 갖다 대라!

MAXIM 구성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쉽 새 없이 선물이 터진다!

- SONY MP3
 - 워크맨 NINZ-BDSF 20
 - 아이스크림 기프트폰
 - 최신 게임 소프트
 - MAXIM 과월호
 - LAB GEFRES 비디 솔라링 제품
 - IN-SIGHT BY LFLUL 보드소프
 - 한화 이글스 유원진 친필 사인물
 - 뮤지컬 (그리스) R서 티켓
 - 월드컵 공인구 자물라니
- "뭐 더 필요한거 있수?"



1. 아이폰 앱스토어나 T-스토어에서 '쿠루 쿠루' 앱(App)을 무료로 다운로드한다.



2. 앱을 실행한 후 'QR 코드 스캔'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구동된다.



3. 책에 나온 QR 코드를 카메라로 비추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코드를 인식한다.



4. QR 코드 속의 MAXIM을 만날 수 있다.

MAXIM GIVES VANN WORKS 2 THUMBS UP!

엔디워orks은 소수 특권층만 누렸던 예술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확산시켰다. '팩토리'에서 탄생한 워orks의 작품은 그의 바람대로 가방, 티셔츠 등에 널리 복제되었고 우리는 워orks의 작품. 나아가 예술 자체에 익숙해졌다. 다시 시대는 변화하 하지 않을까? 모두가 아는 예술은 이제 식상하잖아. 과거 소수 특권층만 예술을 누렸다면 이제는 '특권' 글자를 뺀 소수인 예술을 누리자. 예술이 우리 손닿을 수 있는 곳에 흡수된 것은 두 손 벌려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 예술의 희귀성이 사라진다면 두 손 막이 반대할거다. 소수 개개인이 취향 따라 자신만의 예술을 즐기진 않이다. 자신의 취향이 곧 특권이 되는 거다. 패션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시도 끝에 패션은 예술에게 친구라하고 손을 내밀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을 선보이려는 예술가들은 그 손을 반갑게 맞잡았다. 그런데 문제는 패션 산업의 몸집이 엄청나게 크다는 데에 있다. 새로운 예술가를 발굴해내면 뭐하나. 이는 곧 대량생산되어 나도, 열집 철수도, 미국 제임스도 쉽게 취할 수 있는 흔한 아이템이 될 텐데. 그래서 MAXIM이 VANN WORKS를 소개한다. VANN WORKS는 디자인, 원단, 제봉, 나염 등 모든 공정에 디자이너가 직접 참여한다. 클럽에서 우리의 눈을 돌이리게 만든 VANN WORKS 티셔츠는 흥대 인디씬에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2010 S/S 시즌에 처음 론칭하여 출시 수개월 만에 1억이 넘는 매출 달성. 안쪽 있는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커 가고 있다. 어때? 믿을 만하지? VANN WORKS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2010 그린 플라그드 페스티벌에 참여한 유명 밴드들을 공식 후원한다. 또 숨은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전시 기회도 주기 위해 갤러리 카페들과 연관 커뮤니티(ART CENTER)도 형성했다. 2010년 10월 19~22일 매체 프랑크푸르트가 주관하는 상해 국제 의류 직물 박람회에도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라 벌써 VANN WORKS에 방문해보자. 문의 02-6402-8229/ www.vann-works.com



Letters

이번 7월은 휴일이 하나도 없다. '공휴일, 그게 뭘 써 먹는 거?' 라고 생각하는 MAXIM 에디터도 달력이 아박하기만 하다. 부디 당신이 우리 대신 신나게 놀고 까불고 얻어타고 난 뒤의 격정적 감동을 우리에게 보내주길 바란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도착한 독자 편지를 소개한다.**



“더위 피해 매복 중.”



다 끝났어.

교수님이 무서워요

이번 학기에 전과한 남학생이에요. 전과한 학과 교수님이 너무 무서워요. 전과하기 전, 학과에서 불렀던 노래 제목, 친구끼리 한 얘기부터 오래전 MAXIM에 제 사진이 실린 사실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관심 있는 여학생과 나는 얘기까지! 무서히 졸업하고 싶어요. -올해도 케빈과

>> 우리도 당신의 무사 졸업을 기원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신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그 교수님. 혹시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p.20 기사에서 스토커 증언 고학력자가 많다는 내용을 참조하라) 아아, 우리 혹시 이 편지가 잡지에 실릴 때쯤 이미 우리 금쪽같은 MAXIM 독자를 악마 같은 교수가 이미 취한 건 아닌지, 당신의 뒷모습이 벌써 현란한 지휘봉 휘두르기 기술로 개봉되진 않았는지 너무나

무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당신이 졸업을 앞두고 교수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밀보이면 곤란하다는 거다. 자, 우리 인생 길게 봐야 한다. 눈 딱 감고 셔츠 단추 4개만 풀자. 그리고 교수실로 들어가라. 도저히 못하겠나? 그렇다면 당신의 이번 학기 성적은 이미 불구덩이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 넉넉히 그대로 당신은 올해도 케빈과 계절학기로 구멍 난 성적을 메우기 위해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다. 건투를 빈다. 혹시 모르니 아래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도록. 남성의 전화 www.manhotline.or.kr 02-2652-0456

고급 변태입니다

당첨

안녕하세요? 24세 MAXIM 애독자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고급스럽고 발달한 상품들을 몽마르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MAXIM을 좋아하여 MAXIM 독후감도 첨부하여 보냅니다. 고급 변태의 독후감이랄까요. 저는 순수한 고급 변태 잡지 MAXIME에 기고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MAXIM을 그저 아한 잡지, 화장실용 잡지라고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MAXIME 성인 잡지인지, 미성년자 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친과 머리 툽고 싸웠습니다. MAXIM을 사랑합니다. 아근에 이리 치고고 쥐꼬리 연봉에 저리 쳐어도 눈을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사랑하는 잡지를 만드는 당신들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Alexander K

>> MAXIME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잘 읽었습니다. 우선 MAXIM은 미성년자도 구입 가능한 잡지! 당신이 이겼으니 여친 머리를 더 쥐어뜯어라. 그런데 보내준 파일의 독후감 속 본인 사진은 도대체 어느 모델에서 찍은 건가요? 명색이 CEO인데 좋은 곳 갔다. 하여튼 우릴 사랑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일반인 개 프랑스로서 발달 상품 좀 보내봐라. 마감 스케줄이 엉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에디터는 마요구 서교동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나마 프랑스의 발달함을 느껴보고 싶다. 오, 상탈레미.



강문호 잘 됐다. 용감했다. 우신은 또 어째서 일만 고요하.

우신



그냥 공놀이

귀한 MAXM 잡지에 고작 축구공 하나 받아라고 할 걸을 하라니! MAXM 프로모션 담당자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뒤 페이지 체리걸의 가슴을 드러내라니, 고작 축구공 하나 때문에 그런 민생을 저지르라니. (그런 데 지금 남은 공 하나? 이번엔 조금 그게 구멍이 이벤트로 이제 됐다. 아저씨 팔요한데.) -생선미역

>> MAXM 프로모션 담당자가 실마 생각도 없이 체리 걸 바로 뒤에 축구공 이벤트 페이지를 넣었겠지. 그는 축구공보다 체리걸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차마 도려 내질 망설이는 독자가 많기를 은근히 버렸던 말이다. 하나 우리 생각이 짧았다. 인성자정없이 체리걸의 가슴을 드러낸 이들이 부지기수다! 결국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자들이 축구공을 모두 독차지했다. 성공하려면 인성 따윈 게나 줘야 한다는 걸 세상 깨달았다. 그녀가나 당신. 늦게 구입해서 이벤트 참여에 늦어놓고 드디어 우리에게 생을 내다내! 프로모션 담당자 가슴에 스퀘크라! 냐! 부디 다음 이벤트에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것지 공? 다음엔 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남친에게 주고파

MAXM을 향한 남친의 깊은 사랑 때문에 덩달아 욕망적인 여성의 몸을 매달 흠뻑어보게 된 나. 그녀들처럼 긴 가리지도,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는 큰 가슴도, 심지어 매끈한 피부도 가지지 못한 나, 이 슬픈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남친 물레 아동 속 여자들의 스킴을 훑쳐보고, 명기 되는 법, 남자들이 깜짝 죽는 서비스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까지 했다. 물론 그는 이대로도 좋다고 한다. 이런 고마운 그에게 외장하드를 선물로 주고 싶다. -yourlay

>> 그가 정말 당신을 "이대로로" 좋아하는 걸까?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외장하드는 처자가 남친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처자가 남친에게 외장하드 사달라고 해보라. 물론 이 외장하드는 처자만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남친 얼굴이 처갑게 굳으며 "별 이런 걸 아깝게 돈 주고 사느냐?" 고 반문한다면 남친은 처자와 더 즐거운 열매 벌레를 하기 위한 노력을 너무 부족했 거다! 하하하! 너무 걱정 마라. MAXM의 에디터 임씨를 부차주세요. 처자가 아용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임씨가 다 이끌어줄 거다. 그는 이미 카마스트라를 (이름으로만) 마스터했다. 지금 남친보다 훨씬 간결한 사이즈라 아마 휴대도 용이할 거다. 정말이다.



저렇게 뒤흔치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 전 '통교' 라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큐티걸' 이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웬 황재냐 싶어 바로 가르쳐주었죠. 서른 가까이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녀와 만났는데 웬 '저렇게' 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상당히 귀여웠는데 밝은 데서 보니 완전 똘사람이더군요. 그녀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도저히 못 봤겠습니다. 이름 아시해야 할니까 -헛웃

>> 한 여자 에디터가 당신에게 저렇게 큐티걸로 변신한다는 말 같은 술집 '통교'의 주소를 반드시 꼭, 자세히하게 물어보라고 부탁했다. 최신 버전이다.

7월의 독자



WANTED!

당신의 사장이 궁금하다

MAXM으로 사연을 보내라. 재미있어도 좋다. 선물 못 받게라도 데려와? 매일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된 사연 중 경연을 추천하여 선물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응모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M 코리어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mcorea.net

당신 만상도 보고 싶다

MAXM을 구독하는 사연을 보내주세요. 수만 중 선생들에게 보낸 듯이 딱 하니 MAXM을 책상에 올려놓을 학생 용자 한 손으로 촬영에 매달리시다면 한 손으로는 MAXM을 보는 익스트림 근육질의 독자 중 선정은 특별수속 특대. 사연을 올린 바로그나 홈페이지(URL)과 사진 내용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꼭 reader@maxmcorea.net로 보내주세요. 자재나리의 주안이 될 수 있다.



이제 WWE는 FX에서 접수한다!



THURSDAY PM 11:00 WWE SUPERSTARS
FRIDAY PM 10:00 WWE SMACKDOWN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E channel SCREEN FromX CINE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파 남자채널

RED BEAN SHERBET

with CRISPY INSECT

바삭바삭 벌레 팔빙수

BY 김민석,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COOPERATION 귀한 달래를 무료로 제공해주신 제기농 약방시중 관동산 한약국, 경인 한의원 사장님들

거머리

말린 거머리는 몸 안의 종양과 어혈을 없애는 데 효과적으로, 술, 담배, 잦은 야근으로 점점 악화가는 당신의 활관을 병 뚫어줄 것이다. 같은 놀이라도 소, 말, 사슴 피로 배를 풀린 것이 좋다고 하니 이왕이면 뽕뽕한 놀으로 골라라.

전갈

〈동의보감〉에는 전갈이 풍으로 비뚤어진 입이나 마비 증상을 치료해준다는 기록이 있다. 말을 질하지 못하거나 느린 증상까지 치료 가능하다는 전갈은 당산을 경천동지할 프라젠 테이션의 달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달고도 매운 전갈 특유의 맛은 차가운 얼음과 뒤섞여 빙수의 풍미를 더해준다.

매미 껍질

매미 껍질은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는 데 주로 쓰인다. 민간에서는 낮에는 잘 놀다가 밤만 되면 울며 보채는 아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루를 내어 먹이기도 했다. 더운 여름날 이유 없이 솟구치는 짜증을 다스리는 데 탁월하다.

궁병이

〈본초강목〉에 따르면 궁병이는 열을 내리고 나쁜 피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빙수의 얼음이 붙벌더위로 올라간 체온을 일시적으로 내려준다면 궁병이는 보다 지속적인 효능을 발휘할 것이다. 다소 편맛이 나니 빙수를 먹기 전 애타타자르로 곁들여라.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IM의 소망입니다.”

RECIPE

재료: 거머리, 전갈, 매미 껍질, 궁병이, 과일, 얼음, 우유, 꿀, 약간의 설탕

① 거머리와 전갈, 매미 껍질, 궁병이를 구해 양자바른 곳에서 말린다. ② 좋아하는 과일을 조각 썰기 해서 냉장고에 넣어둔다. ③ 얼음을 곱게 갈고 우유와 설탕, 꿀을 기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서 넣는다. 귀찮으면 시중에서 파는 팔빙수를 포장해 와서 분인이 만들었다고 스스로 세뇌하자. ④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빙수 위에 미리 준비한 과일과 함께 벌레 친구들을 스피디히하면서 보기 좋게 올린다. ⑤ 기호에 따라 연유나 초코 시럽을 곁들여도 좋다. 징크럽다고 망설이지 얼음이 녹으면 벌레 맛이 더 강해진다. 분노의 수저질로 빙수와 벌레 친구들을 한데 섞은 후 얼음과 함께 섞어 먹는 것을 추천한다. 바삭바삭, 차아에 매미 다리가 끼면 질 안 빠지니 조심할 것.



단 한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No.1 뮤지컬 그리스

2010.7.3~8.29 타임스퀘어 CGV아트홀

[예매] CGV아트홀 www.cgvarthall.com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 문의 | 501-7888

★특별한 당신을 위해 마련된 최고의 선물!★

No.1 뮤지컬 그리스의 No.1 좌석 VVIP석 예매 시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 증정과 이벤트의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매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 대학생 할인
R,S석에 한해 예매시

40% 금요일 낮공연
금요일 4시 공연 예매시(상사적용가능)

1 팔다리 뼈가 부러졌다고? 당 한 마리를 구해 오거나, 노란 닭도 빨간 닭도 안 된다. 내놓 속처럼 시커먼 닭이어야 하나니라, 그 닭을 통째로 짓겠자라. 사나이 리면 1천 번 정도는 팔이 쪼아 하나니라. 여기에 식초 한 되를 넣고 비누로 상처에 바르면 된다. 단, 1천 번 빨다가 부러진 뼈가 더 부러질 수도 있다.

2 귀나 코가 떨어졌느냐? 참 딱하기도 하나나. 기름 잘 먹은 머리카리를 태워 재를 만들거라. 그리고 그 재를 떨어진 자리에 데고 쨌면 다음 천으로 돌돌 동어매거라. 고한이 떨어졌는가? 그러면 고한을 천천히 구어넣거라. 그리고 남가미를 구어 상처에 붙이거라. 감쪽같이 붙을 것이다. 거미가 고한에 입을 할 수도 있단나! 그런 내 알 바가 아니구나!

3 또 무슨 잘못을 하여 매 맞을 짓을 했느냐 천하의 명인 내가 알려 준 대로 하면 매 맞은 상처가 싹 나으니 잘 듣거라. 뜨겁게 구운 밀떡을 천에 싸서 찜질을 하면 금방 낫는다. 아나면 쥐를 잡아 신 채로 씌 다음 기름을 넣고 졸여라. 이를 뒤 갖에 묻혀 상처 부위에 바르거라. 이보다 예초에 매 맞을 짓을 하지 말게.

4 쫓쫓. 어찌다 내장을 밖으로 줄을 흘리고 다니는가? 아직 안 끊어졌다면 다시 집어넣고 뽕나무 뿌리 걸질로 만든 실로 배를 꿰매게. 그리고 약을 바르시게나. 뽕나무은 자체 내장 냄새가 고약한가? 창기름을 내장에 바르고 재차리에 밀어넣은 뒤 인삼, 구기자 뿌리를 달인 물로 씻어내쇼.

5 까리끼리 모인다고, 내놓 중 주변에 유난히 미친개가 많구나. 미친개는 꼬리가 뺏뺏하고 침을 흘리고 허기 시켜준다. 미친개는 물렸다면 가래(대장병에 종류) 7개를 가루 내어 데운 술에 타 먹거라. 그러면 독기가 오줌으로 나오는데 반드시 이 독기가 형 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고 양이 형상은 안 되느니라. 이 방법도 안 되면 자네를 문 깨워한 개의 뇌를 꺼내 상처에 바르거라. 이에 는, 눈에는 눈이나라.

6 벌레에게 물리는 것만은 인간이 흉해지는 원인은 없네. 거미에게 물리면 임신한 것마냥 배가 부르고 몸에서 소리가 나온다네. 스카리더벌은 마름 내어 코막이 창착한 캐커라기 아님을 자네도 이제 잘 알겠는가? 지렁이에 게 해를 입으면 밤마다 지렁이 누는 소리를 내게 된다고 하니 조심하시게 지렁이! 지렁이!

7 헛것을 보고 싶나? 사람 농 약 먹고 하이 상태로 가지 말고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거라. 약재상에 책임사, 석창포, 구구를 달라고 하여 이것을 흰지 쪼아, 따지도록 말거라! 꿀에 반죽하여 약막을 만들거라. 아침 해를 향해 한 번에 한 알씩 100일 동안 먹거라. 자, 이제 내 모습이 30로 먹으로지 않느냐?

10 여우에게 홀리던 산과 들을 싸돌아다니게 되고, 손을 맞잡고 아무에게나 절을 하는 동방예의지국의 모범 청년이 된다. 보기엔 썩 좋지 않구나. 어디 그뿐이겠는가. 농짓말을 하고 옷을 벗거나 대소변을 아무 곳에서나 찜질거리나. 미친개의 형실과 다를 바 없겠구나. 여우 고기나 여우 가죽 혹은 코관의 같은 곳을 가루 내어 술에 타 먹어도 효과가 있다. 다만 여우 같은 계집에게 올린 데에는 딱히 방도가 없으니 일어서 주의하거라!

9 세상에 유정만 병이 있다. 늘 고기를 먹고도 또 먹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증상이다. 이에 토하지 않으면 죽는다. 음주와 성생활이 지나치면 허공에 오색 물건이 보이거나 고운 여자 허상을 볼 수도 있구나. 보약을 먹으면 낫지만 그대들은 딱히 이 병에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내 자세한 처방은 생략하겠다.

허준의 야매 처방법

정말로 그 허준이 그 《동의보감》에서 했던 말을 모았다. 지금 같으면 허준의 손목에 쇠고랑이 채워졌을 거다.

BY 김연애 ILLUSTRATION 민영민



줄을 서시오!

의천 나라, 나 좀 고쳐주세요!



e MAXIM Attack!



www.maximkorea.net

- MAXIM의 모든 콘텐츠를
1,500원에 보고싶은 재!
- MAXIM의 영상 콘텐츠를 보고싶은 재!
- 책보다 PC가 더 친근한 재!
- 서점에서 MAXIM을 사는 것이 민망했던 재!
- MAXIM을 침대 밑에 숨겨왔던 재!

“모두 e매거진과 교감하라!”



MAXIM 에디터 치어리딩 도전기!

그녀와 함께 춤을! 넥센 치어리더 팀과 함께하니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라.

BY 김상현 ASSISTANTS 박성우, 임기훈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넥센 치어리더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MAXIM 에디터 상홍사가 치어리딩에 도전했다. 남자가 무슨 치어리딩이냐고 구시렁거리던 그들은 넥센 히어로즈의 치어리더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배죽 튀어 나온 입을 목젢까지 집어넣었다. 그 대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녀들에게 복종을 맹세했다. 지금부터 영혼을 치어리딩에 팔아넣긴 그들의 멋진 모습(이라 쓰고 추한 모습이라 읽는다)을 공개한다. 물론 당신에게 매력 그녀들만 볼 권리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넥센 치어리더 주은연 팀장님의 친절한 가르침에 두 마리 수컷은 신이 났다. 에디터 박 씨의 시선은 늘 요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에디터 임 씨라고 다들 건 없었다. 여자의 손길을 예뻐하게 그리워하는 그는 당장이라도 팀장님께 “공디 핏방!”을 요청할 기세다.



▲ 치어리딩에 매진한 그들의 모습은 솔직히 멋있진 않았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만큼은 박수를 쳐줄만 했다. “육~뿔~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에는 이미 두 수컷 따윈 보이지 않았다. 이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점프 동작까지 완벽 마스터했다. 어느새 자기 흥에 취한 이들은 당장이라도 스튜디오 찬장을 들고 안드로메다로 달려갈 기세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야구장에서 배운 걸 심심할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다(피식).



◀ 훈련을 반복하자 동작이 자연스러워졌다. 여자라면 죽고 못 사는 MAXIM 에디터답다. 물론 이 둘을 가르치는 팀장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지만 어쩌겠나. 시차를 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법이다.



◀ 에디터 임 씨의 박한 감정을 이 한 문장으로 대신한다. “엄마! 나 서울 아가씨랑 사진 찍었어요!” 누군가 매일 밤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를 위해 제주도산 암말을 MAXIM 편집부에 보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다. (사이즈로 박선 조망달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실전투입



▲ 아중에서 좋은 기술을 배웠다던 실제로 딱을 칠 때 싸먹어 봐야 한다. 치어리딩도 마찬가지로 MAXIM 삼총사가 지난 6월 4일 넥센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있던 날 목동 넥센 홈구장을 전격 방문했다.



동태 김 씨

▲ 늑오면 죽어야 한다. 머리로는 분명 기억한 동작인데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둘씩 빈자리가 메워지는 경기장의 분위기에 압도된 거라 믿고 싶을 때 몸이었다. 김 씨는 그렇게 고독에 휩싸였다.



▲ 치어리딩의 피날레는 박 트라볼타의 몫이었다. <토요일 밤의 열기>의 존 트라볼타를 관광시키는 그의 멋진 포즈를 보라. 거만하게 살짝 구부린 무릎이 포인트다. 이날 함께한 본인과 임 씨도 그와 같은 포즈를 취했으나 심히 무서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단독 컷을 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 얼굴도 처음 필름 때나 부끄러운 법. 단상에 올라간 순간 동물원 원숭이가 된 에디터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순간을 즐겼다. 하지만 관객석에 앉아 있던 넥센 히어로즈 팬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우리도 이해한다. 수컷에게 또 다른 수컷은 그저 징그러운 존재일 뿐이니까.



에디터 박 씨

▲ 무대 올랐을 때 한참 단상에 올라가길 거부한 에디터 박 씨였다. 그러나 정작 단상에서 가장 열심히 치어리딩을 한 남자 역시 박 씨였다. 그는 노출 전문 모델답게 카메라란 갖다 대면 신나는 몸짓을 선보였다. 이 '에지(edge)' 있는 모습을 보라.



에디터 임 씨

▲ 평소 회사에서 팬티 노출을 즐기는 에디터 임 씨다. 그는 야구 장이고 나뭇이고 신경 쓰지 않았다. 점프 동작을 취함과 동시에 상의를 꺼버렸다. 이날 그의 더러운 배꼽을 목격한 넥센 히어로즈 야구 팬에게 상심한 사치 말씀을 전한다. 그의 노출증은 나날이 진화 중이다. 몸을 녀석.

SOHOT!

넥센 히어로즈
치어리더단
그녀들의 매력에
꼭 빠져보자.



오로라



이스연



임향기



주연

스토커 자가 진단 리스트

이제 애꿎은 나무는 그만 짝아대라, 그래도 안 넘어간다. by 8월판

스토커가 발간자.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당신을 거절했음에도 옛 숙담만 믿고 죽어라 쫓아다니면 그게 바로 스토커다. MAXIMI 스토커 자가 진단 리스트를 만들어봤다. 다음 항목 중 몇 개가 자신에게 해당하지는 체크해보라. 당신 안에 숨어 있는 스토커 본능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 여기서만큼은 다다익선인 미덕은 아니다.

CHECK LIST

날 알아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일상을 구구절절 설명한다.



전화기는 나의 힘!

내 몸에서 전화기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다.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테스트하길 좋아한다.



급작스러운 선물!

친하지 않은 이에게 고가의 선물을 선물한다. 선물의 종류는 반지일 경우가 많다.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시시각각 바뀐다. 빙글 돌까진 좋았던 사람도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인 경우가 잦다.



편을 갈라라!

우리 편 아니면 나쁜 놈! 편이 구분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부서버릴 거야!

한번 화가 나면 멈출 수 없다. 무언가를 파괴하고 나서야 진정이 된다.



정보는 나의 힘!

정보는 국력이라 생각한다. 주변인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유행에도 본다.



업무는 나에게 맡겨!

부지런할 뿐 아니라 세심하고 치밀한 성격이다. 멀티태스킹 능력도 갖춰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



딱...땀아...허일허일!

이성과 교제하면 성(性)적인 것에만 집중한다. 다른 건 신경 쓸 틈이 없다.



TEST 결과

0~3개: 스토커 지수 하

당신은...

아직은 괜찮다. 이쯤에서 상대 방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숙담만 머릿속에서 지운다면 큰 문제는 없다.

4~6개: 스토커 지수 중

당신은...

위험한 수준이다.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 스토커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7~10개: 스토커 지수 상

당신은...

스토커일 확률이 매우 높다. 영화 (미저리)의 여주인공을 닮았게 여기지 마라. 당신도 똑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정화하라.

STALKER CHARACTER

스토커의 자질

많이 배운 놀일수록 더하다.

오해, 잡에
있었어?



가방끈이 길다

스토커의 80% 이상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다. 역시 많이 배운 놀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걸 못 견디는 법이다.

업무 능력이 배아나다

스토커를 하려면 강한 집착이 필수 스킬이다. 이 스킬이 업무에 사용되면 엄청난 업무 성과도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사에서 잘나가는 에이스라고 인식까지 에이스는 아니란 소리다. 알겠냐?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다. 친구가 있어도 마음속 얘기를 나눌 만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자신의 세계에 들어박히는 경향이 강하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소리다. 상대방이 피가 마르든 말든 지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거다. 이러니 외톨이가 될 수밖에!

WORST STALKER EVER

범법 스토커 BEST 5

나혼자, 남친이 당했던 건 세발의 피였다.

마크 제프먼

비틀스 멤버 존 레논에 대한 집착이 극에 달한 마크 제프먼은 결국 존 레논을 살해했다. 존 레논의 시신을 받던 날 그를 살해한 것으로 더 유명하다. 스토커 관련 범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로버트 바르도

영화에서 연기자 레베카 제피에게 목 해준 로버트 바르도는 팬데티를 보내기 시작했다. 친절한 레베카는 직접 답장을 보냈고 이를 계기로 로버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이 재단하다 '이렇게 사랑이 변해라'라는 훈자의 명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사생활장에게 약 3억의 돈을 주고 그녀의 집을 일주일 후 편지와 함께 총알을 선물했다. 이 일로 계기로 미국연 스토커링 범죄법이 만들어졌다.

노인 피고

노인 피고는 스티븐 스펠버그를 너무 존경해 범죄를 저질렀다. 노인 피고는 스펠버그 감독의 저택 주위를 어슬렁거리다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체포될 당시 수감, 나이프 포징을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노인 피고는 "스펠버그를 존경하게 그를 따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수감, 나이프, 포징을 테이프의 용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아 물론 노인 피고는 남자다.

스타 맛집 사인

그들에게는 맛집 홍보의 노하루가 있다. BY 김민혜

전형적인 스타 맛집 사인

조선 허주구제, 7차 맛보살을
가 가 가
2010. 1. 28.

정진영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맛집 사인의
정석. 배운 사람 티 난다.

정진영
2010. 1. 28.

이효리

가수답게 노래와 춤에서만(?) 개성
을 발휘하는 그녀. 정말 무난하다.

예술혼을 표현한 스타

크리앙렛
2010. 1. 28.

크리앙렛

사인에도 풀어놓은 신만한 예술혼.
그들의 사무실이 들리지 않나?

조성환
2010. 1. 28.

남희석

돼지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잘
느껴진다. 돈수백, 돈수억의 문구로 억
지로 라임을 맞춘 그의 게코 스피릿
이 장렬하다.

맛집 PR이 쏙스러운 스타

김상경
2010. 1. 28.

김상경

연가 때 배우답게 아무리 맛있어도
감정 표현을 지체한다. 다만 왔던 날
씨는 날진다.

장우혁
2010. 1. 28.

장우혁

마지못해 가게 이름만 적어왔다.
더 이상 적으면 풀이 안 난다.

자기 PR을 놓치지 않은 스타

변가수
2010. 1. 28.

변가수

유행어를 적절하게 이용했다.
'to' 를 하트 모양으로 보이게끔 변
형한 센스까지!

정명준
2010. 1. 28.

정명준

'독한 것들' 이라고 적고 싶었지
만 글씨를 못 써서 '독 탄 것들'
이 됐다. 부러웠는지 그의 군에 입
대했다.

대놓고 자기 PR만 하는 스타

허성희
2010. 1. 28.

허성희

예의상 넣은 맛집다는 문구. 신곡 제
목은 지체하. 사인을 남긴 지 1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허성희라는 가수를
본 적이 없다.

윤상현
2010. 1. 28.

윤상현

맛있다는 말은 없고 자신의 배역만
소개했다. 방송 날짜까지 상세하게
본 적이 없다.

맛집 PR이 지나친 스타

이선호
2010. 1. 28.

이선호

가져갈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사장
님한테 확인 다 했잖아.

유종신
2010. 1. 28.

유종신

'하루에 아메리카는 3번 팔린다'
는 자기 커피숍 체제고 경쟁 커피숍
에 간 그의 오자음. 민망했는지 글이
'촬영 중' 이라고 변경을...

FUNNY SIGNS
간판이 가가 막혀 PART 2
무심코 지나치기엔 사장님의 뜨거운
스피릿이 너무나 인상적인 간판을 다
시 모았다. BY 박기행



수적
술을 마시든 간판 가게 이름 앞에 '개' 가 붙
는다.

이쑤신장군
2010. 1. 28.

이쑤신장군

나의 과실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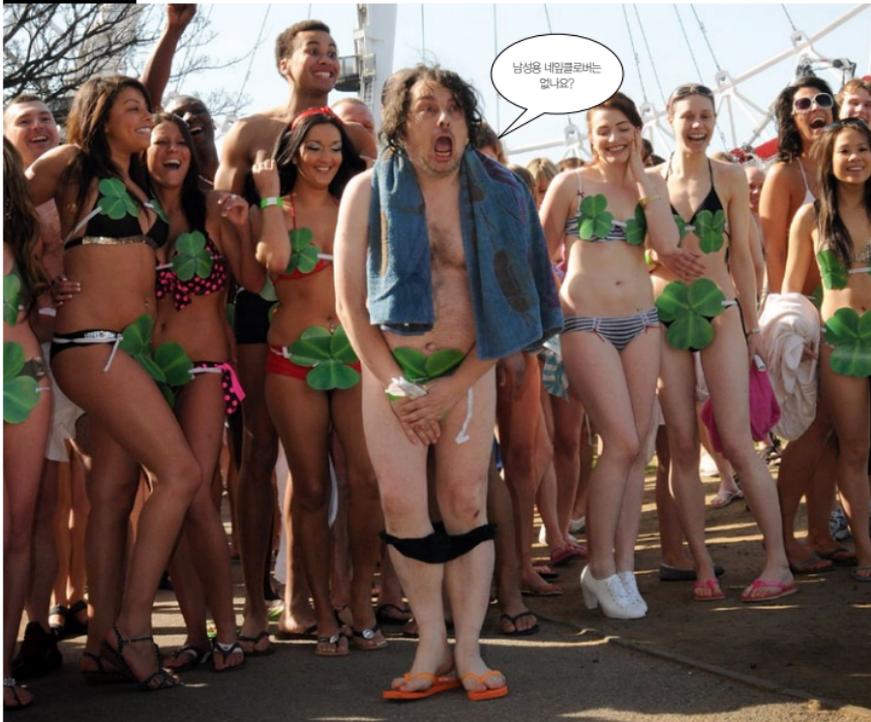
마음은 왜 돌싱한테만 술을 주사나?
돌싱가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지 올래

노래연습장
2010. 1. 28.

부르고 싶지 아니한 노래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만 부른다는 건가? 그것도 두 번이나 외치다니! 손승애에 대한 도전인가. 사장님, 도대체 뭐 원하는 거야!

주말로 나갔다가... 노래방
2010. 1. 28.

주말로 나갔다가... 노래방
손발이 주말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나갈 수 없는 유행어 양식 노래방...



MAXIM 에디터는 기사 작성만큼 많은 시간을 적절한 사진 찾는 데 투자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독자의 웃음보를 자극할 캡션을 다는 데 사용한다. 당신이 사실 흘리는 찰나의 미소가 MAXIM의 기쁨이다. 즐거워하는 여자들 속 저 남자는 과연 어떤 말을 했을을까?

당담 에디터가 뉴런을 활성화해 나온 결과물은 위와 같다. 이제 당신이 '빙' 터지는 캡션으로 편집부 전원을 어둡하게 만들 차례다. 망설이지 마라. MAXIM은 도전 정신이 아름다운 독자의 캡션을 활벗은 미녀 독자가 편집부를 방문 할 그 날만큼 기다리고 있겠다.



LAST MONTH'S WINNER
Max Lee (yive@hotmail.com)

"내리침 넘어 떨어진다."

MAXIM FEEDBACK

부진한 한 달이다. 독자들이 보내준 캡션은 하나 같이 성의가 부족했다! 이번 달 승자는 별 재미는 없었지만 캡션을 9 개나 응모하는 근성을 보여준 Max Lee 다. 이들도 MAXIM과 비슷해서 장이 갔다. 다음 달부터 앞으로 승부한다고 뽑아주진 않을 테니 그리 일도! Max Lee 는 상품 수령을 위해 하루 빨리 MAXIM 편집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상!

1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저 청일점 녀석의 대사를 상상해서 웃겨보라!

2 응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121-841)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나 caption@maximkorea.net으로 하라. 마감은 7월 10일이다.

3 담담 에디터의 인по리가 올라가는 캡션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6만 원 상당의 뮤지컬 <그리스> 티켓을 선물하겠다.



원 나이트 스탠드 해? 말아?

그날의 실패와 성공을 평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물었다. 거사를 앞둔 지금, 그녀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지 모르니까.

BY  PHOTOGRAPHS BY ALISA CONNAN

1. 그 남자, 배려가 없어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다. 대학도 잘 통해서 처음 만난 그날 곧장 모델로 가게 됐다. 늦은 시각이었고 휴일이어서인지 근처 모텔 불이 다 꺼져 있었고, 한참을 돌아다니다 조금 비싸 보이는 모텔을 발견했다. 모텔 거리를 배회하느라 이미 처음 터울렸던 불이 아찔아찔 시그라진 상태였다. 그런데 그가 카운터 주인과 모텔비를 흥정하는 거다! 내가 돈을 보태주자고 싶은 정도로 인스펄터라, 짜증도 확 나고, 그래서 그날 다음에 가자고 말하고 나와버렸다.

F(25세, 일러스트레이터)

클럽에서 그를 만났다. 나와서 술 한잔 걸치고 모텔로 직행했다. 한참 분위기 잡다가 주섬주섬 가방을 뒤져 콘돔을 꺼냈다. 그랬더니 그가 피식하고 웃는 게 아닌가. 왜 웃느냐고 물으니 "넌 항상 준비된 여자냐"며 되물었다. 이 새끼가 돌았네! 어이가 없어서 다시 옷 입고 나와버렸다. 나는 만약을 대비해서 콘돔을 늘 가지고 다닌다. '언제든 내놓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진짜 만약을 대비해서 애 먹고 나타나는 것보단 낫잖아?

J(26세, 쇼핑물 운반)

GIRLS SAY 그녀를 향해 그리스 확산 폭발처럼 터져오르는 당신의 흥분이 어느 순간 핵 식어버릴 때가 있다. 그녀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놈 및 좀 봐도 괜찮겠냐"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거사를 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대체로 원 나이트를 대하는 남자의 태도 때문이다. 물론 외모, 향기, 목소리, 크기, 피부... 다 중요하지. 하지만 오늘 낯은 남자를 모델에 버려두고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피부 원인은 대부분 여자로서 하여금 증증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들게 하여 발생한다. 선수끼리 왜 이라나고 투덜대도 사용하지. 허투루 밟아라든 그 순간만큼은 당신에게 그녀가 최고의 여자라고 느끼도록 배려한다면 그녀가 적어도 문을 박차고 나갈 일은 없다. 실사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녀가 탈출을 감행했다면 아래 등장하는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다.)

2. 그 남자, 지저분해서

그 남자 거기까지 봤는데... 뭔가 오돌토돌한 것이 돌아 있었다. 무서워서 집에 갔다.

L(28세, 배우)

남자 손이 너무 축축했다. 확 했다.

Y(22세, 취업 준비생)

GIRLS SAY 이걸 뭐... 잘 씻고 아랫도리 간수 잘라라.



3. 그 여자, 털 때문에

작년 겨울 소개팅을 위해 아끼던 니트에 소개팅 전용 색시 부츠까지 신고 집을 나섰다. 이게 털 땀 소개팅 넘어 아주 괜찮았다. 1차, 2차, 3차까지 갔다. 내숭은 이미 안드로메다형. 생각까지 잘 맞았다. 자연스레 모델로 향하는 분위기가었다. 이채! 겨울엔 제모 자주 안 하잖아. 그날 내 복슬복슬 다리털은 부츠, 볼볼볼볼 거털은 니트 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아무도 내숭을 안드로메다로 보냈어도 털 보이는 건 안 되겠더라. 눈물을 머금고 택시를 잡았다. 다음 날 그를 다시 만났다. 제모는 하고 갔다.

G(28세, 공무원)

털 때문에 할까 말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좀 뻔뻔해졌다. 며칠 전, 나는 일 때문에 만난 그 남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가 침실을 정리하는 동안 화장실에서 그의 면도기로 다리털, 겨드랑이 털을 정리했다. 면도기가 찢은 것을 그가 알까 봐 후지로 잘 닦아 제거리에 두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구 상 포유류 알수가 해야 할 일무를 충실히 수행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K(31세, 회사원)

나이트 부킹으로 만난 그 남자, 꽤 괜찮았다. 그날 원 나이트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만난 지 10분도 안 돼서 모델에 가린다. 이게 나를 뭘

로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똥을 나왔다. 적어도 당신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는 알아차리! 그 남자는 성격이 예해서 죽어도 하이리프트만 볼 거다. 선수에 대한 애도가 없어. 웃웃.

K126세, 소향물 운동부

제모 안 한 날 뭐 다투지? 무슨 그런 개물 뜯어 먹는 소리냐!

K126세, 교사생

GIRLS SAY 그녀가 나온 뒤 당신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 일회용 면도기가 오르내려 있다고 해서 의아해하거나 묻지도 마라. 그냥 모른 척하라. (물론 그녀가 '형' 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

4. 그 여자, 화장 때문에

바에서 일하는 바텐더의 필근육에 반했다. 그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때 좀 그가 자기 집으로 가지고 했다. 하지만 두꺼운 내 화장, 렌즈가 신경 쓰였다. 그의 집엔 몸 클렌징은 물론 렌즈 세척액, 메이크업베이스, 파우더, 눈썹용 펜슬, 아이라이너도 없었지? 화장과 개기름으로 엉망이 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질했다. 내가 "집 말고 모텔은 어때요?" 라고 말할 순 없잖아.

517세, 대학원생

GIRLS SAY 당신 머릿속에는 렌즈나 화장 따위가 문제될 리 없지만, 암컷 머릿속에는 온통 그 걱정 때문에 가장 방문을 포기하는 극단적 수를 두기도 한다. 반대로 렌즈도 안 끼는 남자가 집에 렌즈 보존액이나 화장 지우는 페이스 워시 제품, 화장솜까지 구비해놓았다면, (실사 그것이 본인 물건이라 해도) 여자는 그를 선수로 확신한다. 그렇지만 원 니이트의 생애는 예측 불가능하다. 배려심은 많지만 여자를 외롭게 하는, 즉 빠지면 굴치 아들 남자라며 관계를 피할 수도, 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파트너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 어찌됐든 '나 원래 그런 남자 아예요' 콘셉트를 연출할 거라면 선수 티 나는 소품은 숨겨라. 그녀가 곤란한 표정을 지을 때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주겠다" 며 나서는 정성을 보이면 하룻밤이 다섯 밤, 열 밤으로 발전할지도 그리고 당신 화장실엔 쓰지도 않는 렌즈 통이 쌓여가겠지.

5. 그 여자, 냄새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때 여직원끼리 호프집에 모여 응원하다 옆 테이블 일행과 합석하게 됐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중 좀 괜찮은 남자가 술찍 자기 집에 같이 갔다. 그런데 밤에 전 내 붉은 악마 티셔츠가 내 발목을 잡았다. 다음 날 그 옷을 다시 입고 남의 집을 나설 생각을 하니 도저히 갈 수 없었다.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도 연락이 없었다. 훗!

L127세, 고사생

GIRLS SAY 맘 때문에 떠난 하룻밤, 맘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엔 월드컵 외 흥 좀 떴나?

6. 그녀, 숨은 살 때문에

자국은 아니지만 통통해서 인상이 우울할 때가 있었다. 대형히 배와 허벅지만 살이 몰려 오기로 가릴 수 있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색소를 뚫었다! 벗기면 다 드러나니까, 한번은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날 집에 데려다주며 "잠깐 안에 들어가도 되느냐" 고 물었다. 통통한 내 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거절했다. 그 후 가끔 연락하다 끊겼다. 지금은 날 씩씩했으니 그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좋겠다. 내가 뽀개게 할 수 있는데

P128세, 기사

GIRLS SAY 당신이 아무리 예쁘다, 날씬하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 바로 그녀의 살 걱정. 여기서 '괜찮다' 는 표현은 절대 칭찬이 아니다. 명성하리랑 문제는 세상 모든 여자, 찡든 다음부터 죽기 전까지 본인이 말했던 통통한 몸매 걱정 안 하는 이가 없잖아. 사실, 물론 대부분은 "야, 넌 흥분하 예뻐!" 라는 말

되었다. 나도 찡느라 힘들었어, 자기가!

N126세, 무직

GIRLS SAY 쉬운 여자로 보일까 봐 걱정되어 몸을 시리는 여자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예로부터 여름 휴가철 바닷가는 교미를 위해 많은 임수들의 대표적인 집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가져, 가서 생각하라.

8. 그녀, 속옷이 안 예뻐서

분위기가 좋았다. 키스를 하고 있었다.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아저! 그날 아침에 입은 내 속옷이 어찌! 팬티 갈대는 사슴이 갑자기 머리를 감다했다. 아저! 속속녀처럼 "오늘은 안 된다" 며 정리를 하고 일어났다. 뒤는 완벽해야 해

L129세, 학생생

GIRLS SAY 그대, 당신도 당신 어머니의 팬티를 마

주하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겠지.



을 즐기지만, 어렸거나 당신 애인도 아닌데 그녀가 좀 통통한들 무슨 상관인가. 무조건 섹시하다. 아름답다. 뭐 하려면 좋은 형용사만 형용사는 다 갖다 붙이면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분명하다. 열심히 두드려도 안 열리는 어서 다른 문으로 갈아타자. 문은 많고 방문은 많다.

7. 그녀, 쉬운 여자로 보일까 봐

여름휴가차,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 삼삼오오 남자가 자연스레 모였다. 우리도 지리 잡고 신나게 놀았다. 그런데 멀리서 내 이상형이 한실 속에서 걸어도 있는 것이 보였다. 후광이 번쩍번쩍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같이 놀자고 했을 땐 가질할 뻔했다. 같이 놀다 보니 그는 성격까지 좋았다. 하룻밤 사랑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은근히 모델로 가길 원하는 듯이었는데 끝까지 '나물라' 작전을 펼쳤다. 그가 날 쉽게 생각할까 봐 걱정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우리는 연인이

원 니이트를 거부했던 그녀들의 황당 이유

"그의 장이 너무 깨끗했다. 머리카라 한 율이도 들어 내린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K136세, 회사생

"머릿 동안 내뽀물 못 보서"

J123세, 유학생

"그때서야 아빤 냄새가 났다"

L129세, 학원 강사

"집에 가서 (10)리스를 바꿔 했다"

C12세, 대학생

"한 번 씻고 나면 나한테 너무 빠질까 봐"

L125세, 호텔리어

"남자들이 원 니이트 때 평소처럼 머리를 빗고 머리핀을 쓴 채 샤워하는데서 피곤했다."

B126세, 여행사 직원



비뇨기와 건강 칼럼

비뇨기와 전문의 3인이자 MAXIM 독자의 아드레드 건강을 위해 몽쳤다.

아닌 척하지 마라. 대한민국 남성의 성 고인 대표주자는 발기부전과 조루증.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책장 넘기지 마라!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조루증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 준다. 차라리 일러서치니 말지 괜히 주춤 일러서다 곧바로 주저앉는 이 애들단체 이번 칼럼의 주제는 그래서 조루증이다. (사체에 눈치 보여 있는 당신 그라지 말고 한 권 사서 찬찬히 읽어봐라)

당신의 동지는 몇 명이나 될까?

대한남성과학회에서 한국 성인 남성 2,037명을 대상으로 조루증에 대한 발병률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이 본인에게 조루증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6.8%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30.7%), 30대(24.6%), 20대(23.4%)순이다. 첫 성관계를 맺을 때부터 자신이 조루라고 생각했다는 쓸쓸한 답변도 24.2%로 대부분 남성은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루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친구 중 100명 중 최소 25명이 당신과 같은 처지란 말이다. 혼자가 아닌 당신,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이나? 일반적으로 한국 남성은 자신의 성관계 시간이 짧다고 느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삶의 질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

비웃고 있는 당신, 자신하지 말 것

조루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정의는 다양하다. 단순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가 죽거나 자만하지 말고 조루의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자. 몇 분 안에 발사한다고 해서 '당신은 조루다'라는 사실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발사 조절에 실패하는 비율이 전체 성관계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날 때 이를 조루라고 정의한다. 즉 10회의 성관계에서 5회 이상 본인이 원치 않는 빠른 사정이나 발사 경우를 겪었다고 하면 된다. 끝까지 본인의 모든 사정엔 사정이 있다고 변명하진 말고 심한 경우 병원을 찾자. 조루의 원인은 생리적 조루와 예민해서 나타나는 과민성 조루와 심리적인 이유에서 생겨나는 심인성 조루로 나뉜는데, 증상이 심하고 오래될수록 이 두 가지 원인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 자, 이제 조루를 잡는 방법 좀 알아보자.

토라지는 여친보다 무서운 그놈을 달래자

방법은 크게 심리 약물요법, 비수술적 치료인 행동요법 그리고 수술 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 약물요법에는 도포제, 스프레이, 먹는 약물 등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약물로 '프릴리자'가 있는데, 성관계 1시간 전후로 복용하면 된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약물 복용 후 개인 특성에 따라 약간의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조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나 전문적인 진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치료 효과를 보기 힘들다. 약이면 그저 좋다고 하루도 먹지 말라는 소리다. 행동요법 중 쉽게 써 먹을 수 있는 것이 스쿼트 요법이다. 밤꽃 주스 분출 직전의 긴급 상황! 일단 피스톤 운동을 멈추고 심호흡하라. 음경의 감각을 담당하는 배부신경을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지나치게 과민해 쫓아주면 귀두 테두리에 집중된 감각이 일시적으로 탈감각과민성이 제거되면서 발사 타 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피스톤의 협조가 필수! 먹는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마넨 먹음 먹기 번거로운 사람도 좋은 원나이트를 즐기고 싶어서 하는 당신은 조루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과민한 음경과 귀두의 감각을 수술로 정상화하는 치료로 시술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한 국소 마취로 시행이 가능하다. 조루 수술은 음경의 감각을 담당하는 배부신경을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지나치게 과민한 부분을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준다. 단, 사정 시간은 성 기능적인 측면이기에 이를 한 번에 연장할 수 없다. 하지만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및 치료를 통해 점차적으로 사정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을 병행할 경우엔 90% 이상 본인이 조절 가능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일도 사람도 섹스도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비뇨기와 전문의 윤대경·전홍석·김준용 원장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원장님 3명께는 마노메드 비뇨기와 강남점에서 만날 수 있다.

마노메드 비뇨기와 강남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2 정림빌딩 2층
(지하철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문의 www.manomed.net
080-345-7582 / 02-516-1675

ASK DR. MAXIM

MAXIME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섹스와 비뇨기 건강에 관한 당신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국내 최고 전문의 3인방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주시기로 약속했다.

E-mail ny@maximkorea.net

우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1층 4층 원장부 HEALTH

담당자 말

BY 김연애

WORDS BY 전홍석·김준용·윤대경

(3명중 1명)에드 비뇨기와 전문의

IMAGES 에저(Dreamstime.com)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김여희

싱글 〈나의 노래〉와 함께 나타난 신인 가수 김여희
사과처럼 싱그러운 그녀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아이폰녀'다!

BY 곽경희 WORDS BY 박상우 PHOTOGRAPH BY ARC STUDIO
HAIR 풀리 MAKE-UP 이희영/PARK VIEW by HAR NEWS
ASSISTANTS 권해진, 조정진

▶ 이름이 특이하다.

여희는 순우리말로 꽃술이란 뜻이다.

▶ 싱글 〈나의 노래〉를 한 줄로 소개한다면?

김여희라는 12각형의 한 면.

▶ 아이폰 연주를 하는 UCC가 화제였다. 아이폰녀

라는 타이틀에 갇힐 수도 있을 텐데?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다른 가수와 차별된 김여희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함?

▶ 누군가에게 딱 한 장의 앨범을 추천해야
한다면?

샤카 칸(Chaka Khan)의 〈클래지칸(ClassKhan)〉.

▶ 아이폰4의 광고 모델 제의가 온다면 얼마를
생각하는가?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마음 같아선
공짜로도 해주고 싶다(웃음).

▶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

보면 기분 좋아지는 가수.

▶ 마지막으로 김여희에게 MAXIMUM이란?

사과. 배고팠는데 사과를 줘서 고맙다.

타이틀 곡 〈나의 노래〉
아티스트 김여희



와이트 돔 Kai-sakmann
와이트 진 Gaia
크림 컬러 벨트 TOPGRL

*동영상
와이트 돔 재킷 SYSTEM
와이트 돔 HILFINGER DENIM
와이트 드레스 Gaia
귀감이 ORSA
베이지 컬러 슈즈 TOPGRL



베란다 프로젝트

김동률과 이상순이 만나 싱그러움 아름다운 베란다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었다.

BY 박영우

Day Off

베란다 프로젝트 (Verandah Project) / 엠넷미디어

김동률과 이상순이 손을 잡았다. 무거울 질감의 보컬리스트와 플러코스터의 기타리스트와 만났으니 우울하고 풍 환적하면서 예민하고 감성적인)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서른일곱 동갑내기 아저씨들은 과 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만한 담이내는 노련함을 보여준다. 상큼함과 쾌활함이 느껴지는 노래에선 김동률이 이번 음반을 꽤나 즐겁게 작업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상순의 기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말할 것 도 없다. 여기에 아동을 보다 들린 사람처럼 뜨뜻하게 만드는 생활 활력형 노랫말이런! '아... 이런 날엔 여자인 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울조리는 목소리에 정말 눈물이 난다. 형에게 아는 누나 소개했어! 이라고 시켜주고 싶은 상징. 정재일, 페퍼톤스의 신재민, 하림 등 친숙한 이름들도 변했다. 특히 양극단에서 있음은 갖는 김동률과 조원성의 목소리는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최근 솔로 앨범에서 악인의 과잉과 강박이 느껴졌던 김동률은 이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가히 '남성 유유의 스페셜리스트' 로 우뚝 섰다. (이제서야 형이 결혼을 안 한 거구나.) 긴바탕을 싱글만 판지는 세상에 갇힌애에 돈이 아깝지 않은 앨범이 나왔다. 한동안 에디터 미니홈피의 BGM은 'Bike Riding' 이 될 듯. 아, 커버를 잘못 읽으면 김동률과 리쌍이 힘을 합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누가누가 잘했나?

올 상반기 거물급 아이돌의 칸백이 줄을 이었다. MAXIM 선생님이 그들의 성적표를 발표했다.



학생	원더걸스				
과목	현대 음악	퍼프/ 코디네이션	댄스 포츠	메시지	국제관 계통
성적	우	미	우	수	수
가정 통신인	작은 결석으로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 안주하는 모습이 못보입니다. 잡음이 뒤섞이면서 일과적인 슬림프레미엄인 것만 보이지만 미국 유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학생	슈이너너				
과목	현대 음악	퍼프/ 코디네이션	댄스 포츠	메시지	국제관 계통
성적	우	수	우	미	수
가정 통신인	여인의 유수한 성취! 나 전 학기) 비해 소 소 지한 개량이다. 가정에 근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평소에는 모험)나 기쁨 술을 마시던 큰 실수를 저지르)고 합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생	스타나래				
과목	현대 음악	퍼프/ 코디네이션	댄스 포츠	메시지	국제관 계통
성적	미	수	우	우	우
가정 통신인	음악은 실용)스러운 수준)이었지만 울분)은 더욱 평균 성적)이 떨어)지는 큰 약)점입니다. 앞으로 된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교)육)행)을 준비)하고 있)고)하)나, 현지 사)정)에 대한 공)부)와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생	2PM				
과목	현대 음악	퍼프/ 코디네이션	댄스 포츠	메시지	국제관 계통
성적	우	우	수	기	우
가정 통신인	집단 문제)로 규)율)의 단)박)이 잦)았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메)시)지의 이해)도 현)저) 떨어)집니다. 이)를 메)시)지)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을 해)친)것)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부의 철저)한 고)육)과 적)극)적인 대)화) 시)도)가 필요합니다.				



Dreamizer 이승환 / 엠넷미디어

'대한민국에서 음반에 가장 공을 들이는 가수' 로 유명한 이승환이 정규 10집 음반을 내놓았다. 음악에 대한 완벽주의(라고 쓰고 결벽증(이라고 읽는다)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준호' '락'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이번 음반도 마찬가지다. 윤도현, 피아의 요한, 노브레인의 이상우와 함께한 '콕스타디오' 등 이런 경향은 이어진다. 이승환이 발라드를 기대하는 대중을 위해 '별의 반' 을 타이틀로 준비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진짜 이승환을 느끼고 싶다면 콘서트를 놓치지 말 것. 그는 '라이브의 황제' 라는 타이틀이 진정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내(나)다.

유실물 보관소

에피톤 프로젝트 (Epitone Project) / 파스텔

열혈 팬을 보유한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 정규 음반이다. 비가 그친 후 물위에 맺혀 있던 물방울이 울렁이기에 '몽' 하고 떨어지는 장면이 떠오르는 첫 곡 '유실물 보관소' 를 시작으로 사랑의 마음을 편하게 어루만져주는 음악이 이어진다. 적절한 객원 보컬이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음반의 짜임새는 더욱 좋아졌다. 얼마 전 정규 음반 발매 때 기념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쳤다. 각박한 세상(에) 지친 사람이 라면 에피톤 프로젝트의 음반을 추천한다. 당신이 물어봐! '감정의 유실물' 을 이 음반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란다.



Camomile Smile

후타타 에미(Emi Futaba) / 포니캐년

국내 각종 CF에 삽입되어 인기를 얻은 카모마일 시리즈의 최신작 (Camomile Smile)이 발매됐다. 카모마일은 팝의 명곡을 후타타 에미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시리즈다. 진정한 어우스틱 사운드에 '듣는 약' 못지않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노라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첫 트랙은 존 레논 베후의 명곡 'Imagine' 이다. 존 레논의 목소리도 좋지만 후타타 에미가 부른 'Imagine' 의 편안한 버전도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신승훈의 'Believe' 의 영어 버전 전지현이 (엡지적인 그녀)에서 '건우아~ 사랑해~' 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떠오른다. 아! 그녀의 그녀는 참 좋았는데..



주 활동 무대는?
합정동에 위치한
파스텔 뮤직 사옥 근처.
반가워도 사진 촬영은
피해우면 양태

(파니핑크)가
추천하는 3명의
아티스트는?
Owl City,
Damien Rice,
Patrick Watson

파니 핑크

그 남자, 그 여자의 사랑을 들어보자.

BY 김진희 PHOTOGRAPH BY ARC STUDIO HAIR ZSHE MAKE-UP ZSHE
COOPERATION T.M.T, TOPGIRL, OS-2138-7769

'파니핑크'의 이상형은?
모야. 지금은 2000년에
알광할 거다. 생활력
최고인 남자가 필요하다.
재미 편한 여자

이상에게 인기 만점인
비결은?
모야. 그런 거 없다.
동성 친구가 대부분
공감대가야 할까?
재미 마찬가지다.
서울 올라와서
연애도 담당했다.

'파니 핑크'의 음악이 궁금하다.

말로 설명해도 알 수 있나? 음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돌아봐라. 그 안에 우리가 걸어온 시간이
녹아 있다.

일본 작가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을 읽듯 처분하고,
선명한 느낌의 음악이다.

우리 집에도 요시다 슈이치의 책 <피레이드>가 있다.
이런 하드코어 스릴러와 우리 음악이 비슷한 느낌이
라내 감사의 의미로 당신 손을 덥서 잡아주고 싶다.

잡아주면 될 것 아닌가 영화 <파니 핑크>는 주인공의
행복을 위해 조연 아저씨가 저세상으로 떠난다. 이처
럼 해피엔딩은 다른 이의 희생은 담보로 한다. 당신도
그런 경험 있나?

말만 우리 이 세상의 연정을 볼 나이는 아니다.
허나 판 무지선이라는 직업 자체가 타인의 희생 없인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인ത്യ를 챙기느라 시원한
합정동 사무실을 뒤로 한 채 MAXIM 스튜디오까지 따
러온 팀장님처럼 말이다.

솔직히 말해달라. '파니 핑크'에게 중요한 건 당신의
음악인가. 그 음악을 들어주는 팬인가?

어느 쪽에 무게를 실느냐에 따라 상업적인 음악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5%
정도는 한쪽이 치우쳐 있다. 어느 쪽인지는 비밀이다.

영화음악을 만들 생각이 없나? 당신들 음악과 공감이
잘 맞을 것 같다.

물론 있다. 영상음악과 출신이라 그런 작업이 낯설지
않다. O.S.T.처럼 영상에 맞는 음악을 만드는 일은 항상
즐겁다. 가극 <반지의 제왕> <킬빌> 같은 영화에
오케스트라 편곡도 짜본다. 영화음악을 들면 영상과
잘 어우러지는지를 유심히 체크한다.
나름 까다로운 관객이다(웃음).

올바른 제목이 '세상의 어쩔 수 없는 거기' 다. 망각, 자
각, 실수, 무개, 부끄러움, 비밀, 말쑥함이 어쩔 수 없
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능한 가치는 무엇일까?
물, 바람, 햇빛, 비... 아니다. 상상. 상상 속의 남자. 돈.
집, 그녀... 이것도 아니다. 선물, 용서, 사과, 가족.
위로, 기도로 하겠다.

당신들의 팬은 어떤 사람일 것 같나?
우리도 궁금하다. 신바주이는 너무 해맑은 트렌드다.
'파니 핑크'의 홈페이지와 트위터는 항상 열려 있다.
팬이라면 각종 고민 상담도 대환영이니 아예
흔적을 남겨주세요. 음반을 구매했다면 상담료 따윈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정성 들인 음반 재킷은 오랜연이다. 디지털
음원이 대세인 요즘 이렇게까지 욕심을 낸 이유가 있나?
모든 것이 빠른 세상이다. 그렇지만 우리 음반은 집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야 빛을 볼 수 있었다.
늦게 나오는 만큼 음반의 완성도에 욕심을 부리지 보니
이렇게 됐다. 음반 재킷의 어디 한 부분도 쉬이 넘어
가 게 없다. 덕분에 직원들만 죽어났다. 이미 우리
오래오래 살 거다(웃음).

MAXIM과 인터뷰한다는 아이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돈 생각은?

군인, 솔직하게 그리고 남성 잡지. 주변 사람을 군대로
많이 보내면 터라 잡지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왔다.

파니 핑크
7 MOMENTS
파스텔 뮤직



세상을 살면서 혼자라는 느낌에 외로움이 사무칠 때
가 있다. 그럴 땐 파니 핑크가 들려주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그들의 음악이 연결되는 순간만큼은 혼자란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을 거다. 이번 음반은 우
리가 경험하고 부르는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가
지 순간을 음악으로 풀어냈다. 한기인과 알렉트리로
세상을 정직한 비율로 섞은 그들 고풍의 사운드와 감
정을 촉촉이 건드리는 노랫말의 힘은 여전히 매력적이
다. '파니 핑크'의 음악은 조종한 카메라에서 채과 함께
임이하듯 즐기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오지은

홍대 마녀가 되어놓는
속직담백한 이야기.

화사한 음반 표지에 화려 당신 음악을 들었다가 놀란 사람이 많다.

표지 색감이 화사해서 밀당밀당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향긋이진 마리와 화장이 얼은 얼굴 때문에 강한 느낌의 음반처럼 보인다? 말하는 사운드이다. 두 지선 입장에서 보는 사물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수록 좋다. 실제로 음반은 약한 느낌. 강한 노래가 적당히 섞였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강한 음악을 즐겨 들어서인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향하는 경향은 있다. 그 쪽으로 가면 속이 다 시원해진다.

일본의 시에나 리고, 아일랜드의 비코크와 닮았단 이야기를 골잘 듣는다.

아무 생각 없다(웃음). 그녀들과 비슷하다는 말은 그 러려니 하고 넘기는데. 그녀들을 따라한다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가우뚱할 뿐이다.

별명인 특이하다. '오지, 오지은'은 어떻게 생긴 건가?

'오지'는 부산에서 1년 정도 살 때 친구들이 이름을 줄여 부른 건데 오지 오지은의 후에(?)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다. '오지은'은 디씨의 모 켈러리에서 누군가 오지은이라는 이름을 불러 쓰니 오지은과 비슷하더라는 글에서 생겨났다. 막상 말하고 나니 별거 없네(웃음).

가사를 들려주기 위해 음을 입혔단 생각이 든 만큼 가사 전달력이 탁월하다. 음색도 무서우리만큼 귀에 맴돈다.

가사를 먼저 써든 상태에서 멜로디를 찾는 경우가 많다.

가사 전달이 잘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들어주니 감사하고 다행스럽다.

'화' 라는 노래중에 "널 같이 먹고 싶다"는 가사가 있다. 순간 당신을 따라다니는 '홍대 마녀'라는 별명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 가사가 '홍대 마녀' 별명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문득 귀여워서 "아휴, 학 같 아역어버릴 수도 없고" 라고 말했던 걸 노잰말로 옮긴 거다. 특별해 의도한 바는 없었다.

트위터를 보니 <심즈>의 팬인가 보다. 2번째 확장팩이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심즈> 시리즈의 팬이다. 올해 음악 인생이 발목 잡힐까 봐 <심즈>를 플레이해보진 않았다. 급한 일용정리한 후 속 시원하게 즐길 생각이야. 물론 확장팩도 포함해서

MAXIM은 인디밴드 퀸인 당신이 게임 덕후라면...

(너무 좋겠다)
<심즈> 시리즈의 팬이다. 올해 음악 인생이 발목 잡힐까 봐 <심즈>를 플레이해보진 않았다. 급한 일용정리한 후 속 시원하게 즐길 생각이야. 물론 확장팩도 포함해서

가장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민화책 그리고 게임을 1개씩 추천해달라.

하지만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순서대로 <후르츠바스켓> (주제가 가 감동), <바사바> (인생관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드래곤 퀘스트>다.

오지은
해피로봇 레코드
홍대 마녀의 멜로디를 들려와라.



2009년에 내놓은 음반 <지은>은 그녀가 해피로봇 레코드와 한술밥을 먹으면서 내놓은 2번째 음반이다. 혼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한 1집과 달리 소속사의 바쁘를 받아서 시은은 한층 풍성해졌다. 그렇지만 오지은 특유의 음색과 섹시하리만큼 솔직한 가사의 조합이 주는 매력은 여전하다. 인디음악을 즐겨듣는 이에게는 2009년 최고의 음반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음반 전체의 완성도 역시 빼어나다. 아이돌 음악인 주구장창 듣는 게 지겹다면 홍대 마녀가 들려주는 색다른 멜로디에 '해피로봇은 건 아일까?' 토이의 유머를 할 수 있는 거다. 귀에 쫓겨 들어오는 맛깔난 가사는 영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음악은 무엇인가? 음악 풍문지 같은 지루한 답변은 접어치우자.

나와 듣는 사람 모두가 즐겁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음악이다. 그 이후는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다.

어떤 뮤지션과 작업할 때 가장 즐거웠는가?

친한 뮤지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지금 연주를 함께 하는 정종업(기타), 신동훈(드럼), 박민수(간편)와 공연할 때 무척 즐겁다. 공연장에서 그들과 함께하면 유비가 관우, 장비 세트를 장착한 기분을 알 것 같다. 연주뿐 아니라 편곡에서도 도움을 많이 준다. 이미 세션을 초월한 사이다.

3집 음반 제목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이번에도 당신 이름을 딴 <지은>이 음반 제목이 되진 않겠지?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거대(라고 말하고 싶지아!!!!).

홍대 마녀의 이상향이 궁금하다. 에디터처럼 누호공을 째며 적을 외모에 노여워할 일하는 거친 남자는 어떤가?

이상향은 유아 감각이 뛰어나고 지존감(자신감)이 너무 높고 사람. 그리고 나를 많이 예뻐해주는 사람이야. 말하고 나니 너무 부럽다.

MAXIM을 10자로 표현한다면?

세상 모든 남성의 절친.



야구 프로그램 전성기

프로야구 특수를 그들이 놓칠 리가 있나? BY 김민

KBS N SPORTS 아이리브 베이스볼

수많은 야구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김석류, 이나운서가 등장하는 절로 일만 게임 끝이다. 그간의 경력과 바탕으로 (아이리브 베이스볼) 책까지 내보낸 정도니 자질 검증은 필요 없다. 당신의 여자친구도 그녀처럼 야구 지식에 해박해서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현실은 시궁창이나 어지간한 야구 팬 째 먹은 정도도 야구 지식을 가진 그녀를 매일 밤 보는 걸로 만족하자. 야구 프로그램의 원조답게 구성도 알차다. 그날의 경기 하이라이트는 물론 경기명기, 다음 경기 프리뷰, 전설적인 선수를 소개하는 코너도 준비했다. 무엇보다 잘 키운 여자 이나운서 하나, 열 남자 이나운서 안 부럽다는 진리를 증명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즌2가 방영 중이다.

방송 시간 / 화~일요일 밤 10시 50분

한 줄 요약 / 김석류 이나운서만 믿고 가는 거다.



남자의 미드 예고편

MBC-ESPN 베이스볼 투나잇 野(야)

후발주자답게 몰락 공세에 나섰다. 송지선, 김민아 두 명의 미녀 이나운서를 야구 프로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프로야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간 MBC-ESPN은 메이저리그 중계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계 중씨에서 타석을 인도했지만 간판 이나운서의 얼굴만큼 아쉬웠던 게 사실이다. (베이스볼 투나잇 野)는 그런 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 동시에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기 위해 던트 코스 콘셉트를 밀려왔다. 그날 경기에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뽑아내 본 경기를 시청한 이들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다. 여기에 MBC-ESPN이 지향하는 해설진이 프로그램에 무게를 실어준다. 몸엔 안 맞던 감독직을 벗어난 이순철 해설위원과 객관적이고 맥을 짚을 줄 아는 이효봉 해설위원의 날카로운 총평은 야구 팬에게 완소 코치다. MAXIM 못지않은 믿음성 센스는 덤.

방송 시간 / 월~금요일 밤 10시, 토~일요일 밤 11시

한 줄 요약 / 야구팬이 아니더라도 볼만한 야구 프로그램.

SBS SPORTS 베이스볼 투치

매력적인 여자 이나운서도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타사 프로그램에 비해 내용이 알찬 편도 아니다. 좋아하는 선수나 팀의 승리를 거듭 즐기거나 하이라이트 감상을 위해 들르는 정도가 적절하다. SBS는 한눈팔지 말고 인공랜드 브리미어 축구 중계보다 울안하면 밤이면 월드컵 사공을 우려먹던지.

방송 시간 / 화~일요일 밤 10시 30분(월드컵 기간에는 방송일정 변경 가능 있음)

한 줄 요약 / 월드컵 아니라고 무시하냐?

MADE IN USA

남자의 미드

이런저런 의미로 피로 풀이오르게 해줄 미드를 소개한다.

스파르타쿠스

피도 팔고, 내 존슨도 팔고



방영 시간 매주 금요일 밤 12시

채널 OCN

제작사 정보 HBO

(스파르타쿠스)는 척풍성로만 따지면 (로마)를 따르려고 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잔인함과 성장만만큼은 스파르타쿠스가 한 수 위다. 케미에서 방영한 미드 중 최고의 시청률(20%)을 기록한 건 우연이 아니다. 내용은 간단하다. X세기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로마 노예의 반란. 그 중심에 선 스파르타쿠스를 드라마로 스펀했다. 물론 영화 (300)을 드라마로 옮긴 듯한 박진감 넘치는 연출과 화려한 무장 투쟁의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적인 안구만족과 노예의 딱질 아드레날린을 충족시켜 만드는 피할 수 없는 싸움 장면이다. X세기라는 도통자기 딱과 겉 좀 아는 것도 모자랄 수 있는 법. 우리는 단상인 (스파르타쿠스)의 주요 장면만 찾아가는 것도 충분하겠지만,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한 줄 요약 / 역사(는)엔투서는 매력적이다. 곁말 제하면 건어 나니 오해하지 말 것.

파시픽

정말 피다. 정말



방영 시간 매주 금·토요일 밤 11시

채널 SCREEN

제작사 정보 HBO

(랜드 오브 브라더스)의 후속작 (파시픽)은 미국 전쟁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태평양전쟁을 다룬 드라마다. (랜드 오브 브라더스)가 미국 육군 101 공수사단의 이지 중대를 중심으로 유럽 전선에서 벌어지던 2차 세계 대전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파시픽)은 태평양전쟁의 이야기다. 오카와 전투의 치열함을 신 쿨게 그려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렇다 그 재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5백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를 써서 부른 전쟁 장면은 보기만 해도 남자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든다. 날카로운 화면의 울-HV와 병행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면 전쟁태운 곳 같을 리라할만큼 맛볼 수 있을 거다. 그동안 우리의 지루했던 해외로 출근 시간을 (랜드 오브 브라더스)가 대체하던 대로 해외로 출근하는 지루한 시간은 (파시픽)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다. 정말이다.

한 줄 요약 / 전쟁 이야기는 언제나 재미있다. 단, 우리가 할 건하지 않을 때만



Summer Needs a Cool Lady HA JU-HEE

하주희라는 이름을 들으면 바로 얼굴을 떠올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쁜 남자)의 톱스타 최혜주, (소울메이트)의 백치미 넘치는 작업녀, 그리고 (환상의 커플) 마지막 신의 안나 조 같은 여자라고 설명한다면 당신은 무릎을 탁 칠 것이다. 유쾌하지만 예의 바른 그녀는 자신보다 캐릭터를 드러낼 줄 아는 배우였다... 라고 그녀를 설명하려 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당신은 정말 숨 막히게 아름답군요"

BY 고경희 WORDS BY 박상우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조민이 MAKE-UP 오윤희 무션(Jenny House) ASSISTANTS 권혜진, 초정민



하주희 촬영영상



비키니와 신발웨어 세트 BNX
상비 액세서리 NANA
발레 플루츠 Gela



골드 목걸이 Jamis&Bell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 에디타 소장
블랙 언더웨어 Calvin Klein Underwear
쇼츠 Calvin Klein Jeans
카카몽버라운 가죽 벨트 Gaist
명금 팔구정 NANA



만나보니 지적인 느낌이다. 그런 여자가 의외로 남자가 많다. 주변에선 날 '허당 주희' 라고 부른다. 허해 남자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웃음) 막상 적극적으로 대시해오는 남자는 별로 없다. 남자친구는 3명 있었다. 난 시간이 지날수록 잘 해 주는 스타일이다. 초반엔 관심 없는 척한다. 속으로 "날 봐!" 이러면서,

그렇다면 마음만 먹으면 몇 분 안에 남자를 꼬실 수 있는가? 몇 분은 안 되고... 며칠은 걸릴 것 같다. 난 약간 보수적이고 리드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 하면서,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다면? 난 붙이를 못 참는다. 특히 어른에게 예의 없이 구는 사람을 보면 꼭 한 마디하고 넘어간다.

그나저나 당시 유행하는 정말 유행했다. 솔직히 나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해보면 적이 없다. 요즘 예쁜 연예인들 많지만 나보다 나 자신 있는 건 본인은 말... 리얼하게 비해 걸다는 것 외에는 다 성에 차지 않는다. 물론 먹어도 파는 체질은 아니다.

〈환상의 커플〉에서 짧은 몸매였지만 임팩트가 꽤 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색어 1위라는 걸 해봤다. 하하.

한예슬 닮은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 생일까지 같은데, 한예슬씨는 미국에서 자라서 생일은 같지만 나보다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나보다 먼저 유명해졌기 때문에 비교되는 거 자체가 고맙다. (웃음) 하지만 난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다.

하주희에게 한예슬이란? 신의 경쟁자? 하하하!

그럼 하주희에게 김희선이란? 김희선씨와는 한 의류업체 모델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 배우 활동을 시작하면서 연락이 끊겼다. 덜고 싶은 나의 플로모델이다.

〈환상의 커플〉 시즌 2에 주인공이라는 소문이 있다.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 바다. 시즌 2 나오면 꼭 좀 써 달라!

〈나쁜 남자〉에서 강남길에게 이용당한다. 실제로도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편인가?

사실 여자는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 거기에 강남길씨 같이 생긴 남자인데! 나도 나쁜 남자에게 끌리긴 하는데 곧 정신 차린다.

극 중에서 스포서를 두고 있다. 실제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나? 눈을 조금만 돌리면 수많은 유혹이 존재한다. 하지만 유혹을 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벌써 10년차 연기자다. 이 바닷 생활 힘들지 않나? 10년차라는 말은 꽤 달라. (웃음) 본격적으로 연기를 한 것은 2005년이다. 아직까지 나한테 딱 맞는 배역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중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배우 하하하 솔직하게 말하라면!

지난 5월호에서 국민배우 안성기는 "커피도 맥심, 집지도 역시 MAXIM"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하주희에게 MAXIM이란? 남자의 로망!

HA JU-HEE





베이지 컬러 정장 VOV
골드 브로치 Jam & Bell
민트 컬러 언더웨어 브리 Calvin Klein Undewear
벨트 R PLAY
카키 팬츠 VOV



페르시아의 왕자 망각의 모래

페르시아 왕자가 돌아왔다. BY 김성현



게임소프트 증명



비디오게임으로 재탄생한 《페르시아의 왕자》 시리즈는 기존의 패들적인 요소는 살리고 화려한 그래픽,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더해 게이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이번에 출시된 《페르시아의 왕자: 망각의 모래》는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와 《페르시아의 왕자: 전사의 길》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우리의 페르시아 왕자는 전작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단점을 이용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세상사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어디 흔한가? 형님 마릭의 나라에 잠시 들렀다가 전쟁의 불리함을 뒤집기 위해 돌아오는 모래 약마 뒤처다꺼리를 떠안게 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시간의 수호자 다카카가 왕자를 응징하기 위해 따라붙어 피통을 쌓만 끝내고생을 한다. 《페르시아의 왕자: 전사

의 길》에서 왕자의 얼굴이 급속해진 이유를 이번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리즈 특유의 게임성은 질 실아 있는데다 영획과 만들어질 만큼 탄탄한 게임 스토리를 한글 자막으로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전작에 비해 볼륨이 줄어든 게 아쉽지만 무더운 여름 집구석에 박혀 즐기면 충분하다. 고민하지 말고 질러라. 고민해봤자 지른다든 사실은 변화가 없다.

기종	PS3/XB360/PSP
제작사	Ubisoft/인트리프스
장르	액션/어드벤처
발매일	6월 16일
가격	5만2천 원



모두의 테니스 포터블

쉽고 재미있다. 게다가 한글판이다!

《모두의 테니스》가 한글판으로 발매된다. 소니 코리아 사장이 일본인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한글화 게임이 쏟아지기 신기할 따름이다. 이번 작품은 《모두의 OOO》 시리즈 최초로 스토리 모드를 탑재했다. 캐릭터를 선택해 세계를 여행하며 동료들을 만들고, 친밀도를 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캐릭터(인기 슈팅 게임 킥존의 '헬가트드' 등 등장한다)와 아이템을 얻는 재미도 쏠쏠하다. PSP의 에드 록 기능으로 최대 4명과 동선 대전 및 협력 플레이도 가능

기종	PSP
제작사	SCE/SCEK
장르	스포츠
발매일	6월 29일
가격	4만2천 원



DJ MAX 포터블 핫튠즈

유타면서도 지르는 게 팬심 아니겠나?

팬터버전의 《DJ MAX 포터블》 우려먹기는 언제 끝나는 걸까? 이제는 1, 2판을 합친 베스트판까지 내놓았다. 이런 실수를 유타면서도 이내색에 자꾸 눈길 가는 건 오덕스러운 미소녀가 등장하는 패키지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다. PSP의 버튼을 부숴버릴 기세로 즐겼던 당시의 추억과 우리 귀를 즐겁게 만들어준 O.S.T. 때문일 거다. 이번 작품은 그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곡만 골라 리마스터링해서 수록했다. 팬터버전은 이후 《DJ MAX 포터블》 1, 2판의 생신을 중단할 예

기종	PSP
제작사	팬터버전
장르	리듬액션
발매일	6월 12일
가격	미정



블러

정통파 레이싱 게임이 아니면 또 어떤가

《그란투리스모》 시리즈처럼 저나저나 사실적인 레이싱 게임이 부담스러운 유저라면 이 게임이 입맛에 맞을 거다. 폴크스바겐, BMW, 아우디 등 라이선스를 맺은 56개 이상의 실제 브랜드 차량으로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 그 대신 상대 차량에 지뢰 공격을 한다든지, 부스터를 이용해 순식간에 추월한다든지 하는 게임 요소도 많이 있다. 최대 4명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당시 집의 TV가 거대 스크린을 빙

기종	PS3/XB360
제작사	비자레 크리에이티브스
장르	레이싱
발매일	6월 8일
가격	5만2천 원

컴투스 프로야구 2010

홍지웅 프로듀서

어느 진성 야구 오덕이 이 게임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최고!"

BY 광한 IMAGES.COM2US

《컴투스 프로야구 2010》 게임 소개

컴투스의 대표작인 스포츠 게임이다. 모바일 야구 게임 사상 최고의 볼륨으로 이미 다른 게임은 7백개 초월하고 최고의 자리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휴대전에서 실제 초월받은 박진감 넘치는 야구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을 다운로드하라. 야구 팬이라면 다운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이 게임의 노예가 될 거다. 저, 노예의 그라운드엔 잘 걸터앉는다.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계의 불리자이다.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의 성공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억울하다. 세상사 당연한 게 어디 있다. 《컴투스 프로야구 2008》은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처음으로 기획한 게임이었는데 대일망했다. 《컴투스 프로야구 2009》는 철처부심해서 아예 새롭게 판을 짰다. KBO와 라이선스를 맺은 카드 시스템도 이때 도입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점차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유자의 카드 수집 욕구를 불태우는 스킬이 대단하다. 카드의 캐릭가 애니메이션에서 실제 시즌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걸려들었듯(웃음). 동일한 능력치의 카드라면 애니메이션 캐릭보다 실제 선수 사진이 등장한 카드를 모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유자의 카드 수집 욕구를 불을 당기고, 카드의 가치도 다양하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개발 당시에는 실제 선수 사진을 모으러 X를 찍었다.

당신들이 많이 달도록 자랑하는 카드 트레이딩 시스템이 궁금하다.

전작이 카드 거래소가 없어서 게임 속 불편함으로 상대에게 카드를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라 아쉬움이 많았다.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은 거래소에서 그간 쌓은 포인트로 유저 간 카드 교환이 가능해졌다.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거래소 조회도 가능하다. 공을 돌린 기능이니 한 번쯤 사용해볼라.

트레이드 시장에서 특별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오로지 매력뿐이다. 늦은 저녁 시간 즈음에 좋은 카드가 자주 출몰하지만 특정한 건 오로지 본인 운에 달렸다. 장터 매력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다. 선수끼리 왜 이러냐

게임 속 인공지능이 영 기술된다. 수비할 때 비박거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른 게임과 비교해보도 인공지능이 높으면 높았지만 역시 없다. 당신이 사용하는 수비수의 수비력이 C 랭크 이하가 아닌가? 수비력이 A나 B 랭크 이상인 선수로 바꿔주면 여러가 많이 줄어들 거다.

누적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들었다.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은 부분 유료화 매출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아이튠즈 《컴투스 프로야구 2010》도 내놓을 생각이겠지?

7월쯤이면 만나볼 수 있다. 일단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추가 요소도 포함했으니 기대하라.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을 즐기는 현역 선수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얼마 전 사회의에서 만난 롯데의 이대호 선수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날 게임에서 본인의 능력치에 발난

이 있나고 이대호 선수에게 물었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배트를 맞을까 봐 두려웠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수는 누구인가?

한화 류현진. 팀 성적과 관계없이 꾸준히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훈련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당시에 왜 월드컵이만?

매출에 방해되는 존재(웃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바라지 않는단 소린 아니다. 난 축구도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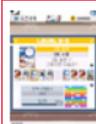
시끄러
판단은 내가 한다.



PRODUCER SAYS

홍지웅 프로듀서가 말한다!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이 제12는 이유 3가지



카드 시스템

선수 카드를 좋아 8만 개까지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조합해 새로운 카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빠른 진행

풍물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게임의 진행 속도가 쾌적하다.



로스터 업데이트

로스터가 변경되면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유저가 로스터 패치를 필요 없다.



유연한 친밀
사은품 받기



농지마 정신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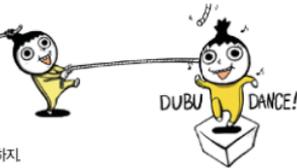
BY 김광현 IMGAGES BY 나승훈 신태훈

WEB CARTOON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정신줄을 놓아주지 않지

《농지마 정신줄》 신태훈 / 나승훈

《농지마 정신줄》은 정신 장구리 남매와 독특한 주변 인물들의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웹툰이다. '본격 유세'인 '예반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이 웹툰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날 수 있다. 웹툰을 그린 작가들이 궁금하다면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entirope>)를 방문할 것.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니 블로그도 손에 넣을 것을 잊을 게다.



'정신줄 놓는다'는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센스가 돋보인다.



2007년 즈음 나 작가가 과제와 알바로 미처가던 도중 위와 같은 낙서를 그린 적이 있다. 이 그림을 신 작가가 본 후 된다는 소재로 만들었다. 캐릭터는 1년 넘도록 다양한 시도를 거듭한 끝에 완성된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머리 위에 돌기가 있는 형태도 있었는데 콘돌처럼 보여서 기분이 나빴다. 지금도 우리 캐릭터는 진화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독자가 이런 것 봤어봤으면 하는 에피소드가 있나? 기회를 줄 테니 어서 말해봐라!

572화 '집 나간 정신', 628화 '돌아온 정신' 편을 추천한다. 최후는 글이 짝어주지 않아도 되리라 믿는다.

웹툰보다 캐릭터 상품에 인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돈 좀 만졌겠는데?

무슨 소리! 캐릭터 상품화는 갈 길이 멀다. 갓 태어난 신생아 수준 정도다. 작가의 수익은 창작 열정과 노력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캐릭터 상품은 무조건 잘 팔려야 한다. 해외 캐릭터에는 관대하지만 우리나라 캐릭터 상품에는 까칠한 독자들이 꽤 있다. 그들에게 어떤 큰 말야 있다. "스타워즈도 캐릭터 상품 팔아서 다음 편 만 만들었다. 만화라고 다들 줄 아냐? 작가에게 힘을 보태 주진 못할정말 초는 차지 마라!"

웹툰에도 등장인물들처럼 정신줄을 잘 놓는 편인가?

나작가는 원고 마감이 다가오면 커피우유 4~5개를 윈 싹쓸 때도 있다. 커피우유 중독이 의심된다. 커피우유만 사주면 아무 손이나 붙잡고 따라갈 것 같다. 그렇다고 유혹하진 마라.

매주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다니 부럽다. 노하우를 살짝 귀띔해달라. MAXIM 편집부는 월간지인데도 피가 말라 죽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MAXIM을 맡겼다. 그 대신 모든 세션은 웹툰으로 통합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아이디어 회의는 영 때리면서 진행된다. 이것이 실제 콘티 회의의 장면이다. 믿어달라.

당신들 웹툰은 따라 그리기가 은근히 까다롭다. 어떤 점에 포인트를 줘야 하나?

영업 비밀! 굳이 알려고 싶다면 황금비율이라 말해주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마음의 노예다. 마강 직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궁금하다. 눈앞의 에디터는 그저 술독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고기를 예타게 찾는다.

아직 안 풀었다. 풀려고 노력하면 더 쌓인다. 씁쓸하다.

다음 달부터 MAXIM에 웹툰을 연재해볼 생각은 있나? 귀여운 캐릭터가 색사하게 나오는 게 더 파격적일 거다. 그러나 이런 느낌의 웹툰이 출몰한다면 어떨까? 한 영향할 수 있겠나?



죽기 전에 봐야 할 작품이 있다면?

나승훈 졸업 전시회!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THRILLER: 여름엔 역시 스릴러다!

책 고르는 게 앞는 것보다 힘든 당산을 위해 MAXXI 준비했다.



찰리 휴스턴

《통제 불능》 / 시작

멋짜리라고는 없는 범인이자 돌아왔다.

스티븐이 두터운 책의 책은 늘 흥미롭다. 책의 스타일과 자신의 취향이 잘 맞아떨어지던 책 읽는 재미가 수직 상승한다. 찰리 휴스턴은 그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스타일리스트 작가다. 그의 손은 물론 그런 스타일 탐험자도 범인이자 등장하는 것들. 이는 스릴러로 변신한다. 범인이자 주인공이 되고 매력적인 거리는 주인공도 뒤집는다. 주인공 조 피트는 멋짜리라고는 해도 없는 범인이자. 불분명한 주검이 등장하는 소설이 우리 머리 안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찰리 휴스턴은 줄무늬 보는 거다. 그의 감각적인 글쓰기는 그래픽 노블 (만 코믹)에서 검증된 바 있다. 《통제 불능》은 주인공 조 피트가 범인이자 조직의 다른 사람에게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냈다. 책을 끝

쳐면 당산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기 전까지 책장을 닫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새 조 피트의 별난한 농담이 깔깔거리 다음 작품을 예약하게 기다리는 흥송스러운 맨이 되어 있을 거다. 찰리 휴스턴의 '조 피트' 시리즈를 (출판)까지도 번역 영화로 만들기쯤 걸심한 게 이다. 이번 작품 《통제 불능》은 전작 (이미 후속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범인이자 세계에서 옹머가 된 주인공이 생계를 위해 범마 이어 조직의 청부병 다스림 받아들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조 피트 시리즈의 간헐적 작품이지만 전작을 읽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다. 물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미 후속부터 보는 게 정석이다. 범인이자 조직에 사들여지면서도 곳곳까지 자신의 스타일대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조 피트의 모습을 감상해 보자.



아르노 룰랑드
《피의 우화》 / 황태
주인공 배고 다 바웠다



요시다 슈이치
《악인》 / 은영나무
신작 악인은 누구인가?



미야베 미유키
《얼간이》 / 북 스키피어
미야베 월드 제작 사탕

아르노 룰랑드의 신작이다. 이번 작품은 주인공 피에트로 비리 불다 배고 다 바웠다. 소재는 (근대의 신곡)에서 프랑스의 유명 우화 (라 폰테)로, 무대로 전작 (근대의 신곡: 살인의 0월리아)에서 프랑스로 옮겼다. 배경은 17세기 프랑스다. 우리에겐 (베르사유의 정)으로 더 친숙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라 폰테) 우화를 빚던 잔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이 계속된 살인을 예고하지 않을 해결하는 사건을 조사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살인책 그치지 않고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살인 사건에서 사자해서 나리 뒤까지 내용도 내용이 많고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살인 사건에서 사자해서 나리 뒤까지 내용도 내용이 많고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살인 사건에서 사자해서 나리 뒤까지 내용도 내용이 많고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살인 사건은 등장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누가 범인이라는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주변 사람 중 누가 진정한 악인인지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던져놓았다.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요시다 슈이치는 마지막까지 등장인물 중 누가 악인인지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극중 인물의 이름 빌리 '소중한 것을 갖지 못했'에 있을 것도 없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윤리적 보일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감정 자체가 사라진 진짜 악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며 머리 쓰는 게 좋고 도리처럼 할 게 아니다. 책을 덮고 나서 스스로에게 '내가 악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당산의 마음 속 대답에 따라 고지 그리는 스릴러보다 훨씬 더 통쾌하게 이해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다. 당산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인물이 존재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일본에서 잘-가는 여성 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신작이다. 그녀의 작품이 재미있고 사실은 잘 알지만 책의 두께와 권수에 압도되어 포기했던 사람에게 적절하다. 《얼간이》는 일본 에도 시대의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각각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책이다. 물론 각각의 성격상 단편 에피소드만을 담은 책을 내놓았을 리 만무하다. 초반부터 의미 있어 보이던 에피소드들도 중반부가 지나면서 다른 사건과 흡사해져서 말뚝이 깨어낸 음모의 선을 따라가다. 생생하게 사는 게 실의 모티브인 뻘 사투리가 귀찮을 줄이라는 장정진 작가와 함께 사건 해결해 나가는 게 주요 줄거리다. 무대로 17세기 (일본)를 읽으면서 그녀의 필력에 감탄하듯 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다. 그녀의 다른 작품이 더 읽고 싶다면 대표작 《오랑》 (화사)를 추천한다. 대신 뻘 사투리 만지지 않으니 읽기 전에 어휘의 준비는 해주는 게 좋을 거다.

GIRL NEXT DOOR #1
독자모델 최혜연



촬영장 연보기



열혈 애독자라며 MAXIM의 문을 두드린 이웃집 이쁜이 1호는 솔직 발칙하고 심지어 착하기까지 했다. 엄굴도 마음도, 몸매도. 그녀가 손수 가져온 바니걸 의상에 MAXIM 스태프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자, 독자 모델 1호기 최혜연 씨를 만나보자.

BY 이연미,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강은달/리뷰티코어 청담점 MAKE-UP 미카라/뷰티코어 청담점



자기 소개 부탁한다.

반갑다. 아티스트 최혜연이다. 전공은 회화지만 디제잉, 모델, 사진 등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오토쿠다.

우린 덕후를 무척 사랑한다. 남자친구는 있나?

없다. 손석희의 말발, 이외수의 글발, 옥택연의 등발을 가진 사람 있으면 연락 바란다. 그럼 나는 올해를 외칠 거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함께 살고 싶다.

그 초원 정말 불티나게 팔리겠다. 당신에게 반한 독자들을 위해 주로 어디서 노는지 가르쳐달라.

흥대. 놀이터에 앉아서 사람들을 크로키하기도 하고 클럽도 간다. MAXIM에서 파티하면 바니걸 의상 입고 출동할 거다. 난 MAXIM의 열렬한 팬이니까!

앞으로 또 촬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콘셉트에 도전하고 싶나? 음, 섹시 건담? MAXIMO니까 메이드? 불러만 주시라.

저...
덕후예요.





다음에 불러주면
섹시 건담이나 메이
드로 꾸미고 올게요.



2010 MAXIM Girl NEXT DOOR CONTEST

'내 다리가 더 예쁘다. 화장발,
조명발 받으면 내가 재보다는 낫지'
MAXIM 화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
Come on! 하루쯤은 MAXIM 표지 모델처럼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성도

Come on Plz!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문의 QNA@maximkorea.net

MAXIM이 2010 Girl-Next-Door의 문을 두드릴
여성 독자 모델을 찾습니다!

2010 GIRL-NEXT-DOOR 콘테스트는 2010년 6월부터 12월까
지 진행되며, 독자 모델의 화보는 MAXIM의 지면 또는 홈페이
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 방식 및 우승자 선정 기
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Girl Next Door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고
2011년부터 MAXIM 모델로 활약하게 됩니다.

화보 주인공인 당신의 판타스틱한 하루를 위해 국내 최고 수
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전문 디자이너, MAXIM 스타
프 등이 움직일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model@maximkorea.net으로

사진, 연락처와 함께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단, 눈동자만 있고 코, 입이 없는 뽀샵질,

신원 확인 불가한 사진은 도리도리 사양합니다.

WE WANT A PITCHER!

쉽게 만드는 칵테일 남자라면 알아야하는 여름 음료 제조법. 오늘은 딱 다섯 개만 배워보자.

BY MIKE DAWSON
PHOTOGRAPH BY JAMIE CHUNG



WHISKEY SMASH

위스키 스매시

모히토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여성스러워 고추에게 미안한가? 상큼한 민트 향을 즐기면서 남성다운도 유지하려면 보카토의 레시피 북에서 찾아온 버번 베이스 칵테일 정도는 마셔줘야 한다.

2 메이커스 마크 버번 위스키
3/4 시럽
레몬 몇 조각
민트 잎
얼음 약간

민트 잎과 레몬 조각을 한데 넣어 으깨라. 여기에 시럽, 버번과 함께 얼음을 넣은 후 셰이크하거나 저어라. 이를 얼음이 담긴 잔에 붓고, 레몬 조각과 민트 잎으로 장식한다.

MOSCOW MULE

모스크도 물

많은 칵테일 마스터가 모스크도(진저얼 + 보드카 칵테일)를 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결과는? 결국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나올 뻔이었다. 그러나 보스톤의 한 바에서 제공한 이 레시피가 최고의 맛을 냈다.

1 애플루드 보드카
1 잔저 비어
라임 한 개

라임을 통째로 슬라이스한다. 빈 잔에 라임을 넣고 으갠다. 보드카와 잔저 비어를 넣고 저은 뒤 얼음이 담긴 칵테일 잔에 붓는다. 이제 라임 조각으로 장식하면 끝!

7월 우리의 로망은 태닝한 다리를 드러낸 귀염둥이들과 야외용 접이식 의자에 앉아 시시덕거리는 것. 그러나 우리 올 여름부터는. 부엌 구석 탕이에 혼자 처박혀서 맘을 뽐낼 줄리며 팔라구토 유발 폭탄주를 제조하여 환심은 못 사고 환생만 사는 우울한 인간이 되지 말자. 야외 파티 자리에 서 당신을 빛나게 해줄 칵테일 제조법을 알려줄테니 외워둬다가 화려하게 써먹길 바란다. 이제부터 자르고, 부수고, 채우고, 마셔라!

ROMAN STINGER

로만 스틱어

캄파리 맛은 마치 감자이 시럽 같다. 그러나 칵테일 마스터(군) 당신을 부르는 말이 되겠다!가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 번중을 만들고 여기에 '여름'이라는 소스를 넣으면 감중을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멋진 칵테일이 완성된다. 뉴욕의 리를 브랜치라는 바에서 아래와 같은 레시피를 배워왔다. 신맛과 단맛의 사이에서 허를 꿰미며 퍼뜨린 자극을 느껴보자. 참고로 '찌르는 것(비늘)'이란 의미의 스틱어 칵테일은 이름처럼 약간

자극적인 맛이 특징인 대표적 식후주다.

1 캄파리
1 드라이베르무트
1 라임즙
1/2 용실렌(아기베) 시럽
위 비율에 따라 한데 섞어 흔들어 휘저어라. 이를 얼음이 담긴 잔에 붓고 오렌지 슬라이스로 장식하라.

TOM COLLINS

톰 콜린스

평범한 잔엔토닉은 짐승 같은 당신의 알코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너무 맛있다. 당신을 위해 여기 L.A. 베블리힐스의

토스 바에서 전해내려온 알코올의존자 양산 칵테일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를 준비했다.

진 284g
레몬즙 142g
설탕 5티스푼
소다수 약간
체리 몇 개
오렌지 몇 조각

잔에 레몬즙, 설탕을 넣고 저은 후 얼음이 담긴 잔에 4분의 3 정도 붓는다. 소다수로 잔을 채운다. 체리와 오렌지 조각을 뿌려준다.



THE PAINKILLER

페인킬러

이 럼주 폭탄 제조법은 뉴욕 페인킬러 바의 사장 리처드 보그 토에게서 받아왔다. 섞지 않은 피나 콜라다 같다. 다만 맛이 좀 더 강하고 더 훌륭할 뿐.

2 자파리 또는 푸러스 럼
2 파인애플 주스
1 코코넛 크림
오렌지 몇 조각
육두구 약간

파인애플 주스에 오렌지 조각을 넣고 으갠다. 코코넛 크림과 럼을 넣고 저어 얼음이 담긴 잔에 붓는다. 육두구를 약간 뿌린다.

GIVE ME PERFECT BACK!

우주로 날아간 퍼펙트게임

시작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아만도 갈라라가는 지난 6월 3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경기에서 1차局的 퍼펙트게임의 오상으로 농채버렸다. 그것도 예외 2차局에 나온 오상이기라 해는도 웃고 갈라라기도 웃었다. 짐 스톱스 심판은 그날 게임 직후 비디오 필름을 재검토하면서 자신의 오심을 인정했다. 그랜드 슬램 나간 퍼펙트게임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통의 야구 선수였더라면 평생을 다치 않을 때까지 웃고 싶었으니 울고보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다. 그러나 대외체스러운 갈라라가는 심판도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며 심판의 사과를 골하게 받아 들어 스포츠맨십의 대장사가 됐다. (영리한 내재) 이에 각종 언론 자동차 브랜드(QM)의 복이사업부 회장은 체리색 뉴 콜트 스포츠카를 갈라라가에게 선물했다. 이에 질세라 야구 밖을 이인 백리공의 배려 오마야 (대통령은 오상으로 대기록을 놓쳤으니 지금까지라도 필름을 반복해서)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LB 사무국은 "그런 건 없는 것"이라 일축했다. 짐 스톱스 심판은 미국에서 사는 걸 다행으로 여겨왔다. 우리나라의 구도(求道) 부신 사치구장에서 야구인 오상이 나왔더라면 그는 당장 자용으로 고고상정을 태우며 말이다.

NO NO-HIT NO-RUN!

우주로 날아간 노히트노런

역시 현실은 야구 만화와는 다르다.

MLB

선수 / 미쓰카기 다이스케(보스턴 레드삭스)

날짜 / 2002년 5월 25일

상황 / 필라델피아 필리스(아�틀랜타 브레이브스) / 3루 8회 2아웃까지 필라델피아의 2루타를 완벽히 봉쇄했다. 하지만 주자가 없다는 데 마음이 놓이던 걸까 후안 카스트로에게 실랑성당 던진 공을 작곡을 통타당해 노히트노런이 풀 건재했다. 전쟁

한 줄 평 / '간만에 한 건 율리나 했다네!' [야구 잘 건까지 미쓰카기의 평균 자책점은 7.89에 육박했다.]

KBO

선수 / 김광현(SK 와이번스)

날짜 / 2009년 6월 15일

상황 / 삼성 라이온즈

내용 / 미쓰카기보다 김광현이 100배는 더 억울했다. 9회 2아웃까지 탈삼진을 10개나 잡아내는 눈부신 투구로 삼성 타선을 몰아내었다. 아웃넷으로 8루타는 노히트노런인 상황에서 최정우에게 던진 공을 슬러그타이더로 맞아오면 노히트노런의 꿈을 노리자했다. 전쟁

한 줄 평 / '노히트노런도 깨져, 원뿔도 깨져, 이거 뭐 일!' [요신(野神) 김성근 감독은 그가 언젠가 허용하자 바로 투수를 교체했다.]

MAXIM TIM



이달의 스포츠 소식

BASEBALL

OH, PERFECT!

퍼펙트게임이 풍년이지구나!

타자를, 배타 맞기 전에 배타 들고 분발하라.



퍼펙트게임은 상대팀 타자가 1루 구경을 해보지 못한 투수가 '완벽히' 지대한 게임을 말한다. 134년의 역사를 가진 MLB에서도 작년까지 퍼펙트게임은 18번밖에 나오지 않은 대기록이다. 그렇지만 올해 MLB는 퍼펙트게임이 풍년이다. 지난 5월 9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좌완 달라스 브래이든 필라베이와 같이에서 퍼펙트게임을 달성했다. 20일 후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우완 에이스 로이 할러데이와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퍼펙트게임을 펼쳤다. 한 시즌 2회 이상의 퍼펙트게임을 기록한 건 1880년 몬테 워드(당시 프로 선수)와 리 리처드슨(워체스터) 이후 130년 만의 일

이다. 로이 할러데이는 '로' 구수' 넘어만 애칭이 붙을 정도로 타자에게 애스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현존 최강 투수인 퍼펙트게임 달성이 크게 놀라진 않다. 하지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달라스 브래이든은 '퍼펙트'와는 거리가 먼 데뷔 4년차의 그저 그런 투수였다.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서 MLB 슈퍼스타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언쟁을 벌이다가 '너 같은 톱보장 선수는 피그러져 있어!'는 갈굼까지 당했다. 프로 선수라면 열 받을 만도 하지만 그는 구소시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 애꿎은 탠파베이 레이스 타자인 퍼펙트게임의 희생양이 됐지만 말이다.

PERFECT IN THE KBO

퍼펙트게임이 궁금해나?

그리고 나면 실랑할지도...

백!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퍼펙트게임 기록이 문득 궁금해졌을 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 없다." 퍼펙트게임에 제일 근접했던 건 1997년 한화 이글스의 장민성이 당시 0대0 투수를 상대로 펼친 경기였다. 8회 1아웃까지 퍼펙트를 몰아내던 스텔라이크 낮아웃으로 타자가 1루로 진출하는 바람에 퍼펙트게임이 순식간에 노히트노런으로 돌변했다. [요신 투수 중순인 2007년 리오스기 한때엔 넥센을 상대로 9회 초 1아웃까지 퍼펙트를 몰아내다가 강구에게 최전 안타를 맞으며 퍼펙트게임과 노히트노런을 한 큐에 우주로 날려버렸다.]

SPORTS ES!

매달 당신이 궁금해할 만한 스포츠 소식을 간추려주겠다. 어때? 마음에 드나?

BY 김성현, 임기환 (IMAGES 이만도, 갈라리아, 달라스 브라운, 콰타워(Only Images/알라리브))

SOCCER TEARS IN FIELD

비운의 태극 전사들

이들의 부상 악연은 1994년 미국 월드컵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흰 옷의 태극 전사가 연어도 아니고 자꾸...



1. 1994년 미국 월드컵 / 강철

이름만 강철이면 뭐하냐! 당시 대표팀 주전 중앙 수비수였던 강철은 출국 하루 전 연습 경기에서 발목 부상이 재발해 최종 엔트리에에서 제외됐다. 발어막을 강철 발목 길고!

2. 1998년 프랑스 월드컵 / 황선홍

“황세” 황선홍은 프랑스 월드컵 개막 직전 부상을 당했다. 발어막을 짚게 놓이 문제였다. 그럼에도 최종 엔트리에 포함됐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는 본선에서 벤치만 뜨겁게 달굴 뿐이었다.

3. 2002년 한일 월드컵 / 고훈수

당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였던 고훈수는 2001년 8월 K리그 경기에서 십자 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월드컵 출전의 꿈을 접어야 했다. 병원에서 선수 생활이 끝난다는 통보를 받은 고훈수는 2002년 당시 대표팀 감독인 허딩래에게 “6월에 한 번 일 내보자”는 격려를 받았지만 사고 칠 기호조차 얻을 수 없었다.

4. 2006년 독일 월드컵 / 이동국

“라이언 킹” 이동국은 독일 월드컵을 두 달 앞둔 K리그 경기에서 무릎 십자 인대 부상을 당했다. 당시 포항에서 절정의 기량을 뽐내던 이동국은 월드컵 대표팀 선수수가 아닌 수습받는 한자로 독일을 방문했다. 그는 지난 5월 예레드르와 평가전에서 오른쪽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4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할 뻔했으나 다행히 최종 명단에 포함되어 8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올랐다. 황선홍처럼 되진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5. 2010년 남아공 월드컵 / 콰타워, 설기현

남아공행이 유력했던 콰타워는 벨라루스와 평가전에서 십자 수비수와 공중볼을 경합하다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 등보살 수비수와 충돌하는 바람에 월드컵 무대를 포기해야 했으니 그의 쓰린 마음은 오죽했겠냐 K리그로 유턴한 설기현도 3회 연속 월드컵 출전을 노렸지만 지난 3월 훈련 도중 무릎을 다쳐 이번 월드컵은 집에서 TV로 편안하게(음?) 감상할 기회를 얻었다.(역주행 드리블이 어찌든 그림... 아, 그런 이나...)

BASKETBALL

GOLDEN AGE

그때가 좋았지

우리나라 농구의 황금기를 찾아줬던 스타들의 은퇴 리스타가 시작됐다.



연세대 독수리 3인방

이상민 (1997년 데뷔 ~ 2003년 은퇴)

이상민은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프로 선수다. 정규 리그 및 챔프 결정전에서 4회 팀의 우승을 차지했다. 그보다 더 대단한 건 2002년부터 9시즌 연속 올스타 팀 투표 위를 차지하며 ‘영원한 오빠’ 자리를 굳게 지켰다는 거다. 우리나라 최고 포워드들의 계보를 이은 그는 현재 지도자 연수를 받고 있다. 지도자 동무, 날래 오라워!

문경은 (1997년 데뷔 ~ 2003년 은퇴)

이중치, 허재의 뒤를 잇는 우리나라 농구 역사상 최고의 슈터다. 원보자면 우월한 몸집에 백발백중 슈팅 능력을 갖춰 ‘열보 슈터’ 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다. 13시즌 동안 프로농구 최다인 1669개의 3점포를 적중시켰다. 동시대를 마치고 은퇴한 그는 다음 시즌부터 서울 K의 전력 분석 코치로 새로운 농구 인생을 시작한다.

우지환 (1997년 데뷔 ~ 2003년 은퇴)

공상한 외모와 출중한 실력으로 ‘코트의 행자사’ 로 불린 우지환은 독수리 3인방 중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고 대표대. 프로 선수 11년째의 3점 슈를 성공시키지 못한 선배 문경은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랐다. 프로농구 비공인 최고 득점인 ‘한 경기 4점’ 도 우지환의 기록이다. 현재 도바스의 전력 분석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대 호랑이 3인방

전희철 (1997년 데뷔 ~ 2008년 은퇴)

“야! 최철”이라는 별명만큼 높은 체중과 파워 넘치는 플레이를 앞세워 2001~2002 시즌 동양 오리온스를 창세한 올스타다. 하지만 팀 승리의 영광을 거둔뒤 국내 선수와 가장 심하게 맞붙어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현재 서울 K-22 감독으로 있다.

한준업 (1998년 데뷔 ~ 2003년 은퇴)

우리나라의 찰스 바클러! 한준업은 농구 실력뿐만 아니라 무언의 재능인 것까지 비결이 많았다. 8시즌 동안 여러 팀을 전전했지만 우승은커녕 챔프 결정전에도 한 번 올라가지 못한 채 2003년 LG 세이커스에서 은퇴했다.

양희승 (1997년 데뷔 ~ 2008년 은퇴)

양희승은 대학 시절 장신 3점 슈터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활약이 가장 눈부셨던 때는 프로농구 2006~2007시즌이다. 평균 58점을 기록하며 포워드 부문 관공제 1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2007년 K1로 이적 후 각종 부상과 사생활로 남은 경기 기회를 채우지 못한 채 은퇴를 결심했다. 그는 스포츠 예진진 시야로서 제의 인생을 살고 있다.

NBA 2009-10

시즌 결산

모두가 월드컵 이야기뿐인 대한민국의 NBA 팬들은 같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MAXIM은 축구에 지쳐있을 당상을 위해 NBA 소식을 준비했다. 전문가급이 많기로 유명한 NBA 팬미서에서 인정하는 스포츠헤럴드는 역시 월간 <루키> 편집장 조현일 뿐이다. 흥미로웠던 을 시즌을 그가 정리한다.

BY 박상우 WORDS BY 조현일(월간 <루키> 편집장, 986 스포츠 NBA 해설위원)
IMAGES 모든 NBA 사진 (Getty Images/올리버리)

담골 공전에서
장기나 두서너



2009-10 NBA를 장식한 7가지 소식들

2009-10시즌 NBA 계약을 앞두고 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슈퍼맨' 사킬 오닐의 이적, '슈퍼 신인' 블레이크 그리핀의 NBA 데뷔 등 핫거리가 차고 넘쳤던 덕분이다. 실제, NBA의 국내의 스포츠 케이블 시청률은 전년 대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0 오프시즌을 맞아 2009-10 NBA를 장식한 7가지 소식들을 모아보았다.

1. 슈퍼맨과 킹의 만남



2009년 여름, 농구팬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슈퍼맨' 사킬 오닐이 '킹' 르브론 제임스가 버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이적한다는 뉴스였다. 오닐은 입단식에서 "왕의 우승을 도우러 왔다"며 르브론의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두 선수는 정규시즌에서 대단한 힘을 발휘했다. 짝은 부상에 시달리긴 했지만 오닐은 여전히 일대일 수비로는 막기 힘든 선수였다. 이에 르브론은 골밑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득점 기회를 영리하게 이용했다. 하지만 시즌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클리블랜드는 동부 지구 세미파이널에서 보스턴 셀틱스에 2-4로 패하며 시즌을 접고 말았다. 오닐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고 르브론 역시 셀틱스와의 마지막 3경기에서 21.3득점에 그쳤다. 르브론은 이번 여름, 자유계약선수로 물러나. 갖가지 이적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NBA 골밑을 지배했던 샤카와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의 골밑 플레이를 다음 시즌에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3. 새 역사를 쓴 2010 NBA 올스타전

NBA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 2월 15일(한국시각), 미국 델라스 카우보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NBA 올스타전에 모두 10만 873명의 관중이 입장. 미국 농구 사상 최대 관중 기록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이는 농구 역사상 최대 관중이자 실내 경기 세계 신기록이다. 그 전까지는 2003년 12월 13일, 디트로이트의 포드 필드에서 열린 캔타키와 미시간주립대학의 경기에서 수립된 7만1829명이 최다였다. 지옥한 농구 사랑으로 유명한 마크 큐반 델라스 매버릭스 구단주의 장기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큐반 구단주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 이벤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제리 존스 델라스 카우보이스(NFL) 구단주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큐반과 카우보이스 구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HD 스크린(54×22m)을 준비, 경기장에 모든 모든 팬들에게 생생한 화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 곳곳에 가변좌석을 설치해 팬들의 편의를 도왔다.



2010 NBA 올스타전에 모두 10만 873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2. 건재한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만큼 많은 부상을 달고 2009~10시즌 전체 일정을 소화한 선수가 또 있을까. 코비는 오프시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손가락, 어깨, 무릎, 발목 등 다양한 부상에 시달렸다. 기록은 73경기 출전, 27.0점, 5.4리바운드, 5.0어시스트. 특점역 하나만큼은 변함없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야투, 3점슛, 자유투 성공률이 모두 하락하며 노쇠화 논란에 시달렸다. NBA 전설 찰스 바클러마저 "이제 코비는 늙었다. 예전처럼 한 경기에 30점 이상 넣는 일은 드물 것이다."라며 코비의 신경을 자극했다. 하지만 '불패 말바'는 명불허전이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와의 경기에서 다소 고전했을 뿐, 2라운드 유타 재즈와의 시리즈부터는 완벽히 경기를 지배했다. 그는 마지막 2010 플레이오프 14경기 동안 무려 11차례나 30점 이상을 몰아넣었다. 바클러를 충분히 마뜩하게 만들 만한 대활약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퀘즈 하나.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코비보다 30점 이상을 더 많이 기록한 선수는? 정답은 마이클 조던. 정말이지 이 양면은 어디 안 가는 게 없다.



4. 정규시즌 MVP 2연패를 거머쥔 킹 제임스

제1 웨스트 전 LA 레이커스 단장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남겼다. “코비 브라이언트보다 르브론 제임스가 더 뛰어난 기량을 갖겠다. 그는 리그 최고의 선수다.” 코비를 직접 드래프트하고 그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웨스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이 발언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런 르브론에게 올 시즌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다. 어느덧 리그 7년차 베테랑으로 정아드 데타 사길 오닐, 앤드루 데이비스 두 올스타가 입단. 우승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르브론이 펼친 정규시즌 활약은 엄청난. 기록은 평균 29.7점, 7.3리바운드, 8.6패시스트, 아후 성공률은 생애 최초로 50%를 넘겼다. 덕분에 르브론은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정규시즌 MVP 트로피를 거머쥘데 성공했다. 백 투백 MVP 수상은 마이클 조던, 스티브 내션, 매직 존슨, 팀 던컨 등 오직 9명만이 기록한 업적이다. 하지만 르브론을 포함한 이들 10명 가운데 우승 반지가 없는 선수는 내쉬와 르브론 밖에 없다. 르브론이 MVP 2연패를 차지한 무관의 재앙’으로 남지 않기 위한 해답은 단 하나, 파이널 우승 외엔 없다.

5. 부상으로 쓰러진 2009 드래프트 1순위

LA 클리퍼스는 드래프트와는 인연이 없는 팀이다. 매년 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을 거머쥐었지만 제대로 지명권을 행사했다고 평가받은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운도 없었다. 그간 클리퍼스가 1순위로 지명했던 선수들 대부분이 첫 해 부상으로 쓰러진 탓이다. 1987년 캔자스 대학을 전미 우승으로 이끈 후 1순위로 클리퍼스의 지명을 받은 데니 매닝은 루키 시즌 단 26경기 출전에 그쳤다. 1988년, 역시 1순위로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은 마이클 울로워킨도 두 부상 때문에 37경기를 쉬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쓰러선 역사가 또 한 번 반복됐다. 2009 드래프트 1순위 블레이크 그리핀이 사범경기에서 입은 무릎 부상으로 아예 시즌-아웃 판정을 받은 것. 클리퍼스가 모처럼 제대로 된 지명권을 행사했다는 호평 속에 많은 NBA 팬들이 “괴물 신인” 그리핀의 NBA 데뷔를 기다렸지만 또 한 번 1순위 징크스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클리퍼스는 그리핀의 부상, 주전 로빈턴게노 데어 데이비스의 부진이 겹쳐져 2009~10시즌, 단 29승을 올리는데 그쳤다.



6. 사상 최악의 총기 스캔들

폭발적인 득점력, 기이한 행동 덕분에 김버트 아레나스(워싱턴 워저즈)는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2008년 전 세계에 그의 시그니처 슈즈 열풍이 불 정도로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 지난 3시즌 동안 부상으로 제 몫을 못했기에 2009~10시즌, 아레나스에게 거는 팬들의 기대는 대단히 컸다. 하지만 그는 또 한 번 실망감을 줬다. 지난해 12월 22일, 총구장 버라이어티 센터 리저클에 총기를 반입한 것도 모자라 동료 자버리스 크리텐튼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것. NBA와 경찰은 즉시 사건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워저즈 리저클에서 정황을 포착, 총기 규정을 위반한 아레나스는 중범죄자로 기소되고 말았다. 이에 데이비드 스톤 NBA 총재는 “결코 이 사건을 가버리 여지가 없었다. 일단, 아레나스에게 한 여신 출장금지 징계를 내릴 것이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남은 연봉을 받지 못하며 급작적인 손해를 입은 아레나스는 후원 계약을 맺었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계약도 파기당하는 등 지옥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그의 등번호대로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7. 텍사스 엘리트 듀오

샌안토니오 스팅어, 델러스 매버릭스는 휴스턴 로케츠와 함께 텍사스 주에 연고를 둔 팀들이다. 양 팀 선수들이 서로를 ‘리얼미치 형제 팀’이라 할 정도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다. 실제 샌안토니오와 델러스는 지난 10년 간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성적을 거둔 팀들이다. 샌안토니오는 팀 단연히 입단한 이후 70% 넘는 정규시즌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부터 델러스 유니폼을 입고 활약한 노비츠키 역시 델러스를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다. 델러스는 올 시즌 55승 27패를 기록, 10년 연속 50승 이상을 올린 팀으로 올라섰다. 올 시즌 50승 32패를 기록한 스팅어는 1년 연속 이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두 팀마다 또 오랜 기간 통안 50승 이상을 기록했던 팀은 LA 레이커스(1979~1991)뿐인 팀이 없다. 10년 간 올린 승수도 비슷하다. 델러스가 563승을 올린 사이, 스팅어는 이보다 10승 많은 573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승 횟수에서 델러스는 스팅어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간 스팅어가 4번의 우승을 차지한 반면, 델러스는 단 한 차례, 챔피언 트로피를 거머쥐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네!

NBA는 6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리그다. 그간 NBA를 수놓았던 명장면 외에도 팬들의 배꼽을 빠지게 만드는 황당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내 유니폼 어디 갔어?

23번은 마이클 조던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1989~90시즌, 올랜도 매직과의 정규시즌 경기에서 조던은 12번을 달고 나왔다. 말했잖아 23번을 놔두고 어 12번을? 누군가가 라커룸에 침입해 조던의 상의 유니폼을 가져간 것이었다. 원정경기를 치르느라 여분의 유니폼을 가져오지 않았던 조던은 결국 12번이 적힌 판매용 저지를 입고 코트에 나섰다. 조던이 NBA에서 1,251번의 경기를 뛰는 동안 유일하게 12번을 달고 뛰었던 게임이었다. 이 경기에서 조던은 무려 49점을 기록했다. 인건이 없는 조던은 등번호가 바뀌어도 변함 없는 농구황제였다.

셀프 리바운더

트리플-더블은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슛 가운데 세 가지 부문에서 두 자리 수를 기록해야 하는 기록이다. 여기 트리플-더블에 대한 과한 집착이 화를 부른 경우가 있다. 2001~02시즌, 유타 재즈와의 정규리그 1차전, 게임 종료 6초를 남긴 상황. 승부차기 이후 클리블랜드의 승리로 기운 상태였다. 이때 인바운드 패스를 받은 리키 데이비스가 자기편 골대에 레이업을 시도한 후 리바운드를 잡는 것이 아닌가! 당시 데이비스는 트리플-더블에 리바운드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생애 첫 트리플-더블 대상에 눈이 먼 나머지 자기 편대로 돌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그 경기 이후 데이비스는 '셀프 리바운더'라는 지욕스러운 별명을 얻었고, 트리플-더블도 달성하지 못했다. 자기 편 골대에 슛을 던지고 실패한 공을 잡는다고 해도 리바운드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 이 건 뒤, 바보도 아니고.

농구에도 더블헤더?

2007년 12월 19일, 마이애미 히트는 6번칙으로 퇴장당한 사일 오닐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애틀랜타 호크스에 111~117로 패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히트 구단은 리그 사무국에 오닐의 파울 개수가 잘못 기재됐다든 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오닐이 퇴장을 당했던 마지막 51.8초부터 재경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리그 사무국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애틀랜타 홈경기 기록원의 실수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애틀랜타 측은 '올 패러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양 팀 모두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 12월 19일 당시와 선수명단이 상당부분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오닐이 이미 마이애미를 떠난 뒤고, 리그 사무국은 재경기를 5일 남겨 놓고 경기를 내렸다. "오닐은 없어도 된다. 새로 기세 올린 선수들이 대신 뛰어도 관계없다." 3월 8일, 마침내 51.9초를 남기고 경기가 재개됐고 애틀랜타가 남은 시간동안 3점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며 114~111로 승리했다.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바로 양 팀의 정규리그 본 경기가 시작했다. 이번에도 승리는 애틀랜타 몫. 호크스는 39점, 8어시스트, 6리바운드로 활약한 조 존슨의 활약을 일세일 히트를 97~94로 몰리겠다. 26년 만에 하우에 2승을 쓸어 담은 애틀랜타의 진기한 승리였다.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스캇 브룩스 현 오클라호마시티 번더 감독은 현역 시절, 서러운 경험을 해야 했다. 경기 도중에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 1994~96시즌, 휴스턴 로케츠의 세 번째 포인thead였던 브룩스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후반전을 위해 몸을 몰고 있었다. 그런데 휴스턴의 단장이 그를 불렀다. "트레이드 되었으니 지금 라커룸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라." 당시 시각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한 시간 남겨둔 오후 7시였다. 휴스턴은 경기 도중에도 이적 협상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브룩스를 델라스 매버릭스로 내보내는 조건으로 물론 와일라, 199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오는 트레이드에 동의를 찍었다. NBA 사무국은 당황했다. 역사상 선수의 경기 도중에 이적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무국은 트레이드 마감 시간을 경기 시작 직전인 오후 6시로 변경했다. 이듬해부터는 이에 오후 3시로 대폭 앞당겼다. 트레이드 이후 브룩스는 친정팀 로케츠와 경기를 치렀다. 벤치warmup으로 나선 브룩스는 12점, 5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 팀의 한 점 차 승리를 이끌었다. 서러움에 복반친 브룩스의 멋진 복수극이었다.



장난꾸러기 아테스트

론 아테스트는 가는 곳마다 사건을 터뜨리는 NBA의 문제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리그 최고의 수비력 덕분에 모든 감독이 원하는 실력자이기도 하다. 2003~04시즌, 아테스트는 라이벌 폴 피어스와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피어스의 결정적인 입막음에 약이 진독 오른 아테스트는 3점슛 45도 라인에서 불을 쬐자. 그간 숨겨온 수비 전법을 내보인다. 그것은 바로 상대편 바지 내리기. 본의 아니게 '야구동(명상) 100% 즐기기(MAX) 5월호 아직 도 안 했나?' 의 모델이 된 피어스가 재빨리 바지를 풀린 후 깨끗하게 3점슛을 성공시켜 관중들을 놀라게 했다. 경기 후 아테스트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이번엔 얼굴로 말했다. "TV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내 속을 내보여서 정말 미안해 풀~. 다시는 바지 내리지 않습게."

시구에도 정석이 있나요?

2010년에도 개념 시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BY 박성우 IMAGES 작구대 제2

대한민국 프로야구 시구의 역사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오른다. 최초의 여자 연예인 시구자는 월드 스타 강수연. 꽤 충격적인 시구로는 드라마 <여인천하> 속 왕비마마 전민화가 가계를 울린 한복 차림으로 '멋대, 집짓' 시구를 선보인 것이 꼽힌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구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 시구의 역사는 흥도로 이진과 흥도로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구를 본 두산 팬들은 '군면제 대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적극적인 영입을 촉구했다. 영웅호걸 흥도로 이후 여자 연예인들은 '개념 시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물론 선수가 뛰는 그라운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는 개념시구의 취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개념이란 단어가 천으로 온몸을 공중 싸우는 걸 뜻하는 것이었던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쉬움을 감수할 수 없다. 언제부터든 시구를 하는 여자의 복장은 홈팀 유니폼에 청바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구에 긴 바지 착용 조항은 없는대도 말이 대 타이리처럼 원정 팀을 응원하는 복장이 아닌 비애야 개념은 호쾌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는 것이므로도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 2010년 상반기 우리를 즐겁게 해준 그녀들을 소개한다. 한번기엔 더 반복하도록!



김사랑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시원스레 드러낸 그녀의 카리스마! 완벽한 얼굴, 완벽한 몸매, 적절한 의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스코리아의 위엄과 모습이다. 사랑합니다.

2010년 상반기 시구계는 수많은 아이돌이 출동했음에도 약속이나 한 듯 스키인 '베리리도' 노출릴까 봐 광경 배반 복장으로 출몰해 전반적으로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를 '개념 시구'라고 부르는 데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개념 시구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 그렇다고 흥도로처럼 단발 것도 아니면서 체재도 할 거 아니-면 제대로 보여줘라! 이제 날씨가 술술 더워지니 하반기에 우리 가슴을 살리게 할 시구를 기대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내 도입이 시급한 일본의 시구 하나 소개한다. 아, 일본은 선진야구구나!



호시노 아키



김하은

차이러면 도전기념에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똑똑 구장에 간 날은 수컷이 시구를 해서 넥스트 히어로즈에 대한 실망이 깊어 갔다! 하지만 히어로즈가 시구 실용의 최강자! 두산과 견줄 만한 훌륭한 라인업을 가졌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후노)의 섹시 매력으로 인기를 얻은 김하은이 사뭇한 모습으로 여기 강림하신 것이 그 이유. 이게 바로 야구 보는 맛



키이라 코르피

키이라! 그녀는 우리 언론 마음대로 '핀란드'의 기원이라 부르는 열광 피겨 스타다. 댄쿠비 동계올림픽 10대 마녀에 포함되며 각종 화보에서 포스를 보여준 주인공. 검색창에 이 이름 한 번 넣어보시라! 피겨에 연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감복할 것이다.



소피 부들로

출연 지상계 야구장에 등장한 이 엘트는 누구인가! 2007 미스 프랑스 2등이다. 미칠 듯한 미모만 볼 게 아니다. 선천적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정을 극복해낸 그녀의 당당함이 더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 관심만을 쓰지 못하니 그저 우리의 시선을 얻을 뿐.



김지우

금방! 너무나 귀여운 김지우. 한국의 배려와 결백한 이후 오랜만에 검색어 순위를 정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구 장면 때문. 타이리라는 홈팀 삼성 마스코트 사슴이를 빙의까지 하는 정성을 보인 김지우의 시구를 볼 때 한 수 배우도록

개념시구녀 이태경

어두웠던 2010 상반기 시구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녀, 언니이자 이태경을 만났다

WORDS BY 박상우 PHOTOGRAPHS BY ARC STUDIO



햇볕조만 기억하지 마세요!

넥센 하어로즈의 시구를 하게 된 계기는?

하어로즈의 응원가를 불렀다. 시구를 해달라는 구단 측 요청을 처음엔 부담스러워 사양하다가 승낙했다.

추신수 선수와는 어떤 시간인가?

정말 관계없다(웃음). 추 선수와 같이 부른 것도 아니고 '거리의 시인들'의 노현대 씨와 응원가 작업에 참여했다.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한 적도 없다.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다.

넥센 응원가로 불렀다.

원래 박성광 등 개콘 개그맨들과 월드컵 응원가를 함께 불렀다. 거기에 '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하어로즈가 하위권 팀이지만 인젠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며 응원하기로 했다.

넥센 팬인가?

시구를 계기로 인연을 맺고 힘이 되고 싶어서 넥센 팬이 됐다. 이제 넥센 경기는 빼놓지 않고 보고요. 한다.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내 등번호가 10번인데 이게 주장 이승용 선수의 번호다. 고참이지만 열심히 뛰고 성격도 좋다. 실제로 봐도 멋있었다. 팬이다.

시구 연습은 어떻게 했나?

한강에서 30분씩 2번 연습했다.

그날 경기를 다 보았나?

응원하면서 끝까지 봤다. 하어로즈가 역전승을 했다. 시구를 하고 이기가게 하지 기분이었다. 그날을 포함해서 야구장을 3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겼다.

프로축구 S 구단은 스폰서 연속 모델이 시속만 하면 패배하는 징크스가 있던데, 당신은 하어로즈 승리의 여신으로 자리매김하는 건가?
승리의 여신(웃음) 인터뷰에 꼭 적어달라.

시구 후 반응은 어땠나?

내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는데 박성광 씨가 번트를 해서 문혀버렸다. 그래도 뿌듯했다. 하지만 다음 날 기사는 '햇츠만 시구'만 부각됐다. 햇츠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시구한 공은 집에 가져갔나?

아니다. 안 가져갔는데 어쨌든 모르겠다. 하하. 시구 후에 정신이 없어 옆에 있던 분께 드렸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시구 공을 찾습니다!

그렇게 긴장했나?

응원가를 부르면서 관중들에게 "같이 하세요" 했는데 관중들이 처음 듣는 노래를 어떻게 따라하냐? '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더 긴장해버렸다.

당신이 생각하는 개념 시구란 무엇인가?

잘 던지는 거라고 생각한다(웃음). 잘 던진다는 게 정말 선수처럼 던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세요', '승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던져야 한다는 말이다.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게 진짜 개념 시구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나?

골프, 승마, 웨이크보드 등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좋아한다. 운동을 위한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계보단 사람과 할 수 있는 게 좋다.

이태경에게 MAXIM이란?

'인연'이다. 예전에 최화정, 이나영 씨와 동명의 커피회사 CF를 찍은 적이 있다. 그런 거 보면 MAXIM과 인연이 깊은 것 같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럼 이 인연은 MAXIM을 위해서 개념 화보 한 번 하자!

하하. 좋다.



WHO IS 이태경?

2001년 (학교4에서 본영 이상민)으로 데뷔한 그녀는 드라마 <미스터 쿤베> (사랑과 야망), 영화 <공작사> (정영주) 등에 출연했다. 얼마 전 한밤 가수 신재희의 나쁜 놈이였어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7월엔 영화 <로망스>에 출연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신인의 마음이라는 그녀를 우린 더 자주 보고 싶으니 좀 바르게 활동하길 바란다!

WEIRD BALLS

시구계의 이단아

호시노 아키의 색시 시구만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의 제1단 시구를 소개한다.



"내가 네 애비단!"
신조 쇼이시



"그래, 너로 칭했다!"
마미야 아키나



"노래 나라에 이런 거 없지?"
이레이 나미오



"도깨비 소년"
AKB48

미녀 골퍼 Best 5

그거 아냐? 골퍼가 테니스만큼 미인이 많은 스포츠라는 거. 다섯만 추리느라 고생 좀 했다.

BY 임기환 IMAGES 모든 사진/Getty Image/ 쉐라퍼쇼

3rd 홍진주

홍진주는 2006년 한국여자오픈에서 박세리, 김미현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줄줄이 꺾으며 깜짝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그녀를 빛나게 하는 것은 골프 실력보다 외모다. 이층처럼 높은 피부와 연 예민 행차는 미모로 대표하다 중인 남성 팬을 대 거 끌고 다니는 걸러리 경쟁력이 내릴 지경이다.

4th 안나 로슨

호주 패션모델 출신인 안나 로슨은 골프 실력보다는 색미로 더 유명하다. 17cm의 압도적인 길에서 뿜어제어하는 끈성미를 필드에 마구 뿌리고 다닌다. 그 결과 2007년에는 골프닷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세련한 골퍼로 선정되기도 했다.

2nd 최나연

피카에 김연아가 없다면 최나연은 최나연이 있다. 신재호와 더불어 '세리 키드'의 양대 산맥인 최나연은 신재호처럼 골퍼만큼 잘 차는 게 아니라. 필드 위에서 그녀는 마치 청춘 만화의 주인공처럼 활달하다. 중성적 미소와 이마지가 강한 최나연은 미녀 골퍼가 특장기는 이 분야에서 큐티 골퍼의 새 지평을 열었다.

1st 플라 크리머

크리스티 카운 함께 미국이 자랑하는 또 한 명의 미녀 골퍼다. 티샷을 날릴 때마다 울날리는 황금빛 머릿결은 못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크리머는 한때 세계랭킹 2위에 올랐을 만큼 실력이 출중했으나 현재는 많이 죽었다. 하지만 행복은 상식선이 아니지 않나? 플라의 행복, 이 오빠가 지켜주겠다!



5th 신지혜

박세리 뒤를 잇는 골퍼에게 2009년 LPGA 데뷔 첫해에 신인왕, 다중왕, 정규왕을 휩쓸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를 위해 음반도 낸 강경한 내면 미인.

왜 미련 연니 보고 싶다.

HOW TO GET HOT GOLFERS

미녀 골퍼 만나는 방법

그녀를 얻을 수 있는 직업군을 총망라했다. 하지만 아마 안 될 거야. 미안.



들어와.

1. 운동선수

미녀 골퍼를 사귀려면 운동선수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부대끼 기회가 많고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40) 수비 명공 김미현과 같은 병실에서 부상 치료를 받다가 이의 의도적으로 초콜릿 봉고를 갖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운동선수 하위 단층은 이미 너무 많이 왔다. 아마 안 될 거야.

2. 캐디

집근성이 최고다. 최근엔 여자 골퍼도 남자 캐디를 선호하는 추세다. 수십 킬로에 달하는 캐디백을 메고 필드는 물론 우유 배달이

박지성 같은 강형 채찍과 임흥술 같은 장삼백이 필수기 때문. 그에게서 어필하려면 조브로급 골퍼 실력과 개인을 잇는 사이도 필요하다. 그녀의 장단을 맞추는 스틸까지 갖춘 다면 게임 셋. 하지만 조건이 너무 많잖나? 우린 안 될 거야.

3. 국회의원

국회보다 좋은 골프장 출입으로 전국 골퍼 관련 통치를 막아 선다는 국회의원은 미녀 골퍼를 만나기에 꽤 괜찮은 직업이다. 현장에서 활약하는 미녀 골퍼와 직접 접촉은 힘들겠지만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장에서 훈련하는 골퍼 친화형 미모의 국회 동을 만날 수 있다. 여의

도 63세 연석의 골프장을 건설한 나랏님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국회의원이. 우린 아마 안 될 거야.

4. 골퍼의 아버지

말레이를 굳게 키워 골퍼 선수로 사귀면 미녀 골퍼를 볼 확률이 높다. 말레이가 KPGA 프로테스트를 통과하는 날이면 패자를 불러야 할 거다. KPGA 무대에서 활동하는 미녀 골퍼가 꽤 많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당신은 말레이의 캐디 역할을 자처하면 된다. 박세리 아버지도 그녀의 캐디를 하며 쇼펜스트림과 캐리 빌로 앞에서 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겠다. 상상이나 해도 즐겁지 않나?

하지만 우린 아마 안 될 거야 내 자신이 아무리 잘나도 결국 내 DNA의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을 거야.

5. 연예인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왕궁쟁이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골프장을 자주 드나들 수 있다. 골프광 임창정(가) 대표격이다. 그는 한 번에서 만난 11세 연하 미녀 골퍼 김현주에게 집요한 구애를 펼친 끝에 결혼에 올랐었다. 하지만 김국진처럼 골프 그 자체에만 빠질 경우, 5년의 세월을 날릴 수도 있다. 우리도 아마 안 될 거야.

STUFF



아이폰4G 영상보기



4G IS COMING!

당신이 아이폰 4G로 갈아타야 할 이유를 알려주겠다. 지름신을 맞이하는 데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다.

BY 김광현

01 과를 입은 해상도

액정 크기는 그대로지만 해상도는 기존 480×320에서 960×640으로 가로×세로 각각 2배씩 4배 높아졌다. 동일한 정보를 표현할 때 한결 선명하고 세밀한 화면을 보여준단 소리다. 아이폰 3GS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눈에 될 정도다. 특히 텍스트 정보를 확인할 때 고해상도 액정은 강점을 가진다. 글자가 기존보다 4배나 명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3.5인치 액정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진 제품을 찾아볼 순 없을 거다. 그만큼 아이폰 4G의 해상도는 징크를 올린 만큼 높은 수준이다.

02 6축 센서 보유

아이폰 4G는 6축 센서를 보유해서 움직이는 방향, 속도, 회전 등을 감지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폰 4G를 Wii의 리모트처럼 사용할 수 있단 소리다. 아이폰으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면 궤적을 알려준다든지, 차에 아이폰을 거치해두면 운전 습관(급출발)을 하는지, 급가속을 하는지 등을 체크해준다든지 외에도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결국 이 6축 센서의 유무가 아이폰 3G와 4G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능이 될 거다. 앞으로 나올 다양한 앱을 기대해보도 좋다. 물론 유료겠지만..

03 HD급 동영상

LED 플래시 카메라 내장된 500만 화소의 디지털카메라(디지털 중·간 포맷)로 720p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이제 간단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별도의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를 찾을 필요가 없다. 친절한(?) 잡스 행님은 촬영한 영상을 쉽게 편집하려고 MOVIE와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했다. 아이폰 4G와 MOVIE가 있으면 촬영한 HD급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밖에서 영동통(?) 짓는 삼가는 게 좋을 거다.

04 전면 카메라 탑재

아이폰 4G의 앞면엔 화상전화용 카메라가 달려 있다. 다행히! 화상통화는 아이폰 4G까지와 와이파(Wi-Fi)로 연결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평소 행실이 부적절한 사람이라면 아이폰 4G를 카탈프로로 칭찬하는 건 비추다. 화상전화로 당신의 사생활이 날날이 공개될지도 모를 일이다.

05 놀라운 배터리

배터리 용량 자체가 미약하게나마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배터리의 탈착은 불가하니 전화 통화가 잦은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배터리의 관련 액세서리를 장만해두자. 전화 통화만 할 경우 7시간, 웹서핑은 6시간, 비디오 재생은 10시간, 음악은 40시간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평소엔 전화 올 일이 없는 당신에게 배터리 용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06 슬림한 바디

중앙처리장치(CPU)인 A4칩의 크기를 줄여 아이폰 3GS보다 24% 정도 두께가 얇아졌다. 아이폰 4G의 두께는 9.3mm로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 가장 얇다. (상성이 자랑하는 스마트폰 갤럭시 S의 두께가 9.9mm다.) 여기에 세련된 스테인리스스틸의 프레임은 튼튼하고, 강화 유리를 사용한 액정은 흠집에도 강한 편이다.

CHEER UP

3세대라고 울지 마라

멀티태스킹은 지원된다. 그나마 위안이 되나?

아이폰 OS를 4.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멀티태스킹 폴더 기능 등을 지원해준다. 물론 그전에 달음아이폰을 해킹해서 위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던 유저도 있었지만 애플에서 정식으로 기능을 오픈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이폰 3세대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당신 주변엔 약정의 노예가 되어 무늬만 스마트폰인 휴대전화 2종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 말이다.

하이브리드 디카 3종

자동차도, 패션도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카메라도 이 대세에 합류한 지 오래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디카 3종을 직접 만져봤다.

BY 박성우 IMAGES 각 제조사 홈페이지 MODEL 및 외형은 편의상



소니 NEX-5

장점 NEX-5의 귀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첫인상은 남녀 모두에게 어필할 만하다. 3인치 엑스트라 파인(Xtra line) LCD 모니터는 각각 상하 80°·45°까지 기울어져 편의성을 더했다. AF 모드에서 초점을 잡아내는 속도가 빠르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휘릭”하고 들려오는 셔터음이 시원하다. NEX-5의 3D 스윙프 파노라마(Sweep Panorama) 모드는 고품질 3D 파노라마 사진의 촬영을 가능케 해 재미있다. 무엇보다 빛나는 것은 동영상 기능이다. AVCHD/MP4 포맷 형태에 Full HD 1080i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이 녀석만 있으면 디지털 캠코더를 따로 구입할 필요 없다. 거기에 저장 매체로 메모리 스틱과 SD 카드를 모두 채용함으로써 소니의 약점인 호환성을 극복했다.

단점 기능별 버튼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메뉴 버튼 하나로 모두 해결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지 않아 불편하다. 이 때문에 조작법을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두 모델에 비해 부팅 속도가 미세하게 느리다. 일반적인 촬영 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UFO를 촬영할 일이 많은 우리 MAXIM 독자들에게는 그 100분의 몇 초가 영영처럼 느껴질 것이다. 물론 NEX-5로 UFO를 촬영할 순 없지만 시간 낭비하지 말자. 작은 크기는 이동성을 높였지만 흔들림을 잡차 했을 때 본체가 렌즈에 매달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상태로 스트랩을 이용해 어깨에 걸쳐 매면 덜렁거리며 떨어질까봐 불안하다.

기타 본체가 작고 가볍고 손이 큰 사람에게도 불편할 수 없다. 그러나 손에서 잡힐 만함으로 크고 작음 부분은 아니다. 카메라에 있어서 가볍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목적만 보더라도 이는 이해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카메라에 그런 결이 없는 사람은 없을 듯. 결과물을 확인할 때 사진과 동영상은 버리라는 점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NX10

장점 세 제품 중 유일하게 뷰파인더가 보드에 붙어 있다. 전문사진사는 예민하게 반응해서 뷰파인더를 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자동으로 LCD가 꺼지고 모든 정보가 뷰파인더에 표시된다. 초점을 민첩하게 잘 잡아내는 편이다. 직관적이고 편한 인터페이스는 초보자나 NX10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익힐 수 있다.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의 제품답게 3인치 AMOLED의 해상도는 감탄을 자아낸다. (실제 결과물을 컴퓨터 모니터로 확인했을 때 실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통 DSLR에 가장 근접한 디자인은 목직판 외관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그 덕분에 좋은 그림 감까지 선사하니 관습은 시대로 갈 수 있다.

단점 하이브리드 디카의 공통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큰 사람은 불편할 여지가 있는 제품이다. 손이 큰 편인 에디터는 촬영을 위해 셔터를 누르다 자꾸 후속 후단의 원형 내비게이션 키를 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정되는 설정들을 보며 ‘아, 삼성의 기술력은 설정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정도에 이르렀구나’ 라고 착각한 게 부끄러울 지경. 한편 메뉴 버튼은 뷰파인더 바로 좌측에 부끄러울 듯 살짝 숨겨져 있어 혼곤했다는 인상이었다. 왜 한 손으로 가능한 걸 굳이 두 손을 쓰는 소고를 하게 하나? 무리한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셔터 소리는 배짱을 보는 기분이다.

기타 셋 중 유일하게 뷰파인더. 플래시 일체형 모델이다. 이 때문에 많이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체감은 중간 정도 무거워야 한다. 미리 크고 당연히 무겁기까지 한 에디터로서 지적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도대체 카메라에 무슨 일을 한 거지?



정확한 비교를 위해 리사이즈 외의 후보정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올림푸스 E-P1

장점 E-P1은 하이브리드 디카 시장의 확장에 크게 기여한 제품이다. 처음 이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동남을 뛰어넘은 혁신적 디자인(사실 1959년 발표된 최초의 하프 카메라 PEN을 복각한 디자인이다)으로 많은 이를 구름 추동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특히 다수의 여성이 “예쁘다”를 연발하며 신상 백도 아닌 카메라에 대한 소유 욕망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거기에 조작성 아주 간단하고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남녀를 불문하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뛰어난 조작성과 더불어 제품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또한 훌륭하다. 전원일 때 매우 속도가 매우 빨라 촬영 준비가 용이하다. 무엇보다 E-P1이 가진 특유의 색감으로 여타 하이브리드 디카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단점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최강자라 할 수 있는 삼성, 소니와 비교했을 때 E-P1의 3인치 하이퍼 크리스탈 LCD는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어두운 곳에선 노이즈 때문에 지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반셔터를 누를 때 대상을 잡지 못하고 초점이 뺏기버리는 상황이 가끔(아이가면 조금 빈번히) 발생했고, 셔터 소리는 가볍고 인공적인 기둥음이 났다. 평면적인 보디 디자인 탓에 그림감이 부족해 손에서 빠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다. 덧붙여 가죽 재질은 미끄러짐을 완화해주긴 했으나 그림 재질을 편안하게 해주진 못했다. 또한 원소으로 좌측 상단의 촬영 모드 키를 돌릴 때 불편했다.

기타 출시된 지 한참이 돼야 하는 제품이다 보니 다른 두 제품과 단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경쟁의 시대를 준비한 제품들이며 매력적인 가격대. 다수의 에디터가 실물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혔다. 경쟁사 DLR은 더 말할 것 없이 E-P1은 손에 쥐어볼 만해 셋 중 가장 무지하고 믿음직한 인상을 줬다. 올림푸스 특유의 이트 플래시 사진 찍는 재미를 더해준다고도 독심 두 후보정용 약한 초상사에게도 다양한 사진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TUFF

FILL YOUR INNER EMPTINESS WITH MATERIAL GOODS

BY 김재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조연애 MAKE-UP 그레이은
MODEL 태리
ASSISTANT 조정민

COOPERATIONS 키오스포츠, 베노, japayya, COMEGEE(02-3130-7789), BNY, adidas originals (02-3447-7701),
jamesjean(070-8247-7834), GLESS (069-949-0393), BUNN (www.bunn.co.kr)

Outdoor Mission Complete!

준비 없이 떠난 여행 후에 남은 건
쓰러진 추억뿐이다. 당신이 그녀와 후끈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품을
MAXIM에서 알려주겠다.
미리미리 챙겨두라.

9월이다. 내리쬐는 태양은 사랑의 마음
을 들뜨게 한다. 당신의 그녀도 단란한 일
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
은 마음이 간절할 거다. 이때 자연스럽
게 아웃캠핑이라는 맥박을 잡자. 고급
스러운 캠핑에서 즐기는 럭셔리한 여행
도 좋지만 그밖의 가리랑 단상에 줄이
기엔 이만한 게 없다. 타고 갈 자동차가
적당하려면 MAXIM의 자동차 사승가
시 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오토캠
핑에 필요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알려주
겠다. 준비가 끝나면 남은 건 거친 야외
에서 당신과 그녀 안에 잠든 야성을 깨우
는 일뿐이다.

KOLON SPORT FIRE PLACE SET

그녀에게 멋진 바비큐를 해주겠다고
자랑해놓고선 드림캠을 장난으로 지른
당치 큰 화를 들고 갈 생각에 당신이
준비한 질 좋은 고기도 그 때와 화목에선
맛을 보하지 못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
기도 좋고 차기도 좋듯 세상에서 가장 소
화 잘 되는 고기도 평범한 화로 세트에 구
워야 제맛. 이점에 코오롱스포츠의 피어
어 플레이스 세트를 장만해두자.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화로, 방풍대, 그릴, 숟반이
를 별도로 구입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덩
치도 적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언제든 바
비큐를 즐길 수 있다. 그녀와 맛있는 바비
큐를 먹으며 오늘 밤을 뜨겁게 보낼 계획을
짜보자. 장기는 그저 가를 뿐.

문의 www.kolonsport.com 02-588-7667
가격 5229원 원

화이트 컬러 단크롭 PUMA
블루 컬러 스니즈 adidas originals
하얀색 스니커즈 CONVERSE



**KOLON SPORT
RELAX CHAIR,
MINI BAMBOO TABLE**

이곳에서 쓰는 의자라고 무시하지 마라.
역문이 풀여임겨준다. 코오롱스포츠의
일렉스 체어에 앉아봐라. 등받이 조절이
3단계로 가능한데다 크라운 영영이인
당신도 편하게 앉을 만큼 시트 사이드도
낙너해다.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캠프에도 준비 완료.

그녀가 의자에 편히 앉아 기분 좋게 책을 읽고 있다면 다가가 커피 한 잔을 권하라. 한층 기분이 좋아질 그녀가 읽던 책을 읽고 당신 등을 위로라 듣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의 책을 올려줄 직은 미니 테이블이 필요한다면 미니 테이블(대나무 테이블)도 있다. 교체로 놓아도 조립도 가능하고, 접이식 접은 기성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휴대하기 좋다.

문의 www.kolonsport.com 02-1598-7657
가격 일렉스 체어 129,500원
미니 테이블 129,500원

화이트 컬러 양크루 PUMA
블루 컬러 스포츠 adidas originals
하이탑 스니커즈 CONVERSE



**KOLON SPORT
SUPER PALACE**

봄이 요즘 나오는 텐트가 근대에서 쓰던 사형 텐트처럼 조악한 구조이다. 생각하
는 건 아니겠지? 최근엔 코오롱스포츠의
슈퍼 팰리스처럼 이모에서도 집처럼 편
하게 지낼 수 있는 대형 텐트가 인기다.
달랑 둘이 여행 가는 데 큰 텐트가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녀와 다양한 플레이를
즐기고 싶다면 이 정도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좋은 텐트가 무너질까봐 단순 양복
운동만 거듭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다.
코오롱 홈페이지의 동영상만 제대로 속
지하면 텐트를 완성하는 데 10여 분 정도
면 충분하다. 텐트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가벼운 스카싱이 오늘 밤 그녀를 밤
에 피는 정미로 만들 확률도 높아줄 거
다. 물론 그때마다 당신 역시 텐트를 치
게 되겠지만 말이다.

문의 www.kolonsport.com 02-658-767
가격 128만 원

스트라이프 패턴 베스트 papaya
골드 컬러 비키니 에디터 소장

KOLON SPORT
BAMBOO KITCHEN TABLE, KITCHEN

남자라면 한 번쯤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그녀를
만치는 맛없는 해장을 꿈꾼다. 왜냐고 다를 건 없다.
코오롱스포츠의 날씬한 캠퍼(에나뚜) 카친 테이블이라
면 부엌이 부담지 않으니 당신 꿈을 실현하기에 충분할
거다. 그녀가 식기 거치대와 건조망까지 포함한 훌륭한
테이블에 만족하며 즐겁게 요리하는 모습을 노리는 거다.
물론 그 전에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주사도구는
순편승객 치명두는 센스를 잊지 말고, 자칫하다가 당신이
회전문 소가 아닌 순에서 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 꽤 주사도구를 일일이 챙기기 귀찮으면 프라이어팬,
달걀 프라이팬이 준비된 코오롱스포츠의 여행용 쿠킹 해너를
장만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문의 www.kolon-sport.com 02-588-7667

가격 범위 카친 테이블 20만 원
코펠 2만8천 원(2만용 기준)

화이트 컬러 비키니 ROXY
네이비 컬러 스즈 HEAD

**KOLON SPORT
WIDE FIELD COT**

아전향대 이 일이나 좋은 이름인가, 아외
에서 당신과 그녀의 몸뚱이가 부딪히는
최고한 전투가 벌어질 창란 소리다. 왜
이런 아전향대가 필요하나? 당신과 그
녀가 울퉁불퉁한 바닥 위에서 2개의 몸을
고무처럼 전투를 벌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
는 건 아니겠지? 풀러 있는 그녀 마음을
순식간에 밤바다에 차곡이바리고 싶다면
이 아무라도 상관없겠지만 편함은 아전
향대 하나면 둘의 전투는 훨씬 더 격렬
하고 치열해질 거다. 코오롱스포츠가 내
놓은 아전향대는 두 명이 한꺼번에 올라
기도 충분할 만큼 널찍한데다 내구성도 뛰
어나 시트가 벗어질 염려도 없다. 전투에 나
신 군요해계 구형 M100이 아닌 최신 K2 소
총을 쥐어주면 전투력이 올라가듯, 그곳
전투에도 질 좋은 아전향대 하나가 추가
되면 전투의 질이 달라진다. 아직도 고민
할 게 남았나?

문의 www.kolonsport.com 02-588-7887
가격 229,800원



**KOLON SPORT
AIR MAT**

헤어밴드라고 맨바닥에 닿을 드라눅지 마라. 추위가 그물대손 치더라도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어떻게 할 건가? 카펫 필라트헤 이런 곳에서 잠들면 입이 돌아 가는 건 둘째 치고 남자의 생강인 허리에 예로 스카이가 골판다. 한의학에서 남자는 습한 곳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바닥에 에어매트 하나 정도는 깔아두자. 코오투스모호의 에어매트면 냉기 습기 차단은 물론이고 그나마 급작스럽게 레슬링을 펼칠 때도 편안한 쿠션이 도와줄 거다. 자등 공기 주입 에어베트가 인공에 일으킨 공기 넣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 번 써보면 톱지리파우는 쥐도 안 쓸 거다. 잠들린다.

문의 www.kolonsport.com 02-688-7677
가격 19,900원 원

템피스 pipaya 펠릭 모두 Jamie&Bel

HOW TO SURVIVE OUTDOOR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 해충 피하는 방법
이 벌레 같은 자식들!

독나방 : 만만하게 보지 마라. 독모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붉은 반점 가려움증, 통증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전신에 독이 퍼져 고열과 심한 고동이 유발된다.

MAXIM SAYS

소으로 죽이지 말고 정은 휴지권 담은 후 사살한다. 벌에 봉오면 일단 효소는 물에 씻도록

왕지네 : 초목에 가까운 회색을 띠며 길쭉한 생김새다. 몸길이는 1~4cm까지 다양하

며 대리 수도 5센서에서 70명까지 징크롭게 다양하다. 습한 지역에 서식하며 이형성이다. 그리고 달신처럼 모두 육식성이다.

MAXIM SAYS

집에 맨처마라. 모충 자체가 다분해 만지는 순간 단상을 등 개다. 아무 거야 당연한 예이고 돌린 것도 보든다. 자체 독은 산성이나 알기생인 양모-아수를 빌라 부기를 가라앉히자.

벌 : 벌은 여름철에 독성의 양이 많아지고 강

해진다. 일례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두드러기, 혈관부종, 위장과 경련, 설사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더 위험하니 주의하라.

MAXIM SAYS

강한 향수나 기름 사용을 자제하라. 검은 옷은 벌을 자극하므로 입지 않는 게 좋다. 침 당할 땀을 화염에서 정온에 넣어주면 양장한 벌은 아기에 빠지 죽는다. 벌에 쓰이면 발한을 제거하고 얼음팩을 올려라. 가렵다면 항히스타민제나 카타린토신을 바르면 한결 달콤 거다.

COLEMAN REVERSIBLE TENT LANTERN

텐트 안에 놓아줄 랜턴을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녀와 훌륭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아스름한 불빛을 내는 가스 랜턴이 좋겠지만 커는 것도 귀찮고 관리하기는 더 귀찮다. 요즘에는 형광등 랜턴도 쓸 만한 제품이 많다. 고크램의 투명 리트론 랜턴 정도면 70W 형광등은 밝히고도 낫다. 형광등 랜턴이라 한 번 커주면 똑똑히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텐트 안에 놓아두기도 편하다. 형광등이 과연 이리서 밝기 자체가 뛰어난 것인지 아직은 아직 각적 부담은 한결 덜한 편이다. 텐트 내부 찬장에 잘기 편하게 랜턴 바드에 고리도 달았다. 이 내색 내 풀들이만큼이나 풀들던데?

문의 www.coleman.com 02-542-7030
가격 5만2천 원

자브라 패턴 비키니 ROKY
화이트 컬러 쇼츠 에디터 소장

HOW TO SURVIVE OUTDOOR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 독초 구별법

야초인 줄 알고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려 119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지.

잎뿔이 독초다. 헛기린지 마라.

여로 vs. 완추리

여로: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다. 맥이 많고 주름과 털이 당신만큼이나 많다.

완추리: 잎에 털과 주름이 없다. 큰 높은 돌이 있으면 이런 돌만 골라서 먹어 먹어라.

박새 vs. 산마늘

박새: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다. 잎의 아래는 줄기를 감싸며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산마늘: 이듬처럼 냄새가 나는 못지않다.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린다.

삿갓나물 vs. 우산나물

삿갓나물: 줄기에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은 잎이 6~8장 둘러난다.

우산나물: 잎이 2줄로 깊게 갈라졌다.

털머위 vs. 머위

털머위: 잎의 앞면은 짙은 녹색인데도 두껍고 광택이 있다. 뒷면은 갈색 털이 많다.

머위: 연녹색의 얇은 부드러운 털이 나 있다.

MAXIM RIDE

MAXIM 비교 시승기

1,600만원대

친구여, 적금을 깨라.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S 박상우, 김희성

FORTE

2010 포르테 2.0 CVT

1,657만원



LACETTI PREMIERE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1,611만원



2010 포르테 2.0 CVT VS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8



DESIGN

기아 포르테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의 반향은 대단했다. 간단 시리즈의 차크를 연상시키는 기아자동차의 패밀리 룩이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포르테라는 히트작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테니 말이다. '패밀리 룩'이란 예를 들어 BMW가 원형 라이트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관성은 디자인 컨셉을 말한다. 포르테로 시작해 K5로 이어지는 기아차의 자율적인 눈매를 탄생시킨 건 세계적 자동차 디자이너 페테르 슈라이어다. 기아차의 얼굴들을 통일성 있는 라인업으로 완성시키는 이 아저씨가 누구냐고? 지난 20년간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자인을 총괄했던 남자로 하고 하면 앞으로 기아차의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대충 감이 오나? 해외 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아차 동차도 디자인을 하나의 연결 고리로 묶는 '연계계'를 과감히 쓰기 시작한다. 슈라이어이라는 걸출한 용병 장수의 지휘 아래 말이다.

그런데 장수를 데려오느라 돈을 너무 썼는지 실내 디자인이 영 소홀하다. 지난 1년 간 길에서 여자 자동차 포르테를 보면서 칭찬을 들었던 것만 운전자에 없는 순간 '늑장'라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마감재에서 느껴지는 이 약한 부위기는... 텍스?



DRIVING

부슬비에 촉촉히 젖은 도심 도로를 따라 가속과 제동을 반복했다. 가장 급격한 부분은 높은 전고 때문에 출렁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공격적인 차선 변경에 따른 출렁임 테스트는 서킷에서도 좋지 않은 실제 도로에서 새겨놓는 것만 같을 줄도 없다. 멀리 한 쪽 차선에 갈게 놓여선 차들이 보인다. 진압하지 않을 것처럼 옆을 달리는 차가 찰랑거려도 된다. 외로운 출렁임이 별로 심하지 않다. 뒷 차도 잊지 마라 땀방울도 헤드램프도 깜빡여 준다. 기법계 손을 들어 성원에 답했다.

높은 전고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 시 흔들림이 적다는 건 가벼운 프레임과 낮은 무게 중심 덕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다만 비록 그 1,167kg의 가벼움(라세티 프리미어 1.8 D, 1,335kg) 고속 주행에 필요한 안정감을 떨어뜨리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밤이 되고 다시 시동을 걸자 어두운 주변을 감지한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스스로 헤드램프에 불을 밝힌다. 에디터의 주된 테스트 드라이브 구간은 새벽 3시 경의 강변 복도다. 땀 흘린 강변 복도는 울림기 대로보다 고속 코너링을 시험할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 회근을 새벽 3시에 시키기 때문이다. 쟁쟁할.

아무래도 배기량 1,800cc의 라세티D와 비교하면 2,000cc의 포르테가 우위를 보인다. 그리고 차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즉각적 반응에 중점을 둔다면 정답은 더 명확해진다. 단, 반응에 있어서의 만족할 만큼의 성능을 기대하지 마라. 차를 내루로 비로 전제해 오는 엔진 음과 노면 요철에 의한 소음은 라세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피부에 와닿도록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다. 포르테를 몰러낸 적어도 이 소음 자체를 '스포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차체가 필요하지 않다.

DESIGN

내부 디자인에서는 라세티 프리미어의 압승이다. 인테리어를 빌려 호 포르테에 비해 T엔진을 연상시키는 리프의 색다른 센터페시아와 스티어링 휠, 그리고 화려한 LED 계기판은 1년전 MAXIM 시승기에서 찬사를 퍼부었던 엑세스 IS205의 인테리어를 능가할 정도다. 과연 지금의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는 중형용 모델 속에서 라세티 프리미어만큼의 디자인을 뽑아낸 차가 있을까? 라세티 프리미어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 라세티 프리미어의 압도적인 디자인에 대해 의미를 제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파격은 없다. 대우차가 늘 그렇듯 말이다. 그렇기에 이 심플한 중후함은 시간이 갈수록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볼수록 매력 있는 흥남 같고나 할까? 다이아몬드를 과감하게 커팅한 듯한 전면부는 캐주얼이 주는 직선의 매력을 담았다. 그래서일까? 친밀한 예가지만 MAXM 에디터는 얼마 전까지 라세티 프리미어를 너무도 당연하게 중형 차로 알고 있었다. 그만큼 중후한 답지 않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다. (원, 실제로 좀 두껍다고 하다.) 라세티 프리미어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컬러는 '미스티 레이크'다. 실제로도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고, 에디터의 집 주차장에 서 있는 누군가의 미스티 레이크 컬러의 라프는 개인적인 로망이 되어 버린 나머지 차 주인에 대한 찬사마저 생겨버렸다. 저 미스티 레이크 빛깔 라세티의 드라이버는 분명 손 막히게 색다른 27세의 오피스 레이디일 거다 난 알 수 있다 하얏하얏. 라세티 프리미어 1.8 D의 디자인, 사실 온갖 찬사를 늘어놓았지만 이 모든 건 아무에 국한된 예가다. 뒷모습은 확 실, 허, 포르테가 나다.

DRIVING

도로 위에서 실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고 나가는 느낌은 2,000cc의 포르테보다는 아무래도 밀린다. 배기량으로 보면, 토크 차이를 보니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미 2,000cc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라세티 프리미어가 울 해 굳이 IDENTITY를 이름으로 배기량을 다룬서 1,800cc 모델을 출시했다. 이는 다른 차종으로 이 차를 바라봐야 함을 의미한다.

포르테 2.0이 가벼운 차체와 날렵한 운동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라세티 프리미어 1.8 D는 포르테 2.0과 과감하게 포기한 부분에 더욱 집중했다. 특히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방지대책의 효과로 엔진 소음과 노면의 충격을 우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더 높은 배기량의 포르테보다도 한층더 무거운 공차중량은 고속 주행 시에도 땅에 착 붙는 듯 안정적인다. 급가속 반응은 다소 둔속하다. 동맥이 시트에 밀착되는 듯이 차고 나가는 포르테와는 달리, 탑승자의 몸에 가해지는 관성의 압박을 최소화시키는 가속을 보여준다. 급가속 시의 이 초 정도 차이를 답답하게 느끼는 데도 이보다 분명 많을 것이다. 텍스 기사 아저씨들은 특히나. (그래서 라프는 특사가 별로 없나.)

부러우라고 하는 예가지만, 시승기를 할 땐 보통 연료 연량의 차이를 본다. 그런데 시승 기간 동안 그 기동을 남긴 채 차를 반납하면 반납해 줄 아까운 기름이 든다. 역시 연료가 중요한 건 내 돈으로 기름을 사서 넣었을 때 뿐이다. 그런데 이 녀석, 싸도 싸도 생각보다 기름이 잘 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연비적인 확인이라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라세티 프리미어 1,800cc 모델의 연비가 13.0km/l 인데 배기량 더 높은 1,800cc의 D가 13.3km/l 로 되어 연비가 더 높다.

EQUIPMENT

포르테는 인테리어를 포기하면서 절감한 비용을 철저히 기능적인 면에 쏟아부었다... 고 말한다.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작동하는 내장형 네비게이션.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도어락을 해제하는 스마트키. 주행 안정 시스템 DSC(Dynamic Stability Control), 후방 카메라 영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백미러 등 분명 모두 중증형에서는 생소하지만 매력적인 기능들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본 장착이 아니라 옵션이라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라세티에 비해 매력적인 부분도 분명 있다. 콘솔 박스 안의 USB 포트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차 안에서 나만의 뮤즈박스로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

2010 포르테 2.0 CVT

엔진	2.0세타II 듀얼VVT
배기량	1,996cc
변속기	자동 4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최고속력	150km/h
최대토크	19.8kg·m/4300rpm
공인연비	13.6km/ℓ (2등급)
공차중량	1,187kg

EQUIPMENT

딱 건 돌때지고 시가객이 하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포르테 2.0에 두 개의 시가객이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요새 시가객 허브도 많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저분하다. 게다가 내장형 네비게이션도 없는데 시가객이 중앙 콘솔박스 바로 앞에 있어 전선이 너저분하게 늘어진다든 단점 이 눈에 띈다.

운전자의 몸을 인락하게 감싸주는 세미 버킷시트와 고속 코너링 시에도 몸의 흔들림을 잡아준다. 짐이 좀더 아예 몸의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고 걷는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듯하다. 하지만, 버킷시트는 차 안에서 남자가 딱지기를 할 때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시승차에서 했다는 건 아닙니다.)

2010 라세티 프라이머 1.8 IDENTITY

엔진	1.8 DOHC ECO-TEC
배기량	1,796cc
변속기	자동 6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최고속력	142km/h
최대토크	17.8kg·m/3800rpm
공인연비	13.3km/ℓ (2등급)
공차중량	1,335kg

2011 i30 2.0 VVT

엔진	2.0 VVT
배기량	1979cc
변속기	자동 4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최고속력	143km/h
최대토크	19.0kg·m/4600rpm
공인연비	13.3km/ℓ (2등급)
공차중량	1,290kg



탈락의 변

2009 포르테쿰 2.0 Koup

엔진	2.0 세타 II CVT
배기량	1996cc
변속기	자동 4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최고속력	158km/h
최대토크	20.2kg·m/4300rpm
공인연비	12.9km/ℓ (2등급)
공차중량	1,295kg

2010 카렌스 2.0 가솔린

엔진	세타 2.0
배기량	1996cc
변속기	자동 4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최고속력	150km/h
최대토크	19.8kg·m/4200rpm
공인연비	10.9km/ℓ (3등급)
공차중량	1,500kg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벤

엔진	2.4 LPI
배기량	2,398cc
변속기	수동 5단
연료	LPG
구동방식	후륜구동
최고속력	150km/h
최대토크	23.0kg·m
공인연비	8.0km/ℓ (5등급)
공차중량	1,938kg





KORANDO C

쌍용자동차의 야심작 코란도 C가 드디어 공개됐다. 코란도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삼성의 아이폰 아닌가!
MAXIMI 들뜬 마음으로 아직 출시도 안 된 녀석을 슬쩍 살펴봤다. BY 박상우 IMAGE 쌍용자동차

코란도 C는 2010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모델 중 하나다. 코란도라는 이름은 하나의 차종을 넘어 대한민국 자동차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코란도와 무쏘를 별 고민 없이 단종시켜버린 것으로 꼽을 만큼 스테디셀러기도 하다. (물론 이 친구들의 본래 목적이 먹튀에 있었다면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후속 모델 액티언과 카이런의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쌍용자동차는 옛 영광을 되찾지 못한 채 포지션을 잃어갔고, 그 사이 경쟁사들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다. 이 때문에 지난해 큰 충격을 겪은 쌍용자동차의 매각·인수설이 들려오고 있는 이 시점, 회생의 사명을 맡고 있는 C200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 C200이 코란도 C라는 이름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을 접한 자동차 마니아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2010 부산국제모터쇼에서는 코란도 C의 양산형, 이름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Pure EV(Electric Vehicle), 팝 아티스트 이동기가 제작한 아트카 등 총 3대의 콘셉트 카가 공개됐다. 쌍용 측은 "쌍용자동차 최초의 전륜구동 방식 모노코크(Monocoque) 모델인 코란도 C는 전형적인 SUV의 강인함에 승용차의 편안함을 더한 차세대 CUV(Crossover Utility Vehicle)의 전형"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코란도 C의 브랜드 내일은 국내 최장수 모델로 우리나라 SUV의 역사를 이끌어온 코란도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SUV의 역사를 창출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C는 '세련된, 귀족적인'을 뜻하는 'Classy'와 '우아한 승차감과 정숙성'의 'Comfortable' 그리고 '환경 친화성'의 'Clean'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신차에 대한 자신감과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란도 C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개된 외관은 코란도의 후속 모델 소식에 열광했던 남성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란도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근육 질에 선이 굵은, 미초적인 인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부드러운 곡선이 대체했다. 거기에 프레임 방식을 버리고 모노코크 방식으로 변화한 점은 이제 코란도 C가 오프로드를 벗어나 온로드에 안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코란도의 타깃층이 '남자'가 아닌 '예기 아빠' 인 것이다. 이런 패밀리카 개념의 설계는 판매 영역을 넓히고 대중적으로 다가가겠다는 계산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란도만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고 타깃 층이 모호해지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인간에게 길든 야생마를 보는 것 같이 안타까운 모습이다. 거기에 아트카에서 보여준 장난은 쌍용자동차가 정박할 형구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란도 C는 만루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의 구원투수가 되긴 힘들 전망이다. 타자를 육박자를 빠른 공도,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피르는 변화구도 갖추지 못한 어정쩡한 선수 같다. 정식 시판 후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판매 대수가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겠지만, 정치 상태의 코란도 C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에 불을 지필 요소가 너무나 부족하다. 쌍용자동차는 마니아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코란도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회생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맘내 나는 스포츠맨이었지 송털 보송한 애송이가 아니었던 말이다! 뉴 코란도의 담당함이다 그림다.



남자의 로망

그대 이름은 로봇 피규어

남자는 언제나 슈퍼 로봇을 꿈꾼다!

BY 김상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뉴 로봇킹
고유성 화백의 1979년 작품
(무보트 킹을 현대적인
노장으로 재해석해
탄생한 뉴 로봇킹이다.



08형 '피파' 가 바로 나야!

워하는 사람이야?
네오그레이트란 회사의 워킹모델링 김형삼이다. 모형을 제작하는 08형에서 피파라는 부형명으로 도 활동 중이다.

사건 속 로봇 모형을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다. 정말인가!
레진이란 재료로 부형 해. 나노~까지 직접 제작했다. 그러나 프라모델이 아닌 레진 카트라고 부르는 게 맞다. 나노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까진 멋진 모형을 보고 경의를 금지 못했었다(웃음).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을 만들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집을 줄여가며 만들 경우 대략 1~2개월 정도다.

커스텀 제품인 경우 판매 금액이 만만치 않고 들었다.
사건 속 제품의 경우 700만 원을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마네키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한정판이다. 제작자가 직접 도색했다는 프라이머이 특징이다. 완성품은 30만 원 정도다.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다.

가정 애착이 가는 작품을 해. 난 고르다면? 작년 초에 제작한 우리나라 로봇 '뉴 로보트 킹'이다. 이 녀석을 제작하면서 모형 제작에 대한 시야가 확연히 넓어졌고, 우리나라 슈퍼 로봇에 대한 애정도 한층 깊어졌다.

MAXIME 출연한 소리가 궁금하다. 물론 감독의 딸이었지만.
다이아몬드를 끝내고 고기 반찬을 먹는 기분이야. 완전 험 부는다.

황금날개 ▼
1970~80년 주류집은 최고의 인기 로봇 황금날개 1, 2, 3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 능률한 재탄을 보라!

뉴 로보트 킹 머리 ▲
뉴 로보트 킹의 머리만을 따로 제작했다. 질감적 환을 가진 로보트 킹의 강렬함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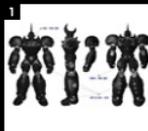


R-JACK ▲
뉴 로보트 킹의 라이벌 R-JACK이다. 머리 양쪽에 달려 있는 날이 포인트다.

HOW IT'S MADE

뉴 로보트 킹 제작기

모형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사실 색도 모르겠다)



1
원작 회사에서 로봇 설정 자료를 받는다. 여기서 전체적인 콘셉트가 결정된다. 무슨 일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법이다.



2
조형 재료를 조직해 나노프 등으로 로봇 형태를 조각한다. 중간에 사모를 이용해 면을 매끄럽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



3
상채 작업이 끝나 후 다리 작업을 한다. 비율에 맞게 다리 길이를 조정해야 제품의 균형이 잡힌다. 팔과 다리 두께가 적절하지도 아예 판단한다.



4
워킹을 만들고 나면 레진 부품으로 조립한 후 부속품이 없는지 점검한다. 이상이 없으면 도색 준비로 넘어간다.



트레이너 강의 ONE POINT FITNESS

〈독한 것들의 진짜 운동법〉의 트레이너 강이 MAXM 독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운동의 '윤' 자도 모르던 당신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위별 운동법을 알려 주겠다. 6개월만 열심히 따라한다면 구멍조각 따우에 위탁하지 않을 멋진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다. 시작은 역시 초콜릿 복근 장착 운동이 좋겠지?

BY 박성우 WORDS BY 트레이너 강 PHOTOGRAPHS BY ARC STUDIO (IMAGE 데려와 제휴 Dreamstime.com)



트레이너 강 김창근

프린세스 피트니스트레이너

〈독한 것들의 진짜 운동법〉 저자

'트레이너 강의 Fitness World' 마스터

'성공 다이어트-비만과의 전쟁'(cale.daum.net/slim) 운영진

복근 운동 난이도 올리는 법

무게를 추가하라

복근 운동이라고 했으므로 하던 법은 없다. 복근 운동도 중량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바벨이나 웨이트를 더한다면 복근에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색다른 자극이란다... 하하하하

손발의 위치를 조절하라

운동 기구나 무게 있는 물건이 없을 때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 손과 발이 몸의 중심로부터 멀어질수록 복근 운동의 난이도는 증가한다.

에어 바이크 Air Bike

운동 목적 전체적인 복근 강화
운동방법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다. 이때 양손은 가볍게 머리를 감싸 받쳐준다.



오른쪽 상체를 비틀어 들어 올리고 동시에 왼쪽 다리를 오른쪽 팔꿈치 쪽으로 당긴다.



상체를 들어 올릴 때 호흡을 내신다. 복직근에 충분한 자극이 느껴질 정도로 강도로 운동을 반복하는 게 포인트. 본인의 체력에 맞춰 좌우를 번갈아가며 10~15회씩 3세트 반복한다.

더블 크런치 Double Crunch

운동 목적 복직근 강화
운동방법

에어 바이크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양손은 가볍게 머리를 감싸 받쳐준다.



허벅지와 상체가 90°를 이루도록 다리를 들어준다. 이때 무릎은 가볍게 굽혀준다.



호흡을 내쉬며 상·하체를 동시에 몸의 중심(통문)으로 올린다. 복직근이 충분히 수축된 걸 느끼고 후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간다. 이 동작을 본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세트 반복한다.

니 업 Knee-up

운동 목적 복직근 하부 강화
운동방법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다.



엉덩이 뒤 쪽에 양손을 받쳐 몸을 고정한다. 몸통과 허벅지 각 90°를 이루도록 굽힌다.



호흡을 내쉬며 양 다리를 몸 쪽으로 당긴다. 복직근 하부의 수축을 충분히 느낀 후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와 동작을 반복한다. 본인의 체력에 맞춰 15~20회씩 3세트 반복한다.

SMART FITNESS

복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대로 알고 꾸준히 따라한다면 하던 초콜릿 복근 정착이 가능하다. "따라만 한다면 말이다" 제대로 된 복근 상식을 트레이너 강이 속 시원하게 밝혀준다.

Q 1 복근 운동은 샵업(뱃통) 일으키기야?

A 착각이다. 샵업을 할 때는 척추 아래 부분의 압력이 가해져서 복근 뿐 아니라 골반 주위 근육이 활성화되지만 샵업은 몸을 움직이는 범위가 90° 정도인데 고강도이 활성화되면 요추 관절의 굽은 30~44°가 된다. 이런 과도한 운동 범위에 따른 충격이 회전하고 안회전 관절이 강질한다. 그렇고도 전신을 고정하면 골반 주위 근육과 다리 앞쪽의 대퇴부 근육 사용이 늘어나 복부만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

Q 2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뱃살이 속 빠질까?

A 복근 운동한다고 복부 지방이 줄어들진 않는다. 복근 운동은

복부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복부 지방을 줄이려면 적절한 식이요법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몸속의 체지방을 줄여야 한다. 복근 운동 하나로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는 일석조의 효과를 누릴 순 없다.

Q 3 복근 운동은 매일해야 한다?

A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는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 해당 근육에 48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복근 운동은 매일 운동을 하라는 사명도 있고, 복부도 근육이나 복근을 위해 하라는 사명도 있다. 사명이다 다르지만 반복하면 복근은 복근이 부위별로 번갈아가며 운동하면 근육에 휴식을 주면서 더 꾸준한 단련이 가능하다. 하나의 근육만 '복직근에 상·하복

부'로 나누어 운동하기보다는, "복직근, 복직근으로 나누어 복근 운동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복직근: 골반에서 허벅지 끝까지 4~5cm로 뻗어 있는 근육, /복근: 몸통 좌우를 떠서 사용하는 근)

Q 4 복근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매일 똑같은 운동은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정 부위의 운동을 지속하면 몸이 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근 운동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크런치를 처음 시작할 때 상·하부에 올린 자극을 느껴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엔 한도도 많고 자극도 적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때 몇 운동의 난이도를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GREAT TIPS!

화상으로 질타기 된 피부의 부활을
가슴으로부터 지원합니다.

SUMMER
ESSENTIALS

SUNSCREEN

PHOTOGRAPH BY JAMIE CHUNG

TIP 1



SPF에 넘어가지 마라
선크림 용기 앞에는 늘
SPF라는 글자와 15, 35,
50 따위의 숫자가 적혀
있다. SPF는 자외선 차
단 지수(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다.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당신이 머릿속에 박아야
할 것은 "SPF 지수 = 별
의미 없음" 이다. SPF 15
는 93%의 자외선을 막는
다는 뜻이며, SPF 30은
97%, SPF 50은 98%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결론은, 15 위로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도핀
개편이라는 것.

TIP 2



얼굴을 짚는 노력
자외선 차단제에는 자외
선 안감이나 무서운 농들
이 투입된다. 먼저 니트
로벤조산이라는 농은 피
부 표면의 단백질질을 녹여
모공을 넓히고, 시나메이
트는 피부염을 유발한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니
트로이소시아테모늄이
라는 이름의 자외선 차단
물질은 지방 분해 능력
이 있는데, 자방이 분해
될 때 피부도 쉽게 변한
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각
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대기 중이다.

TIP 3



당근이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귀찮고, 많이 바르
면 피부에 안 좋구나! 평
소에 피부를 튼튼하게 만
드는 게 최고다. 베타 카
로틴은 태양빛 때문에 손
상된 피부를 지켜주는 물
질인데, 주로 당근에 들
어있다. 그러니 올 여름
엔 당근 많이 먹자. 영생
원장 가고와!



TIP 4



불을 끄자
이 화상이, 결국 화상을
입었구나. 진통해열제에
들어가는 이부프로펜은
단백질 손상을 빨리 회
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
다. 이것을 얼굴에 바르
고 싹뜨기 치료 이물 씻
어내라. 싹뜨기 치는 말
의 괴리처럼 생긴 허브로
실리카리는 힐링 포션이
함유되어 회복을 돕는다.
땀뿌며 물 많이 먹고 피
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라.
이걸 핑계로 그에게
"전신에 침 발라달라"
고 부탁이나 해볼까?

TIP 5



술고 가리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외선을 피하려면 그
늘을 찾거나 옷으로 가리
는 게 최고" 라고 말했다.
자외선이 섬유유 미세한
구멍을 뚫고 들어오긴 하
겠지만 그래도 가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땀뿌며
선탄을 (할 돈도 없지만)
차제하고 선글라스, 선
캡, 긴팔 옷을 착용하자.
참고로 얼굴에 쏟아지는
자외선을 방어하기엔 얼
굴 다 가리는 '어니션
캡' 이 최고다. 게다가 얼
굴도 더 잘생겨 보인다.

TIP 6



이도 저도 안 되면...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와 더불어 피부암,
각각의 손상이라는 새 친구
가 생길지 모른다. 영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으로 사망하는 남자가 늘
고 있다는 뉴스, 아직 못
봤나? 그러다 지네 죽네,
피부암의 경우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우리는
그만큼 검은 피부의 친구
를 잘마고 걸질을 입고
다녀라. 니가 어떻게 흑
인의 탈을 쓰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ICON

BY GAVIN EDWARDS

IMAGE JACK WHITE/Getty Images/겔라티오

Jack White

화이트 스트라이프와 레곤티스, 이 두 밴드에선 기타를 찾고 최근에 데드 웨더라는 그룹에선 드럼을 연주했다. 기타와 드럼 둘 중 본인은 훨씬 좋아하는 것 같다. 일단 드러머 자리에 앉게 돼서 기쁘다. 어릴 땐 스스로를 기타리스트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다. 드러머는 멋진 것 같다. 지미 헨드릭스 익스피리언스(지미 헨드릭스의 밴드)의 미치 마텔, 제프 드러머 진 코쿠파 같은 드러머는 지나 멋지지 않다. 그리고 또 웃긴 게, 기타 연주자는 엄청 실력이 좋아도 큰 주목을 못 받는다. 예를 들어 기타를 엄청 잘 치는 프란스가 왜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당신네 음반 [검정야의 바다(Sea of Cowards)]처럼 당신도 검정야인가?
전혀 아니다. 큰 내기 해도 좋다. 난 비겁한 사람을 목격하면 그 사람을 꼭 폭리세워야 직성이 풀린다. 특히 온라인은 자기만의 작은 공간에 몰아박혀 진짜 자기 얼굴을 숨기는 비겁한 사람 천지다. 난 그런 걸 무척 경멸한다. 아마 내 내면에 검정야를 온 건다는 암시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번엔 데드 웨더의 데뷔 음반보다 작업하기 수월했을 것 같다.
월선 쉬웠다. 단순히 우리 모두 '우리 음반을 만들고 있다' 는 걸 잊고 있었고 때때로 차분한 펄 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했다. 그냥 7인짜리 싱클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난 동시에 화이트 스트라이프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액트 세츠까지 만들고 있었다.

부지런하다. 보기보다 말이다.
내가 이런 작업을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난 예술이 완성되어야 그때 적극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내이자 모델인 카렌 엘슨의 데뷔 음반 [걷는 유령(The Ghost Who Walks)]을 프로듀스하기도 했다. 마누라와 음반을 같이 만들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나 빠지나? (*'잭 화이트는 화이트 스트라이프 시절 여성 드러머 맥 화이트와 결혼했다 이혼한 경력이 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결국 그녀는 내 스튜디오에 들어 기타를 만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날 위해 자기 노래 몇 개를 연주하게 되어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 이거 녹음해야겠다' 는 말이 튀어 나왔다.

작년 초 기타에 관한 다큐멘터리 [마 이 및 라이드(I Might Get Loud)]에서 당신은 지미 페이츠와 U2의 디 에지를 포크로 연주 비법을 알아내고 싶다고 했다. 성공했나?
그럼 뭐든 다 경험으로 배우는 거다. 영화 만드는 사람이 우리끼리 서로의 곡을 가르쳐주는 장면도 촬영했다. 정말 웃겼다. 내가 지미 페이츠와 디 에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다니! 심지어 거기 나온 10명의 기타리스트 중 내가 가장이었다. 형님에게 뭔가를 어떻게 하는지 지도하는 모습이라니 웃기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 펄 가르쳐줬나?
별로 없다.

당신 가족도 당신처럼 백악한가?
우리 가족은 진짜 웃겼다. 백악한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우리

네 번의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그런지 록 밴드 화이트 스트라이프. 일명 흰 줄.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 기타 하나, 드럼 하나로 무심하게 연주하는 모습에기가 찼다. 하지만 들을수록 빠지는 사운드와 꽤 매력적이고 천재적이니까지 하다. 이 밴드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 잭 화이트는 엄청난 자기 밴드 뇌두고 '데드 웨더(Dead Weather)' 라는 이름도 우울한 밴드를 만들어 드럼(을) 두드었다. 보컬, 작곡가, 프로듀서 그리고 음반사 사장 자리도 모자라 구리 구리 일까지 하는 욕심 많은 잭 화이트. 그가 궁금하다.

가족 사이에서 엄청 씹힐 거다. 다행히 난 그런 어두운 유머를 좋아한다.

화이트 스트라이프로 성공하기 전, 당신은 가수 수리하는 일로 먹고살았다. 소파가 고장 나면 직접 고치나?
한동안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 거의 10년 만의 일이다. 집에 창고를 개조해서 재재대를 뒀다. 스튜디오의 벽도 내가 직접 만들어 세웠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들 날 독불장군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래저대로 명령해서 회의를 느끼는 인간이 아니다. 어떤 어떤 아예 사운드의 예고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말해야 할 때 그런 요구를 큰 소리로 전달하는 걸 싫어한다. 물론 나는 일을 완벽하게 마치야 직성이 풀리지만 결론은 내색하지 않는다.

동물 박제를 모으고도 들었다.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다. 마치 구운돈체 구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박제 동물에는 마력이 있어 나로 하여금 보존하고 싶게 만든다. 박제를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박제 수집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몹시 모욕적이다. 그들은 나에게 당구를 치는 다람쥐 같은 쓰레기를 선물했잖.

음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방 놓은 적이 있나?
아니, 그 정도로 심하지 않다. 그리고 이

미 내 인생에 굴곡은 충분히 많다. 물론 적의 명단은 이미 충분히 쌓였지만, 사실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에 대해 듣고 싶다.
몇 번 있다. 한번은 자동차 사고 때문에 손가락이 산산조각 났다. 몇 년 전엔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그 정도?

인터넷이나 사진 촬영이 가식적으로 느껴지진 않나?
예전엔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인터넷을 하고 돌아서서자마자 후회하고 했다. 마치 콘서트 티켓 몇 장 더 팔려고 내 자신을 사운드 바이트로 잘게 쪼개서 팔려고 하는 느낌이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촬영을 일종의 거대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저녁을 먹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오도 되잖나? 예 모라는 사람이 7명과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그런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 "대체 이런 걸 어떻게 건다는 거야?" 5. 6번 전만 해도 누가 나에게 사진 좀 같이 찍어달라고 하면 까지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뭔가 변했다. 근데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가 지미 페이지와 로디 에지에게 기타를 가르치다니 웃기지 않나?"



황당 死因

미국에서 이렇게 죽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by 김선민

01



인체 자연 발화

열혈 만화의 대사처럼 사람이 불타오르는 게다. 재미있는 건 사람의 손발은 안 타고 몸통만 불타 재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1979년 미국의 뉴저지 주에 살던 건 축업자는 자동차를 타고 공사 현장을 지내는 길에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다. 그의 몸통은 뼈까지 타고 재만 남았지만 안고 있던 아이폰이, 새츠는 불에 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당시 생미 정통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

03



운동

아구나 농구를 하다가 저승사자와 조인하는 경우도 많다. 1909년 샌프란시스코의 윌스 핑크, 1920년 콜리버랜드의 레이 채프먼은 투수가 던진 볼에 저승령 특급광사해 당했다. 농구도 그렇고. 1990년 이후 미국에선 57명의 어린이가 덩크슛을 시도하다가 골대의 그물망에 목이 걸려 죽었다. 말 그대로 휴스!

04



피어싱

미국 오클리호마 시에 살던 19세 새해이기가 운전 도중 사소한 접촉 사고를 냈다. 문제는 이 남자가 하고 있던 피어싱이 피어싱이었다. 사고 과정에서 머릿이 그의 돌돌이를 꼬치처럼 꿰뚫었다. 백 결과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무리 피어싱이 플러리도 돌돌이에 하는 건 자체하자. 당시 돌돌이는 무조건 안드로타이다.

06



벨린타인데이

벨린타인데이가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1939년 미국에 살던 클라라 헤이스의 데이비드 헤이스는 벨린타인데이에 결혼에 성공했다. 10년 뒤 아내 클라라는 결혼 기념 파티를 한 호텔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나오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초콜릿 대신 자동차 바퀴를 남편을 세 차례 마차에 태웠다. 그리고 2001년 벨린타인데이에 징역 20년 형을 받도록 받았다. 흑 역사 비 밝는 건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게다.

08



흡연

2003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던 한 남자는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는 골초였다. 목구멍 중앙 제거 수술을 받고서도 담배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라이터를 켜 한도 없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웠고 그 난로물에 불 붙이기를 시도했다. 그러다 실수로 담배가 아닌 병대에 불이 옮겨붙자 불 붙 거제도 없던 그는 집과 자신의 목신을 그대로 사신에게 봉헌했다. 담뱃불을 빌려주는 친절한 사원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10



코 굽기

2004년 러시아의 경연 무대는 권총으로 코를 굽다 방어심을 잘못 당겨 하늘나라로 떠났다. 하긴 존슨을 굽다가 고자가 되는 것보다 코를 굽다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02



목 조르기

영화 《피오르는 태양》을 보면 선견계 도중 여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온다. 2004년 미국에선 정식 상태에서 오르가슴을 느끼다가 124명이 사망했다. 《강남에 출연한 데이비드 캐비던도 목을 맨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즐기다가 2009년 태국 방콕의 호텔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애 생각만 해도 X할린다.

05



코쿰

상적 만족을 업고에이드하기 위해 카타리 비닐봉지 안에 스스로 코쿰과 처차림 들어가는 인간들이 있다. 2002년 미국 콜로라도 주의 한 남자는 비닐 봉지 안에 들어가 내부 공기를 모두 빼낸 후 스스로를 비닐 봉지를 마미미 자위행위를 했다. 하지만 흥이 지나쳤는지 입에 문 스스로를 놓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비닐을 찢고서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인간 예멸에는 사체로 변태하여 반대 인생을 마감했다.

07



불인

미국 워싱턴 주 몬태나주에 살던 로이 매시저는 운전 중 실수로 전봇대를 들이 받았다. 아까진 괜찮았다. 문제는 매시저가 사고 현장으로 가면서 도착하기 전에 불이 급해서 고압 전압으로 오물을 걸었다는 게다. 오물이 배설 기능을 하는 바람에 고압 전류가 그를 한 마리 전기구이 통닭으로 만들었다. 남자는 늘 불을 조심해야 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09



허물

허물이 무서운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사실은 2004년 미국에서 허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1,400명이 사망했다는 게다. 자취한 사람과 단둥이 차를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겠지? 1999년 7월 호주 퀘브랜에서 한 여자가 허물을 때 질베의 딱딱한 경기가 입안으로 밀려져 세상과 하직 한 경우도 있다.

11



비디오게임

2003년 9월 미국 테세라 주에 살던 14, 16세 형제는 게임 (GTA(Grand Theft Auto))에 목 빠졌다. 부모가 주말 게임만 볼것고 있는 형제를 밖으로 내쫓자 두 형제는 노트북으로 고속도로의 차를 상태로 충돌을 난사했다. 그 결과 운전자 2명이 사망했고, 게임 제작사 록스타는 게임에 18세 미만 구입 불가 딱지를 붙여야 했다. 하지만 체포된 그들은 그저 게임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고 급하게 대답했다. 정말 이라니가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징상했자 우습기는 거라지!

2003년 미국에서 게임 (포켓몬스터)를 즐기던 아이들에게 간직하려 보이는 빛작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빛작 증세로 무려 5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게임 제작사 록스타는 이미 간식을 알고 있는 아이였을 거라에 약속했다. (포켓몬스터)가 이렇게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게임인 줄은 미처 몰랐다. 지금 당장 닌텐도 DS에서 (포켓몬스터) 판매를 제거하자!

12



떡

아깝게도 그 떡이 아니다. 1965년 이후 미국에서 떡을 먹다가 질식사 사망한 사람은 160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에 사는 일본인이며 참깨떡이 기록되어 아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상주 정장진 씨가 KBS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중 가래떡 먹기 게임을 하다가 떡이 목에 걸려 사망했다. 잊지 말자, 급하게 찌는 떡이 후회를 부르고, 급하게 먹는 떡은 죽음을 부르는 법이다.

13



잡

비공식적인 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죽음으로 제재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 환자를 저용길로 보내는 의료사고가 전체의 48%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금적인 연구는 필요일에 받아야, 실제로 수술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날도 필요일이다. 의사의 정신이 양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날이라고 해해해도 될 거다. 마에이션 죽음원인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도 해해 5천 명에 달한다.

14



오일 색소

아자와 오일 색소를 합쳐 공기방울을 불어오면 끈다. 공기가 불꽃 속 에 들어간거 기포를 생성하는대 이 기포가 불꽃을 막는 색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 색진동이 발생하면 한 방에 저용으로 고상할지도 모른다. 끝만 부주의 할때 음극이 증가하면 인산부는 더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해 90명의 여성이 오일 색소 중에 색진동으로 사망한다. 이번 거진 정신이 아니라고!

15



아식

잠을 자는 도중에 음식을 먹는 증상이 아직 중후군이다. 1966년 미국 로크모어랜드 주에 살던 여자는 아식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낮 동안 초장진 소식小食을 했음에도 사달만 에 몸무게가 30kg이나 늘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남편은 식탁에 떨어진 채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냉고와 식욕을 저하할 때 모든 음식은 밀봉포개 버려진 상태였다. 그와 유사하다. 간드 먹고 죽었다는 귀신도 아무도 때로 하는 종이었다. 미국에서는 1975년 이후 지금까지 동양병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죽은 사람이 5306명에 달한다. 한번 장지에 떨어진 누가 물어 가도 모르는 당신의 잠버릇이 축복만인 사람이 이제 많겠지?

16



Holy crap! It's a bomb! - oh, wait... it's not.

검

2009년 우라리아나 한 청년은 검을 싣다 사망했다. 그는 책상 위 구멍선에 검을 담겨두는 버릇이 있었는데 실수로 알 수 없는 물질에 담겨든 검이 는 도중 폭발했다. 검집이 바빠 봤자 없애나 한다고.

18



수중전

1948년 6월 30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진행된 야구 경기는 악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도 끝까지 않고 진행되었다. 결국 1루와 2루 사이에 응덩이를 만들 만큼 강력한 비가 내리쳤고 선수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2001년 삼성 라이온즈와 현대 유니콘스의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도 야구대 치열한 수중 야구를 펼친 그 의자가 놀라움 따름이다.

19



무더위

2006년 8월 5일 경기도 구리에서는 더위를 피해 악티리로 물을 뜨러 갔던 58세 주민이 물을 마시다 숨졌다. 이에 질서나 부산 에는 워터 때문에 잠자리에서 뒤떨어진 경찰관 이 찬물로 샤워하다 사망 미바로 숨졌다. 덥다고 오 버러다간 저승 가기 싫삼 아니 주의하자!

17



지하철

미국의 정신 나간 젊은이들은 지하철 지붕 위에 올라타 빠르게 다가오는 기차를 피하는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당시 2003년 10대 청소년 5명이 김민과 키스한 후 자해상으로 나타났다. 1999년 미국 뉴욕 시의 22쌍이 지하철역에서 정신 이 만드러내다로 난감자가 전 동차를 기다리던 여자를 선로 에 밀어트려 죽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노숙자 자해 철 수사에 직면의 아내를 선로 에 밀어트려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지하철공사에서 용을 쓰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

20



놀이터

놀이터가 안전하다고? 미국에서는 1999~2000년 2년 동안 15세 이하 어린이 147명이 놀이터에서 사망했다. 놀다가 풀린 신발 끈 개죽을 옷 에 달린 줄에 목이 묶려 사망한 사고가 전체의 50%에 달한다. 심지어 2005년 에는 정음점에서 카펫이나 공중제비를 놀다가 7명이 사망한 일도 있다.

SELITA EBANKS



VICTORIA'S SEXIEST SECRET

셀리타 이뱅크스

빅토리아 시크릿을 장식하는 슈퍼모델 셀리타 이뱅크스가 이열치열의 지혜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자 이 더위를 잊을 정도의 뜨거운 자세를 당신 앞에 선보인다.

BY MIKE DAWSON PHOTOGRAPHS BY CHRIS FORTUNA





“ 집에 팬티와 브래지어만 보관하는 커다란 방이 있어요.”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이니 속옷 사람에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꼭 차있겠군요.

오, 하니, 그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집엔 팬티와 브래지어 이외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방이 하나 있어요. 나도 말이에요. 약간 미친 소리 같죠?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언더웨어를 좋아하죠?

모, 모든 스타일을... 흠흠, 그럼 당신은 지금 뭘 입고 있죠?

작고 귀여운 자-스트링이요. 메시 소재인데 알고 작은 끈이 달렸어요. 난 자-스트링이 좋아요.

또 뭘 좋아하죠?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들이 입는 짧은 사각 속옷 같은 보이쇼츠 스타일도 좋아해요. 보이쇼츠를 입으면 아래로 약간 엉덩이 끝이 비치잖아요. 그게 약간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색시하죠.

역시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은 뭔가 다르군요.

그리고 가랑이가 드러 있는 스타일의 크리올리스스(Corchless) 팬티도 아주 색시해요. 하지만 요즘은 별로 입을 일이 없네요. 이게 쓸모 있을 때가 한참 전이니까.

아니, 솔까 지금 당신이 상급이란 말인가요? 난 일백만 상급이에요. 마지막으로 연애했던 지 정말 오래되었네요. 거의 다시 숫처녀로 거듭난 거나 다름없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려면 만나줄 수 있나요?

난 다이아몬드 같은 걸 좋아하지만 그런 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부자일 필요도 없어요.

늘 나이지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좋아요. 만약 당신이 더 나은 남자가 되려고 분투한다면 나도 더 나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르니까요.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당신은 소파에 영영이를 붙이고 늘어지게 앉아 TV에서 하는 시답잡은 리얼리티 쇼나 토크쇼만 보고 있다면 우린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꼭 부자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행을 가거나 저녁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매번 돈을 다 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모텔 일을 하면서 겪은 흥미로운 일은 뭔가요?

몇 년 전에 어떤 파티에 갔어요. 여자들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었죠.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배가 고프니 모로코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린 그리로 공항에 가서 전용기에 올라탔죠. 파티 장소들 모로코로 옮긴 거죠. 우린 저녁을 먹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정말 미쳤죠. 이걸 우리 아바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 난 완벽한 싱글이에요.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 정말 오래되었네요.”





촬영장 침투하기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언더웨어를 좋아하죠?
난 자-스트링을 좋아해요.”

UNDER WORLD

여자 속옷 이름 알아맞히기

여자를 이해하려면 속부터 알아야 한다.



정답: 제로 모두 정답을 맞혔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네.

1 자-스트링(G-String) 2 타-백(T-Back) 3 브이-스트링(V-String) 4 시-스트링(C-String)

ICON

BY 김성현
PHOTOGRAPH BY ARC STUDIO

Ryu Hyun Jin

괴물을 넘어서 전설로

2006년처럼 투수 트리플 크라운(다승, 방어율, 탈삼진 1위)을 달성할 기대다. 최훈(7) 비결이 궁금하다.

작년에는 WBC 때문에 페이스를 급하게 올렸다가 시즌 중에 고생을 많이 했다. 올해는 시즌에 맞춰 페이스를 끌어올렸는데 그게 유효했다.

공교롭게도 그때처럼 이대호 선수도 타자 트리플 크라운(타율, 타점, 홈런 1위)에 도전할 만큼 타격 성적이 좋다. 두 선수 모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경우 MVP는 누구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하나요?

이번에도 내가 받을 거다(웃음).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나. 물론 MVP만 상이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좀더 많이 감사히 받도록 하겠다. 아니 '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야능 소화 능력은 우리나라 투수 중 최고다. 올해 페이스라면 2007년 리오스(당시 투수)가 기록한 234승 이상을 돌파하는 것도 불가능해보이지 않는다. 속사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

있다. 최근엔 등판 후 휴식일도 1~2일 정도 늘었다.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 투구 야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어깨를 수술한 선수치고는 너무 강한 답변이다. 원래 수술 후 재활만 잘하면 예전보다 어깨가 더 강해진다. 그리고 어깨 수술을 했다고 괜히 정신적으로 위축될 필요도 없지 않나?

2009년에 200이닝 가까이 소화한 투수가 이렇게 구속이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다.

작년보다 방어율을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누اعة 주자가 있을 때는 강하게 던지기 위해 집중한다.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겹겠지만 9이닝 17K를 잡은 지난 5월 11일 LG 트윈스와 경기에 대해서 잠깐 말해보자. 그날 경기에 우익수 방향으로 공이 한 번도 날아가지 않았다. 에디터가 우익수를 봐도 봤을 정도다. 게임이 끝나고서야 알았다. 정말 드문 케이스네 신기하다.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남들은 하나도 제대로 던지기 힘들다는 체인지업을 상황에 맞게 두 종류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구대성 선배의 지도 덕분이야. 아니면 본인의 자질이 원래 뛰어난 건가?

반반이다. 구대성 선배님은 체인지업 그림을 잡는 법만 가르쳐주셨다. 내가 천재라서 체인지업을 잘 던진단 소리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지금까지 살면서 마운드에서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 있나? 마운드에서 당신은 언제나 침착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결승전 9회 말 1위가 찾아왔는데 그제 빨리 이번 기회가 마감됐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한 마디로 끔찍했다.

해외 진출을 한다면 일본을 거친 후 메이저리그로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가서 적응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는 없다. 오히려 외국어가 걱정이다. 뭐, 그것도 한 팀에서 지내다 보면 차츰 익숙해지겠지 만 말이다.

2006년 입단 당시 2차 지명은 받은 게 분명해서 최고 투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최고 투수가 된 지금 이 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노히트 노런 그리고 퍼펙트 게임이다.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송진우 선배님. 철저한 자기 관리로 오랫동안 선수로 통권하셨다.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

2010년 광주우 야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프로 선수라면 시즌을 소화하면서 국가대표로 공을 던진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깨는 거다. 나라가 부르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는 게 당연한 거다.

김현수, 김중주, 이대호 선수가 까다로운 타자라고 밝혔다. 그 인터뷰 이후 그들과의 상대 전적을 알고 있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웃음). 세 선수 모두 내가 어떤 코스로 공을 던져도 기막히게 쳐낸다. 그러나 넌을 어찌겠다.

사구를 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져라" 다른 건 필요 없다.

MAXIM과 색다른 여자가 친목 등장하는 멋진 화보의 주인공이 될 생각 없나?

구단과 의논할 문제다. 내 의지와 상관없다. 알겠나? "구단과 의논할 문제다!"

을 시즌 확실한 몸매가 좋자이다. 몸매 관리에 신경 써야 할 7월이나 MAXIM 독자에게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주면 고맙겠다.

다이어트에 비법이라니! 당신이 유산소 운동과 식이요법만 꾸준히 병행하면 살은 빠지게 돼 있다.

당신에 왜 월드컵이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정말 재밌게 봤다. 하지만 그 의의 월드컵은 그 기간에만 관심이 생기는 행사일 뿐이다.

필수 알고 지내는 축구 선수는 있나?

연락하고 지내던 선수는 있다. 영기준 선수와는 2006년 같은 매체에서 인터뷰 한 후 종종 연락했었다. 하지만 내가 후대론을 일어버린 후 전화번호가 증발해서 최근에는 연락 두절 모드다.

마지막으로 MAXIM에서 다음 인터뷰 대상으로 지목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나랑 친한 롯데의 이대호 선수. 부산 사나이로 말도 잘하나 재미있을 거다. 단 낯선 사람에게는 까칠한 포스가 적절하니 인터뷰할 때 조심해야 할 거다.



“섹시 화보 촬영은 구단과 논의할 문제다!”

화
건설

WHAT'S YOUR FAVORITE?

녹차 아이스크림 비교 분석

그녀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선 당신이 유리벽 뒤 31가지 아이스크림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낯선 모습을 보일까봐 걱정되어,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대신 먹어봤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허를 식혀줄 아이스크림 4종. 그것도 여자에게 가장 인기 있다는 녹차 및 아이스크림을 회사별로 직접 먹어봤다. ※ 이 우리 돈 내고 먹은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길. 궁금하면 직접 사서 드셔보시지요.

BY 박상우 ASSISTANT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하겐다즈

₩당 가격 433원 / ₩당 칼로리 24cal

가장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 카페, 와플 전문점 등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기도 하다. 물론 비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쓰는 만큼 와플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지사. '된장녀의 아이스크림'이라는 편견은 그 때때로. 하지만 하겐다즈의 녹차 아이스크림은 그 자체로 훌륭한 맛을 보여준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에 녹차 특유의 씹쓸함은 덜하다. 먹어보면 왜 다들 하겐다즈~ 하겐다즈~ 하는지 알게 될 것.

색	★★★★☆
질감	★★★★★
단맛	★★★★
녹차 맛	★★★★

나두루

₩당 가격 33원 / ₩당 칼로리 24cal

하겐다즈와 함께 녹차 아이스크림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나두루!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훌륭하다. 단맛과 녹차 맛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질감도 좋지 만 단맛이 좀 더 강하다. 맛은 있지만 푹푹한 맛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한계가 약간 아쉽다.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과는 다른 색깔을 보여줌으로써 취향이 갈린다. 그만큼 어느 쪽의 손을 번쩍 들어주기도 난감한 상황. 그래도 나두루는 광고 모델로 이나영, 한지민에 못내려까지 썼으니까 더 훌륭한 아이스크림일거야!

색	★★★★
질감	★★★★★
단맛	★★★★★
녹차 맛	★★★★



골드스톤

₩당 가격 336원 / ₩당 칼로리 47cal 미음

아이스크림 업계의 신종 강호 골드스톤! 다양한 맛을 내는 토핑과 시각을 자극하는 퍼포먼스로 국내에서 급격하게 세를 불리는 중이다. 하지만 녹차 아이스크림에서만 쓴 녹차 맛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부족했다는 인상이다. 풍동 맛이 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음... MAXIM은 골드스톤에 간 당신에게 녹차 맛이 아닌 다른 아이스크림을 추천한다.

색	★★★★☆
질감	★★★★★
단맛	★★★★★
녹차 맛	★★★★☆

베스키라빈스

₩당 가격 217원 / ₩당 칼로리 21cal

베스키라빈스의 녹차 아이스크림은 다른 3개 회사에 비해 화려하게 진한 색을 가지고 있다. 또 또한 분명하게 녹차를 강조한 진한 맛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진한 색과 맛은 인공적이라는 인상도 준다. 약간 텁텁하고 프리마 같은 맛이 난다는 평가도 있다.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이 높으나 미니야충도 생각할 수 있는 신비로운 아이스크림. '찰떡이시' 맛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색	★★★★☆
질감	★★★★★
단맛	★★★★★
녹차 맛	★★★★★

J SEXY, SEXIER, SEXIST



오늘도 '어제처럼' 뮤지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스러운 그녀를 만났다.

BY 고정희 WORDS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정은 ASSISTANT 조정민

시스루 화이트 민스레 티셔츠
CLUB MONACO
네이비 컬러 비키니
TOMMY HILFINGER
골드 체인 벨트 VOV
네이비 컬러 스커트
TOMBOYEANS
블랙 슈즈
Namu by namuhana



시트로 향이트 민소매 티셔츠
CLUB MONACO
네이비 컬러 바키니
TOMMY HILFGER
네이비 컬러 스커트
TOMBOYJEANS



귀걸이 ORSA
볼매 컬러 캡스커피 원피스
ILMOSTREET
볼매 슈즈
Namu by namuhana

골드 귀걸이 ignis
네이비 컬러 롱 핀라스
CLUB MONACO
슬리퍼 반지 Jamie&Bell
화이트 슈즈
codes combine



〈아래 사진〉
시스루 화이트 핀라스 티셔츠
CLUB MONACO

벨 장식 반지 Gaia
블랙 가죽 팔 TOPGIRL



1988년 그룹 구피, 스티브 유가 주름잡던 시절 'Goodbye'란 노래로 데뷔했다.

그들과 같은 소속사였다. 그리고 보니 나도 벌써 데뷔 12년치의 중년 가수다.

하지만 방송 출연이 뜸해서인지 요즘엔 당신을 모르는 친구도 많다.

19세에 데뷔할 땐 보이나 원더걸스처럼 해외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지금도 매해 꾸준히 음반은 내놓는다. 다만 방송에 얼굴을 비치지 않으니까 쉬는 줄 아는 사람이 태반이다. 작년에 디지털 싱글 음반을 발매했을 때 유료 음원 사이트에 "신인가수 제이?" "노래 좋네"라는 댓글도 달았다(웃음). 10대 친구에게도 내 음악이 충분히 먹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다.

이창에 2월에 내놓은 〈SENTIMENTAL〉이란 음반에 대한 소기도 간단히 부탁한다.

제의 스타일을 고수한 음반이다. 최근 유행에 맞춘서 작업하려 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 진도가 안 나갔다. 평소처럼 울드 R&B 스타일로 들어가니 3개월 만에 작업이 끝나더라.

간만에 나온 정규 음반이었는데 음반 사진의 포토샵 논란, 뮤직비디오의 선정성 등 음반 외적인 것으로 구설에 올랐다. 속상하지 않았나? 이들이 대세인 음악편이다. 냉정히 말해 방송에 자주 얼굴도 비치지 않는 내가 음반을 내놔야 일주일도 안 돼서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진다. 그런 가심성 기사를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내 음반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작년에 디지털 싱글 음반을 내놨는데 사람들이 음반이 나온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게 더 슬프다.

소속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 2년이 걸렸다. 다들 나와 계약할지를 놓고 늘 망설였다. 내 음악은 좋지만 대중에게 잘 먹힐지가 고민이었던 거다. 이번 소속사는 지인과 작업하는 도중에 연이 들어서 들어오게 됐다. 고마운 분들이다.

역시 음악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뮤지션 입장에서 고민도 많았다.

음악적 욕심과 대중이 원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 이번 음반을 통해 느낀 바가 많다. 다음 정규 음반이 나오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골라드릴 거다. 방송에 나오지 않으니까 만나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방송에 안 나오세요?"라는 질문만 한다. 내가 음반을 내놓으면 뭐하나. 대중은 음반이 나온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한때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했다. 그때가 그리진 않나?

전혀 난 연예인이 되고픈 게 아니다. 음악이 하고 싶은 뿐이다. 나로서는 음반은 풀리니까 팔리고, 음악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가수 제이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베스트다.

카키 컬러 상의 TANKUS
블랙 언더웨어
Reamadonna
블랙 비키니
EMPORIO ARMANI
블랙 실루에트 심비 장식 펌피
TOPGRL
실버 힐링 반지 Jamie&Bell
블랙 싸이하이 부츠 Gaia



MAXIMO가 당시 팬이던 사실을 입증하겠다. 2008년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음반의 수록곡 '술과 순정'이란 노래는 편집부 예창곡 No.10이다. 특히 여자들의 반응이 끝내준다.

여자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시절 상처를 1~2번 받았을 때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아픔 또한 나름 새롭다. 하지만 서른이 넘은 나이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지친다. 사랑에 대한 믿음도 깨지고 그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여자가 솔직하게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니까.

당신도 요즘 데세인 트위터에 꼭 빠져 있다고 들었다.

TBS 교통방송에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계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영어 방송인데 트위터를 이용한 코너가 있다. 그 때문에 트위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마니아가 됐다.

새벽 1시에 시작하는 방송인데 체력적으로 부담되진 않나?

영어 방송이라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 기회다. 업무를 끝낸 후 편한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 부담도 없다. 아바 매니저가 힘들 거다. 영어로 된 방송을 2시간이나 하면서 새벽 3시까지 버티야 하니까(웃음).

MAXIM 화보를 찍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타이밍이 좋았다.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연락이 왔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MAXIM 화보를 찍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다. 사실 MAXIM 독자가 30대 절반 여자들 좋아할까만 생각도 했다(웃음).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음악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을 10년째 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음악을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다. 시장이 변했는데 나만 그대로 밀쳐 있을 순 없다. 좋은 음악을 만들고, 사람에게 많이 알려고, 공연도 열심히 할 생각이야.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상형이 궁금하다.

이소룡! 그의 강렬한 눈빛은 최고다. 남자는 남지다워야 한다. 꽃미남 따위 가나 쥘라. 했지? 이제 인터뷰 끝내자. 당신도 우리나라의 월드컵 첫 경기는 봐야 할 것 아니냐!

아.. 알겠다. 오늘 인터뷰 고맙다.

(그리고 MAXIM 스태프 전원은 제이와 함께 족발을 먹으며 월드컵 한국-그리스전을 관전했다. 이 인터뷰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터덜터덜 돌아온 에디터만 빼고)



골드 목걸이 James&Bell
화이트 반소매 티셔츠
Hugoboss
리본 끈이 TOPGRL
골드 벨크로 골드 반지
James&Bell
스츠 adidas Originals
레이피드 패턴 슈즈 Gaia



발레 댄스 Gaia
발레 스포츠 가인 소장
발레 부츠
Namu by namuhana

읽어
좀 읽고 나.

경제 신문 제대로 읽는 법

부자가 되고 싶나? 경제 신문에 길이 있다.

BY 김기호 WORDS BY 안정훈
IMAGES 모든 이미지(Dreamstime.com)



안정훈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삼성물산을 거쳐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를 두루 출입했다.

3. 신문은 습관이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경제를 좀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꾸준히 경제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자. 물론 바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숙취에 주 4일을 광고 읽다가도 금요일 밤만 되면 클럽만큼은 꼭 가야 하는 것처럼 신문 읽는 습관도 체화하라. 화장실에서 MAXIM만 보지 말고 경제 신문 한 부쯤은 비치하여 통 볼 때마다 훑어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번 습관 들이기 시작하면 경제 신문과 가까워진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4. 신문을 골이골대로 읽지 마라

신문 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사는 크게 사실 전달 기사와 현상에 대한 분석 기사로 나뉜다. 특히 후자의 기사를 볼 때는 좀 더 머리를 굴리면서 읽어야 한다. 당신이 아는 경제 지식을 총동원해서 기사가 제시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능동적으로 분석하면서 읽어야 한다. 기사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지는 않나라는 기자 기사의 방향과 반대로 애당초 잘못된 기사를 게재하면 안 된다.

1. 흐름을 잡아라

경제는 살아 움직인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경제도 매일 움직이게 마련이다. 어제 상한가를 쳤던 주식이 오늘 난데없이 하락가를 칠 수도 있다. 한국 경제 잘나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 같은데 갑자기 원화 가치가 급부락될지기도 한다. 정신을 놓고 있다가 '난데없이 경제가 왜 불안해지지?' 라는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급변하는 경제 현상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 주는 게 좋다. 주요 기사는 따로 스크랩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즐겨찾기를 해놓는 게 좋다. 주기적으로 쌓아놓은 기사를 리뷰하면서 경제 흐름에 대한 감을 유지하자.

2. 생소한 용어는 반드시 정리하라

경제 개막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어부터 정복해야 한다.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답답할 때가 바로 단어를 모를 때다. 낱생 처음 보는 단어가 시황지에 가득하더라도 읽을 의욕마저 사라지지 않겠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평소 경제 관련이 없던 사람이 경제 신문을 보면 마치 난이도 높은 영어 지문을 볼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 것이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영단어에 공부하듯이 일일이 읽고 넘어가야 한다. 경제 용어뿐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현상도 숙지하라. 글자가 떨어지고 한줄이 상충하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면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관심 집 우선식 사진까지 볼 수 있는 인터넷은 바로 일어 때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 상식 관련 책들도 같이 읽어주는 것이 좋다.

5. 관심 분야부터 차근차근 읽어라

경제 신문은 보통 본지면 48페이지로 구성된다. 밥 먹고 통 뺀 시간도 없이 바쁜 도시 남자가 읽은 기사를 여찌 다 읽을 수 있겠나. 게다가 경제 얘기가 나오면 머리 아픈데 전체를 읽을지 다 살펴본다는 게 보통 곤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보면 질리지 않는다. 주시 부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증권 기사부터,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부동산 기사부터 보면 된다. 때에이따러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순응적인 독자가 될 필요도 없다. 관심도 없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가면 쉽게 지칠 뿐이다.

6. 경제 신문이라고 경제만 보지 마라

경제 신문에도 정치, 사회 기사가 들어간다. 단지 다른 일간지보다 양이 많지만 읽을 뿐이다. 다만 경제 신문은 이런 사회적·정치적 이슈들에 경제적인 시각을 입혀 분석해준다. 호오 이코노미스가 되기를 마음먹었다면 경제 신문을 통해 정치, 사회 이슈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OLLEH!

경제 이슈가 당신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유럽 경제 위기

미국에서 발발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또 유럽 전역에서 위기가 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한 번 포구라졌던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더블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럽 국가가 불안한 것은 세금 등 분야들이는 수급보다 더 많은 지출로 국가 부채가 갈수록 쌓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위기의 진행은 바로 그러하다. 문제는 포구라졌, 말이 아니라,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재정 불균형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영향

남의 이름은 당신의 행복 아니었는가. 유럽 국가

들이 과거 한때 유럽 연세국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수많은 유력 마나를 자가로 영입 수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곳곳에 꽃꽂형형 저자들로 보리 보르된 것이고 한국인들은 전화를 거둘 때 미칠 것 같은 초특급 유전자의 신물을 꼭꼭 품아낼 수 있겠지. 20년 후 대한민국은 제1차 열대 한국이 되는 게 다. 올래

출구전략(EXIT PLAN)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각국은 경제 부양을 위한 비상 대책을 선행했다. 지출을 늘려 고용을 증대하고,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해는 한편 정책 공리를 낮게 유지해서 시장에서 돈이 돌아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구

전략이란 비상시에 시행된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책 공리 인성 여부가 출구 전략의 주요 관심사다.

>> 영향

출구전략이란 당국이 무슨 생각인 것이고? 글자가 정상화되어 예전보다 높아지면 환율은 내리게 마련이다. 이 말인즉 당국의 여차전구가 사라고 그 그렇게 노력을 불었던 수입 영원을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출구전략의 핵심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이용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역시 영향과 경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전문가에게 듣는 PRESENTATION의 기술

SK 마케팅엔컴퍼니의 박영주 부장을 만나서 작정의 능숙하게 업무시켜줄 기술에 대해 물었다. (다 사진 잘 되라고!) 그는 PT를 목표 달성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한 편의 쇼'라고 정의했다.

BY 편집에 IMAGES 모든 이미지Dreamstime.com

1. 기획서 작성

컴퓨터 시간이 뿔뿔히하면 게임도 잘 돌린다. PT 기술에 앞서 기획서 작성 기술을 먼저 진수해준다.

TIP 아이디어는 평소에도 축적하라

누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면 톤도 잘 안 나오듯 기획사도 막상 다룬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온다. 평소 리서치 결과, 기사, 이론 등을 목적에 맞게 잘 정리해두면 급할 때 써 먹기 좋다. 분야를 가리지 말고 공부하라. 특히 MAXIMO 큰 도움이 된다. (그는 정말 이렇게 했었다. 자, 다들 MAXIM 정기 구독하라!)

TIP 표지 제목은 마지막에 정하라

소개평에 나왔을 때 뜻밖의 반응이 나오면 확 짜증나지? 마한가지다. 표지는 PT 시 청중이 가장 먼저 접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표지 제목은 기획서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야 한다. 제목부터 정하고 기획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기획서 작성 후 마지막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

TIP 기존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내용에 맞게 재구성하라
기획서 구성에 정답은 없다. 답고자 하는 메시지와 청중의 성향을 고려하여 기획서를 구성하면 된다. 육자는 기획서 구성이 복잡해서 미리 알려주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넣으면 된다. 결론도 꼭 마지막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결론이 끝에 들어가기엔 극적이지만 약간 지루하다. 결론을 맨 앞에 담아내면 극적이진 않지만 지루하지도 않다. 내용에 맞게 골라 써라. 또 그림, 도표, 사체 등의 형식을 자주 신경 쓰게 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서의 내용이다. 보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TIP 청중의 관심사를 담라

기획서의 테마를 잡을 땐 청중의 기호를 고려하라. 청중이 골프를 좋아한다면 전담하고자 하는 주제를 골프 이야기에 비유하여 풀어낼 수 있다.

TIP 원 슬라이드엔 원 메시지를

하나의 슬라이드엔 하나의 메시지만

넣어야 한다. 많은 내용을 넣으면 청중이 헷갈리고 지루해한다. 방대한 자료를 모두 담아내기보다 아이디어를 드러내듯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트렌드다. 단 보수적인 회사에서 PT를 할 때엔 자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레드 One Slide - One Message 규칙은 지켜야 한다.

TIP 경쟁사의 기획서를 예상하라

광고회사는 PT로 광고를 때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만약 경쟁사가 톱스타를 모델로 하지도 제안할 것 같으면 왜 톱스타를 모델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넣는다. 경쟁사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구성이지만 경쟁사가 있을 경우 큰 도움이 된다.

2. PT의 기술

PT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한 편의 쇼'. 이제 한 편의 쇼를 깨달아보자.

TIP PT 일자료까지 모두 숙지하라

PT 전 리허설보다 중요한 것이 PT 내용의 숙지다. 방대한 자료를 줄이고 줄여 기획서에 담기 때문에 기획서에 담긴 내용만 아는 것은 맨몸으로 청중 앞에서 쓰는 것과 같다.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긴장이 안 되고 자신감도 생긴다.

TIP 키워드는 진정성과 확신

달변의 필요는 없다. 일부가 어눌해도 진정성과 확신이 담겨 있으면 된다. 평범한 일리어드 확신을 시사 하는 것이 수식적 기교를 사용하는 것보다 낫다. PT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 당신이 진정으로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또 PT를 잘 하기 위해 무작정 스피치 관련 지침서에서 알려주는 체계를 따르려면 굉장히 어려웠다. 다만 한 자리에서만 발표를 하면 청중이 지루해할 수 있으니 자리는 가끔 바꿔주는 것이 좋다. 아이폰택스가 힘들 경우의 사정권권을 가진 사람만 봐도 좋다. 꼭 여객 사람의 눈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PT 현장에는 어떠한 포맷도 다 허용된다. 형식은 형식일 뿐. 청중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 결과를 확신을 가지

고 이야기하면 된다.

TIP 처음 5분이 중요하다

서두에서 청중들의 관심을 한번에 이끌어낼 만한 화두를 던져라. PT 주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PT의 결말과 일맥상통하는 화두를 던지는 방법이 있다. 혹은 고상하고 '오늘 아침에 OO을 봤는데' 등의 일화를 이야기해도 좋다. 화두는 평소에도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한다. 특히 MAXIMO 큰 도움이 된다. (당신 아직도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 했나?)

TIP 실수는 기회다

실수를 이해하라.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청중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다. 실수를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실수에 대해 유머를 곁들여 언급하라.

TIP 적절한 유머만 사용하라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머가 잘 안 통한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농담을 던지지 마라. 굳이 농담을 던져야겠다던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 같은 경우 MAXIM의 미초적인 유머가 통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자학 개그다. 자신을 낮춰서 개그 소재로 활용하라.

TIP 질문은 미리 예상하라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놓아야 한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질문이 나올 만한 내용을 기획서에 넣을 수도 있다.

TIP 주제를 요약, 강조하라

PT를 끝내기 전에 PT 내용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라. 마지막으로 주제를 재진술하면 청중이 기억하기 쉽다.

TIP PT 직전까지 자료를 검색하라

PT 직전이라도 주제와 관련한 뉴스를 검색하라. PT하는 날 클라이언트의 CEO가 상을 탄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초본에 썼더니 반응이 괜찮았다. PT 직전까지 PT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

흠? 뭐?



PT 준비
단계 속성

내일 당장 기획서 써서 발표해야 한다고? 몇일 앞두고 Tip을 참고하라!

결과를 먼저 확인하라

보통은 자료 수집, 분석 후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결과를 먼저 정하면 수정해야 할 자료(중요)도 분석 과정이 좀 더 빨라진다. 물론 결론이 바뀔까봐가 아니라 영동한 안 된다. 도리상 약간의 자료는 검토한 후에 결과를 확인하라.

WHO IS HE?

박영주 부장은 대중기획, 제1기획, TBWA KOREA를 거쳐 현재 SK 마케팅엔컴퍼니에 재직 중이다. 쿠팡, 삼성카드, SK모토드레드 등의 광고를 기획 담당했다.

몇 분이 오셨어요?



라이카 올리베이라

RAICA



OLIVEIRA



Brazil is Blessed with Raica Oliveira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두의 옛 연인인 슈퍼모델 라이카 올리베이라. (그녀가 외모를 보지 않는 현명한 여자라는 건 확실하다) 물론 우린 그녀의 과거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관대한 사람이다. 하지만 브라질 MAXIM에서 보 내온 그녀의 화보를 보니 이 빠드렁니 못난이 녀석을 향한 질투를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물어봤다. 그 녀석이 랑 어땠어? 좋았어? 나보다 잘해?

WORDS BY LIGIA PRESTES PHOTOGRAPHS BY FELIPE LESSA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아카 올리베이라에 관해 들은 소식은 그녀가 브라질의 축구 스타 호나우두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당신은 소소한 가십 따위보다는 사나이의 축구에만 온전히 관심이 쏠려 있었을 테니 그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녀는 브라질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톱 모델이다. (몸을 광고하는 모델은 아니다.) 그녀는 주로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 모델과 세계 최고의 미인만이 셀 수 있다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앤젤로도 활동했다. 그녀의 매력? 친한히 빛나는 아름다운, 훗 하나 나는 완벽한 미소 그리고 재치 넘치는 말. 물론 가장 으뜸은 완벽한 몸매 하일릴 위에 힘겹게 올라 린에 이를 거는 겹겹과 빠얀 남은 모델과는 차원이 다르다. 도도하게 솟은 엉덩이가 만드는 실루엣은 그녀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녀의 전 애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 존재만으로 남성의 흥미를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놀라운 피사체였다. 그런 그녀가 브라질 MAXIM만을 위해 보여준 섹시한 모습이 한국 MAXIM에 도착했다. 이 축복 함께 나눈다. 현재.

호나우두와 당신이 애인 사이일 때 가십 매거진의 커버를 장식했던 게 엇그제 같군요.

내 주 무대는 브라질 밖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브라질 안에서는 오히려 나에게 극성스러운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집지 커버에 내가 등장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요. 하하!

[리아카의 메니저가 인터뷰 도중 끼어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삼파울루 최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인 파사노라는 곳에서 저녁 약속을 잡아놓았다고 말했다. 리아카는 그 다음 날이 모델 친구의 생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식당은 예약하기 힘든 곳인데 '리아카 올리베이라'를 위해 특별히 예약을 받아주었다고 강조했다.]

자, 봐요, 당신은 브라질 안에서 꽤 파퓰러가 있으시네요. (곰곰히 생각하다가) 하지만 이런 영향력 있고 좀 다른 힘을 가지고 싶어요.

예를 들면?

텔레파신 가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핑거를 자세히 설명하기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상대가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마법도 부리고 싶어요.

손을 살짝 돌리면 전동이 꺼진다든가... 마법이 되어도 좋겠네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안 들어도 될 것까지 듣게 되니까요.

대중이 당신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악담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우울했지요. 그땐 정말 어렵었니까요. 그리고 비판적인 평가와 요구도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니 일경태도요.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세상에는 순수한 경멸로 가득 차서 나쁜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강하게 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고만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죠. 지금은 그런 악성 루머나 나쁜 평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육하러면 해라. 이런 식이죠.

호나우두와 데이트 할 당시에 세간에서 당신을 '리아카 추테이라' 라고 불렀어요, 혹시 알고 있으세요?

"추테이라" 브라질에서 축구팬들 일컫는 말. 미리아 추테이라는 축구 선수의 데이트를 하는 여자를 의미. (웃음) 음. 조금은? 근대는 미리아 사샤. 미리아 루부엔 같은 명품 별명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추테

이라가 아니라! 심지어 난 축구팬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하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끼리 애간대 말아죠, 호나우두와 만날 때 그가 당신을 위해 어떤 선물을 바쳤나요? 솔직히 외모로 봐서는 그의 훗날은 아니잖아요.

그는 정말 다정하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재미있는 남자예요. 농담도 잘해요. 그리고 정신력이 대단해요. 이런 매력에 사람들이 모여준 거예요. 그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나도 미친가자였어요. 난 사람을 볼 때 갈로로 보이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설명 외모가 브래드 피트처럼 아무리 훌륭해도 인해 머저리가 들어 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럼 당신은 어떤 타입의 남자한테 끌리나요? 어떤 외모와 성격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후자 쪽이죠(웃음).

하지만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면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똑똑하고 재미있는 사람. 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멍청한 능망이나 지질같은 시시한 남자는 싫어요.

외모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단 말인가요?

참 내 남자친구 예기를 해줄게요. 그 사람 역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외모와는 거리가 멀어요. 대신 그는 아국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금발의 긴 머리카락, 문신, 잘 발달한 이두근... 하지만 진짜 좋은 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할 남자를 마치 지갑 쇼핑하듯 고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아주 독립적이예요. 정말 큰 장점이지요. 왜냐하면 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수 없거든요.

사진 촬영을 하다가 갈등을 빚은 일도 있나요?

몇 번 있죠. 촬영 중에, 전화 회의 하다가... 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는 눈치 채지 못해요. 난 소통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 날까지 상황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대화로 푸는 편이지요.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놓는 사람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와 했던 얘기가 다음달 가십 잡지 커버를 온통 장식할 테니까요.

어떻게 늙고 싶나요?

성형수술도 받고 가슴도 키우고... 농담이에요(웃음) 그쪽은 생각해본 적 없어요. 평온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별로예요. 브라질에서 평생을 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집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해변이 있는 LA에도 집을 갖고 싶어요.

브라질에서 아주 오랜만에 찍힌 화보를 촬영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는 일은 여기나 다른 곳이나 마찬가지겠죠?

나야면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순전히 일이나니까요.

촬영 중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건 뭐죠?

나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포토그래퍼가 이래라저래라 계속 주문하는 거요. 가끔 난 "싫다" 라고 말하죠. 무례해 보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요즘 여자는 갈수록 나약해져요! 너무 끔찍해요. 남자한테 자신을 다 던지면 안 돼요. 메달리며 의지해도 안 돼요. 밖은 전쟁터라고요. 남자가 오히려 나를 따라오게 해야죠. 난 한 번도 남자한테 먼저 다가가서 "와, 당신 정말 잘생겼네요. 나랑 사귀세요?"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여려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인터뷰에서 이런 걸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모두 다 천편일률적인 질문만 해요. 남자친구, 사생활 다이어트... 난 기자들이 예를 들어 '치구를 구하기 위해 핏 하고 싶은지' 같은 좀 다른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요.





현재 가장 몰두하고 있는 진지한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요? 우주는 지구 생명체만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아,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물어요. 근데 그게 과연 끝일까요? 아무도 모를 일이지. 우리가 아는 게 전부 아니니까요. 당장은 현재의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 등에 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는 게 사실이지요.

다음 생애는 헬로 태어나고 싶나요?

생애 강한 공주. 멋진 왕자가 백공을 타고 와서 나를 구해주는...

네? 백공이요?
아니, 아냐(웃음) 백마요!

이번 촬영에서 보여준 문신은 아마 처음 공개되는 것 같네요.
아무도 관심이 없더군요. 열일곱 살 때 새긴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어른들끼리만 할 수 있는 센 질문을 할게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섹스는 무엇인가요?
와우! 정말 센데! 많은 사람과 동시에 하는 거요.

남자가 침실에서 하면 가장 골똘건인 행동은?
이런 우리 아빠가 이 인터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

까(웃음) 최악의 행동이라.. 스파이더맨 복장이나 혹은 스파이더 무언처럼 입는 거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은 다정하고 처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분명 힘대선 몹시 거칠 것 같은데요.
이봐요. 무슨 질문들이 그래요?(웃음) 난 체력을 휘두르는 여전사가 되어요... 라는 대답을 듣길 원하겠죠? 농담이에요.







“호나우두는 정말 다정하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재미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정신력이 대단하죠.”



I'M GONNA KILL YOU

WELCOME

TO

CAN YOU SEE ME?

HELP ME!!

HORROR

ANYBODY HERE?

HOUSE

BY 김희성
ILLUSTRATION 김희성

세계의 흉가

어름은 덩고 같 굿 많다.

볼리 렉토리

흉가가 도대체 뭐하는 물건인지도 모 르는 영화 시절 어린 동심을 경악 케 했던 영화 (볼리 가이스트)를 기억 하구 영국 예식스 주에 위치한 볼리 렉토리라는 그대 그 시절을 추억하고자 하는 당상을 위한 여행 장소다. 볼리 가이스트 헌성이 일어나는 대표작인 곳으로 귀신이 불꽃을 던지는 것으로 오지라 연필을 공중에 띄워 자신의 억 울한 죽음에 대한 글을 써내려가는 모 기를 선보이까지 한다. 귀신에게 들 필매질할 각오는 단단히 하고 가라.



영덕 흉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흉가는 경북 정사해수욕장 인근에 위 치한 영덕 흉가다. 한국전쟁 당시 사 망한 학도병들이 묻혀 있는(대다) 남자 에게 바림받은 여자가 임신한 채 자 살한 고 일화(나 무사투사했음) 이곳 에 잠시 거주했던 퇴마사가 이런 글 귀를 남기놓고 병문을 잠근 채 출몰하 이 되었다. '이 병에 들어가는 인간들 이여 귀신이 나오니 죽을 각오가 있 으면 개방해 줄 테니 연락 주시요'



필리핀 사관학교

필리핀에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 는 곳이다. 파라이드용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을 행진하는 사관생도 귀 신 한새 웃을 모습은 여자 귀신 일본 에 정경당한 시기에 참수당한 성직자 유령까지 다양한 종류의 귀신을 끌고 루볼 수 있다.



GHOST HOUSE IN FILMS 영화 속 흉가 체험

흉가 체험을 할 흉가가 없는 사람은 위해 준비했다. 고재 민족을 위 해 최선을 다하여 모시는 맞춤형영 화 속 가상 흉가 체험



집콕형 황상의 집 (주은)

>> 수험, 고시, 취업 준비에 안성맞춤

스킨 밑에 숨어 손가락을 핏자락 거 리는 것을 좋아하는 귀머슴 토사조의 집입니다. 가끔씩 '고모어어어' 또는 '끼기끼기' 하는 소리는 손의 학살 능률을 올려주기 위한 신데 롬 '엠바스케어 허우스버진'입니다.



인전 기숙: (부기엔)

>>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베스트 초이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혼자 있는 어린 아이를 위한 맞춤형 허우스입니다. 부기엔이 아이 방 벽장이나 침대 밑에 꼭꼭 숨어 있다가 뽀아나 나타 나 요를위하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 는 인전한 집입니다. 말 안 듣는 아이 는 벽장으로 끌고 들어가니 버섯 고 치아에도 최고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출근하세요.



만남의 방: (1408)

>> 망자가 그리워 뭉뚱뚱치는

당신을 위한 곳

누가 행복만 돌린 호텔에 1408호는 추억을 되살려 주는 아늑한 객실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당신의 부모님, 친구,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 캐요. 너무 마음에 들어 떠나고 싶지 않다고요? 방문을 열고 나가도 어떤 히 1408호일 테니 걱정 마세요



조ैया 빌딩

1972년 2월 브라질 상파울로에 위치한 조ैया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그대로 건물에 갇혀 무려 죽었다. 불길에 휩싸이려 타고 무려 2층이나 되는 건물에 갇혀있던 것 그 지라에는 새로운 빌딩이 들어섰지만 아직도 불에 타 죽은 귀신들이 출몰한다고.



창이종합병원

상파울로의 대표적 귀신 집결지. 1980 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2차 세계 대전 때 고문을 당한 전쟁 포로가 많이 죽 어 나간 곳이다. 국적, 인종, 국경을 초 월한 귀신들을 목격할 수 있는 흉가의 핫 플레이스.



몬테 크리스토 지택

1866년 일리언 크로프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건축한 2층 지택에는 귀신으로 진화한 그의 가족이 아직도 살고 있다. 집 안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아무도 없 는 2층 베란다에서 80일 소리를 들 을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흉가 운운 이 흰 귀신이 허공에서 이리저리 날 아다니다 달한 청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모기도 보여준다. 문명이 없는 귀신도 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아이티빌 지택

1974년 7월 당시 23세였던 로널드 데 미오는 이 지택에서 자전 기둥 62층을 차례로 실패했다. 시간 1개월 뒤 이 지 택에 세 아이와 함께 이사한 리즈 부 부는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와 환 영에 시달리려 했다. 곧가 되려 의 식까지 치렀지만, 평장 여기서 나가 라'는 무시무시한 대답만 돌아왔다. 현재 이 무시무시한 흉가는 195만 달러의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 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세요?

휴가 체험 ABC.

안 믿어도 좋다. 하지만 믿자면 본진이나 다음카페 휴가 체험(<http://cafe.daum.net/hyungabest>) 운영자 '유령 사냥꾼' 에게 휴가 체험 시 주의할 점을 들어보자.



1. 휴가 안에서 잠나치지 말 것

휴가는 사람의 공간이었던 동시에 영의 공간이기도 하다. 누군가 당신의 뒤를 누를 때라고 도망가면 기분이 더러운 것처럼 귀신도 외부인(사람)이 와서 잠나치는 것을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받아들이 심히 불편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장난이 빙의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

2. 휴가 안 물건을 집에 가지고 가지 말 것

유령 사냥꾼은 '예전에 매의 눈을 가진 한 분이 휴가에 있던 천자의 가지를 알아보고 천자를 들고 나왔다'가 거기에 귀신이 붙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덧붙였다. 휴가의 물건은 귀신을 엮어줄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으니 당신의 도박을 억누를 것. 집까지 귀신이 따라올 수도 있다.

3. 오싹한 느낌이 들 때는 머리에 손대지 말 것

무속인이 목 뒤에 꽂고 있는 것대는 이를 타고 몸으로 쉽게 신이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심코 머리에 올린 당신의 손을 타고 영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머리가 뚜껑 사면 머리를 만지는 대신 흔들어 떨어라.

4. 모서리는 피할 것

모서리는 영적으로 음기가 응집되기 쉬운 곳이다. 음기가 강하면 귀기도 강하다. 되도록 피해서 다녀라. 무섭다고 벽 쪽으로 붙어서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탁 트인 중앙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5. 체험 중 이상한 현상을 목격할 경우 반응을 보이지 말 것

체험을 하다 보면 무언가 몸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울음소리를 듣는 등 괴현상을 겪게 된다. 이때 절대 반응하지 말고 무시해야 한다. 귀신의 장난에 반응을 보이면 더 심한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 또한 영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대꾸나 질문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해코지를 당하거나 빙의될 수도 있다.

6.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은 가지 말 것

휴가를 어쨌거나 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영체들에서 날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가 가면 붙어 타서 죽은 영체. 오줌 냄새가 나면 물에 빠져 죽은 영체가 있다는 신호다. 죽 악취가 나는 곳엔 현이 많은 영체가 있다. 빙의의 빈도 역시 높으니 될 수 있으면 피하라.

HORRORHOLIC

휴가의 매력

휴가 체험 마니아 유령 사냥꾼에게 휴가의 매력이 대해 물었다. 도대체 왜?

휴가 체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장난상이 방문해서는 큰일 난다. 실제로 휴가 방문 후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국내 유명 휴가단 놀음잡비를 방문한 내 친구 중 셋은 죽고 한 명은 식물인간이 된 사건도 있었다. 예까지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왜 휴가 체험을 하나?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다. 진짜 영혼이 있을지, 테스트에서 본 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대한 궁금증이 발원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나면 남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에 도전한다는 우월감과 스릴을 느끼게 된다. 영체가 있는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물함과 묘한 느낌, 영체와 교감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내력 이대 초독심 같은 게 있다.

당신이 기쁜 곳 중 최고의 휴가는?

결국 장사해수욕장의 영대 휴가 일구게 되었다가 울음소리가 들리서 결국 못 들어갔다.

귀신이라도 본 건가?

더 무서운 일을 겪었다. 체험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 중 휴가에서 소변을 보는 등 장난을 쳤던 무리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더 차가 출발하는 데 바로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돌진했다. 사고 직전 개구 멍했다. 그런데 차 주인이 하는 말이 행들도, 브레이크도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오싹하던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귀신 이야이다.

왜 너무 무서워면 휴가 체험 안 한다고 할까 봐 웃었다. 흥수 때문에 아이들이 그대로 수장된 보육원에 간 적이 있다. 아이 영혼이 있는 곳에서 장사하면 더 위험한데(호)달리고 때 쓰나. 달리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험하러 오신 분들의 재미(?)를 위해 장난을 쳤다. 체험이 끝나고 모두 모여 물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자꾸 뒤에서 웃음 집어넣는 것이 느껴졌다. 계속 똑똑 집어넣는 것이 이상해 사람 수를 세어봤더니, 아홉. 한 두명은 아무도 알지못해 결국 피아사 한 방에 떨어졌다고 했다.

흠, 우리가 원하는 건 여자 귀신 이야이다.

가장 최근에 단발머리 귀신을 봤다. 여러 사람과 동시에 목격했다. 어쨌든 그날 저녁엔 휴가 주위를 방문했다 내 집에서 사라지더라.

기쁜 곳 중 심상스러웠던 휴가는 어디인가?

심상스러웠던 휴가는 없다. 다들 다른 느낌을 주니까 하지만 휴가단 중 일도 많고 거기서 나 수련장이 되어봤다가나 없어졌을 때 허명하다.

결국 휴가는 다 좋은 일이고, 당신 인터뷰 때문에 휴가 체험 중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

미신지식을 제외한 건강한 사람이려면 누구나 환영한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큰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분에게는 휴가 체험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몸이 이상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어렵고 영의 빙의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사실만큼 아니더라도 함께 휴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줄 수 있으니, 자체하는 것이 좋겠다.

CHEAP HORROR

그 외에 돈 안 드는 공포 체험

공짜가 좋은 당신, 공짜 공포를 체험할 몇 가지 팁을 던져주지



1. 어린이 공포 소설 읽기

도서관 어린이 사교에서 <7학년 무한공포체험> (오역) 열나 무서운 공포체험 등을 읽으며 <7학년 오역> 소리를 질러라. 간단한 것으로 무한한 어린이의 새한 눈초리가 울음을 더하면 사냥한다 부르며 울며 오중이라도 지르면 호고 만명 어느 초딩이 그런 당신을 휴대전화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당신 인생은 꼭 공포 그 자체겠지?

2. 집에서 뚱오류 보기

아무도 없는 밤에 전등을 다 끄고 구석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낮은 음정으로 뚱오류를 불러. 추천 곡은 '성진 아가', '영아가 성 그늘에 걸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혼자 남아... 혼자 남아...' 갑자기 영아가 돌아와 그 것을 하는 당신을 발견하면 새끼는 차원의 공포가 펼쳐진다.

3. 카드 영매 소리 내어 읽기

쌌. 공포 체험하자 당신에게 사치리는 걸 알게 된다.

체크리스트.

아래 문항 중 몇 개가 당신에게 해당하지 체크하라. 이참에 당신 집을 흥가 체험 관련 상품으로 팔아볼까?

1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

집에 혼자 있는데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귀신이 물건을 옮기는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

2 문이 스스로 닫힌다

방문 한 것 불지 않는 집 안에서 방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히나? 귀신이 자신이 근처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3 집 안 물건들이 혼자 움직인다

아침에 일어나서 엉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컵을 발견하고 오싹했던 적이 있나? 이걸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건강상이 뒤흔어 침극일 확률이 더 높다.

4 물건이 혼자 공중에 뜬다

공중에 뜨는 것으로 모자라 당신을 향해 물건이 돌진한다. 이것 든 좀 될 것 같지 않나?

5 전기와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TV 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작아지거나 전등이 깜빡거리고 자주 꺼진다면 의심해보라.

6 집 안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인다

애원동물이 허공을 향해 공격 자세를 취하나? 집 안에 있는 귀신 때문에 놀란 거다. 당신이 꺼니를 때때 쟁거지지 않아시킬 수도 있다.

7 전자제품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

이것까지 귀신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8 알 수 없는 멍, 규한 자국이 있다

몸에 원인이 없는 상처가 생겼나? 귀신이 당신의 몸에 직접 해를 가한 거다. 혼자 징크스대하 책상 모서리에 처박힌 상처가 될 거다.

9 이유 없이 뜨겁거나 차가운 장소가 있다

느네 직면 뒷목 아랫목도 없나?

10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

귀신이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당신의 후각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는 게불, 좀 싹고 다녀라.

11 순간적으로 눈에 무언가 보인다

당신의 눈에 보일 정도로 밝지만 상 당한 귀신이다.

12 무언가 나를 노려보거나 만지는 것 같다

제일..

13 투명한 사람이 갑자기 당신 앞에 나타난다

이건 진짜 귀신이다.

"당신의 집은..."



1~5개

이 정도면 안전하지 못해 시도하다. 매일 밤, 마치 당신의 팔이 분사사바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시력을 다해 분사사바 의식을 거행해 온갖 집귀를 불러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6~9개

구준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 귀신의 노력을 끄고 무시한 당신의 무심함이 존경스럽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당신의 집은 거의 흥가나 마찬가지다.



10~13개

축하한다! 이제 당신의 집도 루브르 박물관 같아질 수는 세 계적인 흥가 명소가 될 것이다.

HORROR MANIA

공포 체험 4종 세트

어름맛이 몽땅 프로젝트? 호러 영화 한 편에 무너지던 재우리던 몽렘이라도 다 말릴 참. 오늘부터 공포 체험으로 심장 근육 단련 프로젝트에 돌입하자



1 공포 연구: 오래된 아이

언제 7월 1일~25일
어디서 대전 가톨릭 문화회관 이트룸 문의 050-0920

스크린 연애라고 직접 마주한 공포는 어떤 걸까. 무대 위에서 무는 귀신이 뭐 얼마나 무섭겠나. 예고 없이 관객 머리 위로 낙하하는 가발과 객석 곳곳에 숨어 있다. 난 대역이 발목을 잡는 귀신의 재로에 강하게 지 않을 강장장은 아예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다음 사랑 비명 소리와 기괴한 효과음이 공포를 더한다.

GOOD 놀라 그녀가 당신 어깨에 얼굴 파툼을 확률 99%

BAD 놀란 당신도 그녀 어깨에 얼굴 파



2 죽음의 롤러코스터: 에버랜드 T 익스프레스

언제 상시
어디서 에버랜드 문의 02-300-6000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이천 하강 속도에도 말장대는 목조 레일뿐. 아찔한 길에는 안전바도 없다. 이 사실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세계 최대사실 77도(레인 90도), 최고 높이가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90m, 실제 탑승한 것보다 롤러코스터에 올라타기 전 겁에 도는 나부 레일 백백하는 소리와 탑승자의 비명 소리가 더 큰 충격이다.

GOOD 은근 중독된다.

BAD 탑승 후 출구로 마련된 포토 존 모니터 속 당신의 충격한 모습이 또 한 번 공포를



3 공포 영화 체험: 밤사이의 그림자

언제 오는 8월 31일까지(일요일은 휴관)
어디서 서울 상암동 한국영화박물관 문의 02-363-2031

공포영화를 내셔널로 흥망라한 친시화. 국내와 공포영화를 둘러보는 것으로 모자라 굳이 체험 공간까지 마련하는 신장행동을 보인다. 눈에서 피 흘리는 초상화를 비롯한 귀신의 집세사나 볼 수 있는 친시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GOOD 그림계도 관람료가 무료, 박물관 안 볼거리도 많아 (데이트 코스) 권장.

BAD 무료 안 무섭다. 대신 장정제는 미취학 아동 사이에서 그녀와 당신이 패배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4 흥가 체험

언제 상시
어디서 강연도 가리랑강강 문의 033-662-7689

진짜 귀신이 득사문거리는 귀신 소리로 직접 둘러보자. 강연도 정상의 흥가 체험 코스를 살펴보자. 무서운 이야기로 위압감을 한 다음 일체의 빛이 꺼져오지 않는 양쪽 미로를 걸을 하고, 이야기 속 살기 흥가를 찾아내는 것으로 미로를 걷는다. 단, 흥가한 흥가들이 아니라 한다. 예약은 필수. 이 외에도 인터넷 흥가 체험에 한창한 모양이 많으니 올려볼 대한민국 대표 흥가를 둘러보자.

GOOD 다른 사람 체험!만 들어도 무섭다.

STYLE

I've Got You Under My Skin

태초에 여자와 남자, 그리고 수염백이 있었다.

BY 고영희 PHOTOGRAPHS BY ARE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교영호

MODELS 구재민, 한가희, 최성호 ASSISTANT 조장민



주최
블랙 & 그린 컬러 그리드인사이
소금스키우 브랜드소
\$28,000원 O'NEILL by Shogun
그린 컬러 이쿠이 슈즈
\$9,000원 NATIVE

COOPERATIONS BNK, TANKUS, adidas Originals(02-3447-7701) MVID, Kai-eastmann(02-3446-7725) SYSTEM HOMME, REPLAY, TOMMY HILFGER, TIMEX watch by Gallery
o'clock(02-136-7769) mfont-bell(02-3446-9989) HAZZYS, VANS, A-Polestory(02-514-0693) NATIVE(02-3443-8148) SPX street gangster(02-511-8158) Frenzy&Mercury
by M2(02-3443-1703) Jamie&Bell(070-8847-7834) MARIO(070-8833-8555) SHOESONE(031-634-9920) ELM The Leaf Fitted, FUCT by PRIZM(www.pr1zmatore.com) CHEAP
MONDAY, T-LEVEL, insight by LIFUL(www.liful.co.kr) ANALOG, BILLABONG, ROXY by RONIN(www.ronin.co.kr) O'NEILL by Shogun(www.shogunshop.com) TEN-80, FRENZI by
redstreet(www.redstreet.co.kr) STL(www.stlshom.com) west(www.westkorea.com) BILLABONG by snowNstreet(www.snowNstreet.com)



담황기
스카프 85,000원
카키 컬러 베스트
275,000원 모두 SYSTEM HOMME
웨이트 반스에 티셔츠
59,000원 FUCT by PRIZM
색감 그림의 보드스츠
95,000원 ANALOG by RONIN

후진
옐로 플레드 컬러 보드스츠
98,000원 TEN-80 by radstore

후장의 여간
브라운 컬러 수영복
238,000원 BNX

원형기
프리미엄스 패션재 메시캡
40,000원 moon-bell
복색 컬러 웨이크보드 라이프 리얼라이프
238,000원 A NELL by Shop
피플 컬러와 스카이라인 컬러 그래픽이신 블랙투스
85,000원 STU
여러 개와 하나가 독특한 운동화
318,000원 SPX street gangster

추정
브랜드 : 105,000원
BUZBONGBY Showstreet

순장갑 어인
마리올 장척담 레드 컬러 가죽 끈
가터 미용 James&Bell
블랙, 화이트 컬러 버키니
278,000원 TANKUS
원형기
50,000원 MARIO





준장

조조미를 상상시키는 워드소츠
105,000원 BULLABONG by RONIN

(오른쪽 페이지)
귀장의 예인
블랙 & 화이트 컬러 비키니
78,000원 VANS

귀장기

체크 워킹코자

39,000원 VANS

나뭇잎 패턴 셔츠

150,000원 REPLAY

블랙 컬러 목줄

10,000원 ROCKY by RONIN

블랙 워치 가려 미장

TMEX watch by Gallery o'clock

스카이 블루 컬러 워드소츠

가려 미장 TOMMY HILFGER





텀헝기 블루 컬러에 화이트 꽃무늬 버치 모자 48,000원 TOMMY HILFGER 스카프 38,000원 A-Polestry 화이트 반소매 티셔츠 가격 미정 MVO 각기 다른 컬러 사각 박스 조합의 보드스츠 82,000원 freight by LFL
 주창 레드 보드스츠 128,000원 weec



우정
 대담한 액세서리 & 수영의 재미로
 98,000원 **수영복** by madstone
 주얼리 스트랩 목걸이
 99,800원 **Kar-saboninn**
 주얼리
 주얼리의 여왕
 핑크 컬러 비녀나
 에디션 소장
 장성 스트랩 슈즈 29,800원 **SHOESONE**

명품
 54,000원 **CHEAP MONDAY** by madstone
 클래식 보링 신발
 400,000원대 **Frenzy** by MZ
 비올라 크로싱 비스킷 티셔츠
 36,000원 **T-shirt** by U.F.U.L
 카탈 펠리 윈드스츠
 110,000원 **TEH-80** by madstone
 정면엔 나뭇잎이 프린트된 크리미 오자
 52,000원 **ELM The Leaf Fitted** by FRIZM
 베이지 컬러 운동화
 100,000원대 **adidas Originals**



밀집 소재 페도라

(위부터)
전체적인 블랙 컬러가 심상
하지 않게 앞뒤 반으로 나눠
돈을 달라했다.

49,800원 Kai-aakmann
밀집 소재지만 블랙 컬러로
단정함을 살렸다.

46,000원 Inight by LIFUL
화이트 - 그린 - 블랙 컬러의
조합이 시원하다. 55,000원

KR3W by ICONSUPPLY
밝은 베이지 컬러에 신뜻한
네이버 컬러 피가 포인트.

76,000원
BRXTON by WORKSOUT
블랙(화이트)의 세련된 조합

58,000원 REPLAY
블랙 컬러를 기본으로 다양한 컬러
조합이 멋스럽다.

가격 미정 JILL BY JILLSTUART
by HATS ON

스타일링을 컬러가 눈이
부실 정도로 차렸다.
가격 미정 JILL BY JILLSTUART
by HATS ON

Summer CAP

여름 자외선 차단 방어를 위해 밀집과 메시 소재 모자, 앞으로!

BY 기획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MAKE-UP 구성은 MODEL 수혜민 ASSISTANT 조성진



메시 소재 캡

(왼쪽부터)
 지그리한 사진이 모자이크처럼
 나열된 브라운이 개성을 살린다.
 36,000원 **freight by LIFUL**
 노란색이 상큼하다.
 49,000원 **Jeep**
 농활에서도 스타일은 살려야
 직성이 풀리는 당신에게 꼭
 어울리는 워킹 소재의 메시가
 특별하다. 42,000원
BREEZYWAY by BROWNBREATH
 동네 어른들에게 헛기지 않자.
 48,000원 **RVCA by WORKSOUT**
 독특한 캐릭터 카툰이 눈에 띈다.
 48,000원 **RVCA by WORKSOUT**
 평범한 풀에 걸려와 독특한
 그림의 조화. 44,000원
Outskaver by HATS ON



MAXIM 인체실험실

보디 슬리밍 제품

넌 운동해라, 난 바르기만 한다.

BY 고정희 PHOTOGRAPH BY ARG STUDIO

MODELS 구백민, 김 가다 촬영은 수진, 헤어 ASSISTANT 조영민

키를 인체실험

GUESS Underwear

노출의 계절이 싫다. 운동도 귀찮다. 그런 당신을 위해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난 상품을 개발했다. 바르기만 하면 뚱 속 셀룰라이트를 흔내준다는 매직의 마법. 신비의 미스터리 보디 슬리밍 제품이 바로 그것이다. 요제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는 당신을 위해 MAXIMI 직접 인간 실험실 마루타를 뛰어놓고 매일 보디 슬리밍 세례를 내렸다. 이들의 체험기를 들어보자.

LAB SERIES

AB RESCUE BODY SCULPTING GEL



★★★★★

뱃살을 빨리 제거하고픈 마음에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샤워 후,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발랐다. 확실히 뱃살이 줄었다. 얼굴에도 살짝 발랐는데 어느새 브이라인이 되었다. 하지만 매일 자전거를 3시간씩 탔기 때문에 효과가 커진 것 같다.

200ml 46,000원

김영색(40세, 포토그래퍼)

HERA

Glam Body S'lite Designer Kit



★★★

바르기만 하는 젤은 믿음이 안 간다. 기구와 젤이 한 세트인 걸 보는 순간, 이미 살이 빠지는 것 같았다. 꾸준히 밀고 베, 다리에 사용하니 울퉁불퉁한 살들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8주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라 남은 기간 얼마나 더 빠질지 기대된다.

250ml x 2 + 에스라이트

이소아지서 180,000원

(25세, 패션 아시스턴트)

CLARINS

HD Body Lift



★★★★★

이 제품을 쓰던 여친의 허벅지 두께가 줄어든 걸 옆에서 목격한 터라 효과는 의심하지 않았다. 근데 바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방법이 왜나 까다롭고 번거롭기까지 하다. 진성 귀치니스트라민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거다.

200ml 62,000원

이진형(23세, 학생)

RE&U

BODY SLIM PATCH



★★★☆☆

매일 밤 자기 전 배에 붙이고 갔다. 일사하게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 이게 추운지 더운지 구분 안 간다. 패치의 크기와 붙였을 때의 느낌이 파스 같다. 복부가 이슬리밍 패치 때문에 따뜻해져 혈액 순환이 되었는데 살이 빠진 기분이 든다. 실제로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

각장 20,900원

임동권(32세, 회사원)

BIOATHERM HOMME

ABDSOULPT DAY



★★★★★

어느 날, 제품 문은 손으로 마우스를 집었는데 마우스가 녹았다! (순간 이 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겼다.) 한 달 동안 발랐지만 무해했으니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붙들어 매라. 확실히 살은 빠졌다. 하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다.

200ml 47,000원

김도훈(28세, 포토그래퍼)

MAN'S CLASSIC

Fitness Bodyline Gel



★★★★☆

매일 아침, 저녁 샤워 후 젤을 꾸준히 배에 발랐더니 삼겹살이 없어지는 걸 실감했다. 1시간 정도 유산소운동을 한 후 젤을 바르면 후끈거리는 정도가 평소보다 심해지며 지방 분해가 더 촉진되는 느낌을 받았다. 안내문처럼 운동과 꾸준히 병행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200ml 27,000원

김상현(31세, 피쳐 에디터)

TATTOO

타투는 자기 몸을 도화지 삼아 멋진 작품을 그려내는 예술이자 패션이다. 이렇다면 도화지로 색이한 여성의 몸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기 위해 MAXIMI 타투 행사장을 가뵈거렸다.

BY 3개의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S : tattoovirus(www.tattoovirus.com) GDA(www.goalimited.com)



TatoVirus



매해 열리는 타투 행사 타투바이러스는 올해로 2회째이다. 지난 6월 서울 양재 예티센터에서 열린 타투바이러스에 타투를 옮기자에서 앞서로 끝나고 문화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유명 타투이스트가 출동했다.

오랜만에 얼굴을 바친 아주노와 국외의 김 춘진 의원이 촉수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팝핀 현준을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더불어 피어싱과 타투 무료 시술 등 즐길거리가 가득했다.

개성 넘치는 타투이스트의 시술 과정은 몹시 흥미로웠다. 고통과 쾌락, 뚜렷한 표정이 시술 받는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는 모습, 사뭇 진지한 타투이스트의 집중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멋진 타투를 한 색이한 여자도 상당히 많았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올해는 MAXIMI 멋진 보여줄 테니 관심 있는 독자는 내년엔 한번 둘러보라. 약간의 유행이 있다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다. 행사 일정과 타투 정보는 www.tattoovirus.com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타투란?

- >> 피부에 상처를 낸 후 색소를 혼합해 몸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 타투 시가지와 디자인에 따라 가격과 소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 >> 당신의 몸 어느 부위라도 타투는 가능하겠지만 할 거면 본인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멋진 녀석을 사겨보자. 하지만 때때로 타투는 제거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영구히 지워지지 않으니 충동적으로 사들여는 건 금물이다.
- >> 시술 후 약 1주일 동안은 간단한 샤워만 하는 게 좋으며 얼굴이 생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생지 자라치게 피가 빠지면 타투 모양도 변형된다. 과도한 태닝 역시 타투 색이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니 주의할 것.

타투의 종류



1. 이레즈미

각두기 형님을 떠올리면 된다. 일명 아쿠자 문신으로 팔-다리-가슴으로 연결되는 큰 디자인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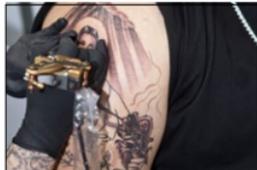
2. 동양화

화투가 아니다! 한 폭의 동양화 병풍이 당신 등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3. 포트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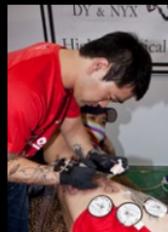
초상화 뺄칠 만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특징인 타투. 빅토리아가 내 가슴속에서 살아 숨 쉬는데 하얏하얏!



4. 차카노

미국, 멕시코의 갱 문신이라 불린다. 색을 빼제하고 명암 차이만 살린 블랙&그레이 톤으로 해골이나 여자를 주로 그린다. 취향에 따라 색을 약간 넣기도 한다.

타투 새기는 과정



1. 원하는 타투 시안을 타투이스트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대말일이다.
2. 도화지를 준비한다. 여기서 도화지는 당신의 몸통이!
3. 타투이스트가 그림 그릴 신체 부위를 닦아준다. 아. 기분 이상해.
4. 당신이 혼자 모뎀해하고 있을 때 타투이스트는 색소와 일화용 침을 준비한다.
5. 타투이스트는 당신 피부에 상처를 낸 후 색소로 물들여며 그림을 그린다. 아... 아프다. 하지만 참아라. 고통대면 X 된다.
6. 완성. 이제 며칠 동안 바나 샤워는 금물. 아치피 할 안 할 때지.

미국 MAXIM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이한
기쁨을 우리와 나누고자 선물을 보내왔다.
16페이지에 달하는 비키니 화보!
아휴, 뭘 이런 걸 대!

RED
WHITE
&
BIKINI!









왼쪽, Anna Kosturova 신의 Indah 형의
오른쪽, Indah 신의 Guria 형의





Nicole Marie

칵테일 위 우산 장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완전 유치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면 시도하지 마라.

여기서 질문! 누가 성조기를 처음 만들었을까?

바보 같은 질문하지 마라! 음...





★ Kimberly

백주 홀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걸 가지고 다니는 남자는 좀 이상
한 것 같다. 하지만 가지고 다니면 은
근히 편하긴 하다.

비비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는?
음. 갈증도 해소되고, 맛있는 고기와
소스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정말 무성의한 답이다.
나도 안다. 내 대답이 세계 최고로 재
미 없을 거란 걸 말이다.

여기서 질문! 국가를 만든 사람은 누
구일까?
음, 벤저민 프랭클린?



원본: Liberty of London 1997년
오른쪽: Zoo 1997년





Guine 상의
Inch인 하의





BADASS LEADERS

미국 역대 지도자 중 파티를 가장 열렬히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조지 워싱턴

대마초를 키웠다. 그가 평생 치아 때문에 고생한 데엔 다 이유가 있었군! 참고로 토머스 제퍼슨도 대마초를 키웠고 벤저민 프랭클린 역시 삼 갑질 벗기는 기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레, 다들 심해 모시를 짓는다고 돌려댔지.

제2대 대륙회의

이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동안 7,570L 가까이 의 럼주를 쳐 마셨다.

존 애덤스

아침마다 술을 피쳐로 들이붓고 하루를 알뜰알뜰하게 시작했.

벤저민 프랭클린

이름부터 강렬한 헬피어 클럽이라는 주장방이 오입곤 모안의 회원이었다. "어이, 누가 내 거시기를 옆에 묶어 에 퍼릿한데? 절절절!"

토머스 제퍼슨

1809년 공직을 떠날 때 그는 큰 빛과 함께 큰 빛도 남겼다. 1만 달러에 달하는 와인 구입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대마초는 문제 축에도 못 간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물러 떠질만 용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는 한때 대마초를 피운 적 있다고 시인한 엘 고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나 같은 대마초 질문에 답하지 않겠어. 왜냐고? 내가 한 것을 어린이들이 따라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지."

버락 오바마

자서전에서 고고 시절 코카인을 시작해 대학 때 끊었다고 밝혔다. 오바마님, 당산마제

CRAZY FIRST LADY

미국 (타입)지는 2009년 정신 상태 심히 의심스러운 영부인 톱10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미제만 골랐다.

힐러리 클린턴

영부인 시절 그녀는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여사와 마하트마 간디 등과 가상의 대화를 즐겼다고 말했다. 남편이 외박해서 외로웠어?

낸시 여사

레이건이 부지런히 나라를 이끄는 동안 영부인은 점성술에 심취해 있었다.

베티 여사

포드 대통령의 부인은 대마초를 피우고 혼전 섹스 사실을 당당히 밝혔다. 오, 베티, 우리 구름 위에서 즐겨볼까?

메리 토드 여사

에이브러햄 링컨의 영부인은 자신이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 이거, 백악관 터 왜 이래! 못 쓰겠네!

엘리자베스 여사

해리 트루먼의 마누라는 "백악관에 유명이 있다" 고 말했다. 아마 링컨 부인의 친구를 만났겠지.

술로 천국 카를 지옥





**SPECIAL THANKS TO
MAXIM USA EDITION**

미국 MAXIM 에디터는 공휴일
에 쉬겠지? 좋겠다. 우리는 왜
7월에 휴일이 없는 거야!

MAXIM JULY 2010

정기 구독 신청 방법

MAXIM Korea 웹사이트(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주세요. Tel 02-323-1182

6개월 정기 구독

(정가 32,400원) **27,540원(15% 할인)** + 1000씩 적립

1.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1장 (6만원)

• 일시 2010년 7월 8일 저녁 8시 • 장소 CGV Art Hall



뮤지컬 그리스
다시 찾은 희망의 향연

12개월 정기 구독

(정가 64,800원) **51,840원(20% 할인)** + 2000씩 적립

※ 2가지 중 택일

1. 아이폰 케이스의 명품 INCASE (5만원)

2.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2장 (12만원)



명품 아이폰 케이스 INCASE
INCASE-KOREA
www.incasestore.kr 070-8623-104

24개월 정기 구독

(정가 129,600원) **97,200원(25% 할인)** + 4000씩 적립

※ 3가지 중 택일

1. ipTIME 무선 IP 공유기 N6004 (7만 6천원)

2.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iPASS ite-200 (16만원)

3.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3장 (18만원)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
백로그 프리뷰 FMS ite-200

36개월 정기 구독

(정가 194,400원) **136,080원(30% 할인)** + 6000씩 적립

※ 2가지 중 택일

1.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4장 (24만원)

2. Dvico 디빅스 플레이어 Tvix HD N1 (19만원)



ipTIME 무선 공유기 N6004
나눔은 아름다운 법. 정보를 나누자



디빅스 플레이어 Tvix HD N1
보고 싶은 영상이 있을 때 연결하라

※ 첫 달 사은품에 한해서 책봉 배송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간기념 가격 인하는 계속된다!
날권 구매시 **5400원 → 4900원**은 계속된다!

MAXIM BUYER'S EDGE



스테파노리치, 2010 S/S Knit Wear Collection

이탈리아 파렌체 스타일의 남성 하이엔드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테파노리치(S)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바닷속의 시원함을 독특하고 다양한 컬러의 조합으로 표현한 여름 니트 라인업을 선보인다. 스테파노리치는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EAST 4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40-7656



A.P.C., 2010 S/S MADRAS COLLECTION SWIMSUIT

강박적이고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의 프랑스 패션 브랜드 APC에서 올해는 마드라스 컬렉션 수영복을 출시한다. 브라운과 레드 계열의 체크 프린트로 디자인된 남성 수영복은 깔끔한 티셔츠와 매치해 평소 캐주얼룩에도 전혀 손색이 없다.
문의 02-542-7640

S.T. DUPONT, Tie Collection FRINGE CRAVATE

S.T. DUPONT Tie Collection FRINGE CRAVATE 138년 전통의 세계적인 프랑스 남성명품 브랜드. 유명 타이에서 남성 스타일링에 세련된 감각을 더해줄 100% 실크 소재를 사용,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부드럽게 감기는 소프트한 터치 감이 특징인 프린지 크라바티를 선보인다. 타이엔 애플과 스카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문의 02-206-3692 / www.st-dupont.kr



타거스, 업무 능률 쑥쑥 올려주는 IT 액세서리 신제품 출시

세계적인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 한국 타거스(TAGS)가 프린터, 마우스, 쿨링패드, 라켓볼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IT 액세서리 신제품을 출시한다. 타거스의 신제품 액세서리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 예시샵 등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출시 기념으로 오피스 맥스에서 타거스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월드 어워드를 제정하는 이벤트를 6월 말까지만 진행한다.
www.tagscopy.kr



정통 러시아인 보드카 스톨리치나아 아이스샷!

스톨리치나아 보드카를 2시간 정도 냉동실에서 얼린다. 얼린 상태에 면한 스톨리치나아를 미리 차갑게 얼린 잔에 따르거나 하면 스톨리치나아 아이스샷 완성. 식도를 타고 내리는 얼음보다 차가운 시원함이 무더위로 생긴 당신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것이다.
문의 02-262-1800

시리즈, 댄디한 스타일 가이를 위한 시리즈 '옥스퍼드 재킷'

감각 있는 남성용을 위한 이번 캐주얼 브랜드 시리즈에서 한어플에도 감각을 지키고 싶은 댄디한 남자를 위해 기본적인 광택함을 유지하면서 시리즈만의 차별화되고 슬림한 핏과 독특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옥스퍼드 재킷을 출시한다. 이 재킷과 깔끔한 화이트를 코디한다면 올여름도 문제 없다.
문의 02-937-8832



SIEG, Ageless 1/2 티셔츠 출시

남성 캐주얼 브랜드 지킴이에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맞아 컬러가 높은 소재와 감각적인 그래픽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그래픽 티셔츠 '지킴이 시리즈 1/2 티셔츠'를 선보인다. 피시에서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티셔츠 한 장만으로 멋스러운 남자가 되어보자.
문의 02-646-7764 / www.sieg.co.kr



MAXIM BUYER'S EDGE



타이할피거, Cool Swimwear Line

월드컵 시즌과 함께 대륙대 트거워시는 올여름, 타이할피거 스윙웨어와 함께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여름휴가를 맞아헤지, 피스텔 본 컬러에 고급스러운 마드라스 체크 패턴을 사용해 더욱 감각적이고 시련한 무드를 강조했다. 활동적이고 시련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문의 010-800-4486



라뷰티코아, 뷰티 애플리케이션 '헤어체인지' 출시

호텔 뷰티 샵 라뷰티코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라뷰티코아의 어플리케이션 헤어체인지는 다운로드하고 라뷰티코아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도그이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유명 스타들이 다는 뷰티숍 체험도 하고 최신 스타일링 스타일링도 받고 일러스트의 효과를 누리보자. www.labouty.com

브라운브레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티셔츠 제작

의류 브랜드 브라운브레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제작한 추모 티셔츠의 후속 제품들이 공개됐다. 브라운브레스 오리지널 스토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 티셔츠를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23-2009



리복, 직텍(ZIGTECH) 출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리복에서 신제품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트레킹 슈츠 '직텍'을 7월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직텍의 유연한 아웃솔과 바닥의 탄축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반환은 장거리와 험스지형으로 근육의 피로와 충격을 20%까지 감소시킨다. 더욱 경쾌하게 직접하게 직접하게
가격 139,000원 / 문의 02-3445-4066



월드디즈니주얼리, 레인보우 워치 출시

보는 것만으로 상쾌하다. 월드디즈니주얼리의 아이온 마키아우스가 새겨진 컬러 시계가 그들을 살게 한다. 핑크, 오렌지, 바이올렛, 옐로, 네온, 화이트, 블루 등의 컬러를 산아고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월드디즈니주얼리의 컬러 워치로 그만의 트렌디한 시어락을 완성해보자.
문의 02-64-9006

ALBA, 액티브 젠트 신모델 'AF8P06X' 출시

고급 패션 워치 브랜드 알바가 액티브 젠트 ACTIVE GENTS 라인의 신모델 AF8P06X를 선보인다. 블랙과 로즈 골드 컬러를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AF8P06X는 뛰어난 기능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시계로, 전후부터의 신선을 위한 최적의 아이템이다.
가격 20만원 /
문의 02-61-382



7월 맥캘란을 휴가지에서 즐기세요!

블 글래스의 glass에 싱글 몰트 위스키 맥캘란(The Macallan) 3년과 2, 소다수 3분의 1을 넣은 후 시원한 얼음 몇 조각을 넣어 살짝 저으면 다음 레귤레이션 한 조각만 OK! 작성하는 데를 그때 함께 만들어 주는 맥캘란 레귤레이션 휴가에서 새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맥캘란 3년 / 139,000원 / 700ml / 43도
문의 02-3488-4600





**SKYY Vodka,
<섹스 앤 더 시티 2>
한정판 제작**

술 먹고 여자에게 칭수 받는 비굴이었다. 이번엔 술 시판 스키이 보드기 디미트르 에디슨은 <섹스앤더 시티> 드라마 의상을 디자인한 페트리셔 필드(Patricia Field)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특히 여성들이 열광할 만하게 만들어졌다. 스키이 보드기를 구매 하는 고객에게는 <섹스앤더 시티>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 티켓을 제공한다. 여자에게 선물하여 남도 술도 즐기자.
문의 02-3469-4000

COLORFLOP



**CONVERSE,
서머 조리
Color Flop 출시**

조리가 간편해지는 계절이 돌아왔다. 캔버스의 얇다 유행하는 앞굽 커뮤는 끈 무늬의 슈에이스 구두만큼 디자인되어 독특하면서도 유행 있는 디자인의 서머 조리다. 신발을 채우기가 가벼워 활동하기가 용이하다. 면하게 신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름을 즐기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색상은 레드, 네이비, 그린, 퍼플, 블랙 등으로 다양하고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다.
www.converseusa.com

**SONY, '워크맨 B150F
시리즈' MP3 플레이어 출시**

MP3, DMR 동영상, 전화 기능을 결합한 일체형 기기들이 각광된다. 그러나 좀 더 빠른 시간에 음악을 듣고 싶다면 SONY의 'B150F 시리즈' MP3 플레이어 4종을 먼저보자. 사물이 간편한 '재민(Gazzoni)' 곡 검색 기능과 조그마한 버튼을 채용한 빠른 인터페이스를 보았는가. 3분 충전 60분 플레이 액티브 기능은 적은 배터리 지속 시간이 불만인 이들에게 제격이다. 색상도 블루, 레드, 핑크, 블랙으로 4~10~10~10 구입도 가능하다.



가격 기종별 50,000원/70,000원/ www.sony.com/kr

**KODAK,
포켓 HD 캠코더
플레이스포르츠(PLAYSPORT) 출시**

역동적인 여행에는 여러 조건에서도 활약을 보장해주는 캠코더를 따로 정하지. 한국코닥이 완성된 방송 기능과 풀 HD를 지원하는 HD 캠코더 플레이스포르츠를 내놓았다. 수상 30터치 방식 수동 제어하며, 예이카피와 대조 기능을 탑재해 수중에서도 색감, 적당 조명을 가능하게 했다. 손떨림 보정 기능이 최대 10초간 연속 촬영이 가능하지만 이번 여름 제품 중에는 최강이라 하겠다.
가격 288,000원/ www.kodak.co.kr



**오리스(Oris),
데릴 오영(Darryl O' Young)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포르세 007 모험에서 영감을 얻은 오리스의 T3가 복수승과 필라델피아 불어왔다 두 개의 다른 시리즈를 가진 오리스의 신제품은 스텝업리시한 곡선의 케이스와 내구성이 검증된 칼럼 DLC 처리가 되어 있다. 포르세 007 모험에 감명을 표하며 두 제품 각각 90개의 한정 생산이 준비되어 있다. 필라델피아로 나가자.
가격 529,000원/ 문의 02-757-9999/ www.oriswatch.com



**스포티한 우아함,
BMW 뉴 3 시리즈
컨버터블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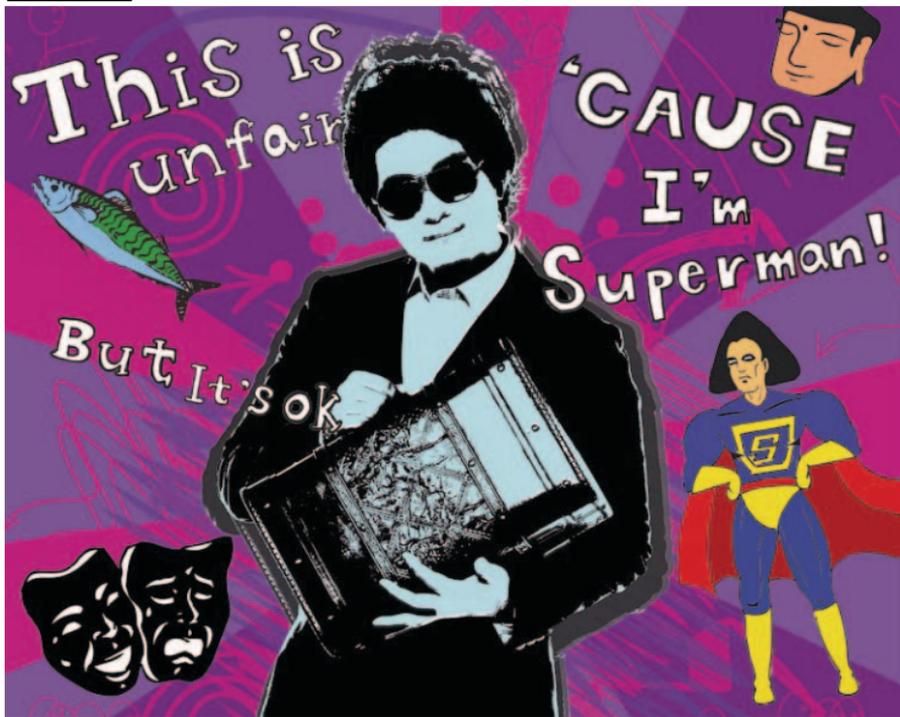


335 컨버터블 모드는 BMW 고강력 직분사 시스템 및 멀티스피드 기능을 적용한 직렬 67톤 트윈터치 터보엔진을 장착. 최고출력 300마력 및 400kgm을 발휘한다. 335 컨버터블은 6인 자 동 스텝업리시 변속기와 조별을 이용해 최고출력 200마력과 270kgm을 낸다. 두 모험 모두 시프트 레버, LED 인터페이스, 허벅지 레일을 추가한 사인드 시스템을 탑재해 BMW 최고의 정밀을 보여준다.
가격 760,000원, 814,000원/시 포함

**디스퀘어 2(DSQUARED2),
향수 오션(Ocean Wet)
출시**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디스퀘어2가 깊은 바다와 인접하는 백사장의 감성을 담아낸 남성 향수 오션 출시했다. 오션은 치유로운 자연을 추구하는 디스퀘어2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했다. 오션은 바다 향과 채취물이 부드러운 향이 아무런 시련한 향으로, 여름에 생길 당신의 체취를 모던한 향기로 승화시켜줄 것이다.
문의 02-3443-8005





노라조의 조빈

조빈은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정착 자기는 죽는 거냐며 울었거렸다.

BY 김민예 ILLUSTRATION 장영만

죽는 순간 누구에게 구해달라고 할 건가?
이혁한테. 개는 눈물이 많아서 울 거다. 슬
퍼서가 아니라 이제 나 대신 사람들을 울
겨야 하는데 그게 걱정돼서 울 것 같다.

가장 만족했던 무대 의상은 무엇인가?
2집 때 서인영 씨가 유행시킨 치골 패션
을 시도했다. 삼각 김밥 머리도 좋다. 둘
다 보는 사람이 토하기 딱 좋거든. 그래서
마음을 든다.

**죽으면 가장 그리워할 공연 장소는 어디
인가?**
노랑진 수산 시장. 거기서 '고동어'를 불
렸다. 또 최근에 한 워터파크에서 해너 북
장으로 '구해줘'를 불렀는데, 주위 사람
의 의반한 빛깔과 우리 공연의 조화가 만
족스러웠다.

죽기 전에 꼭 다시 불러보고 싶은 곡은?
슈퍼맨. 가수는 히트곡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일러준 노래다. 죽기 전이나까 슬프
게 부를 거다.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
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날 거다. 난 죽는
데 남들 부위기는 달리고, 달리고 가니까.

**무명 시절이 길었다. 죽고 싶을 때가 있
었나?**
죽고 싶다가보다는 살아남아야겠다는 생
각을 했다. 옥탑 방에 혼자 살았는데, 여
름엔 썩 죽을까 봐 두 시간씩 집에 못 들
어간 적도 있다. 겨울엔 번기 무당이 열어
서 호호 불어 녹인 뒤에 앉았다. 아, 군대
에 있을 때도 힘들었다.

복수하고 싶은 군대 선임이 있었나?
이유 없이 때리는 선임이 있었다. 모른손
보다 왼손이 더 크다고 때린 적도 있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 그런데 자기가 제
대할 때가 되더니 갑자기 착해지더라. 그
런 사람들 보통 그러지 않나.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용서했다.

**연예인 중에 JJ가 이상형이라고 하던데.
지난달 MAXIM에서 JJ 화보 찍었다. JJ
말고도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
있나?**

아이유를 좋아한다. 그런데 아이유가 너
무 어려서... 오빠, 동생 사이로 자내고 싶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역시 JJ, JJ 씨
미성년자 아니지? 화보 좀 보내달라.

**사서 보라. 슈퍼맨이 된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나?**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해주고 싶다. 아,
슈퍼맨은 자기 정체를 못 알려잖아? 그럼
내가 구해줬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며 쉬엄쉬엄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구해줘야겠다.

죽기 전 소속사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

은 무엇인가?
앞으로 가수들 키울 땐 노라조 같은 콘셉
트는 그만두고 정공법으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 다른 기획사에서 하는 것처럼 정
직하게 부모님 걱정 안 시키고 얼마나 좋
나? 그리고 저꾸 우리 앞으로 온 선물 물
래 가져가는데 안 그러셨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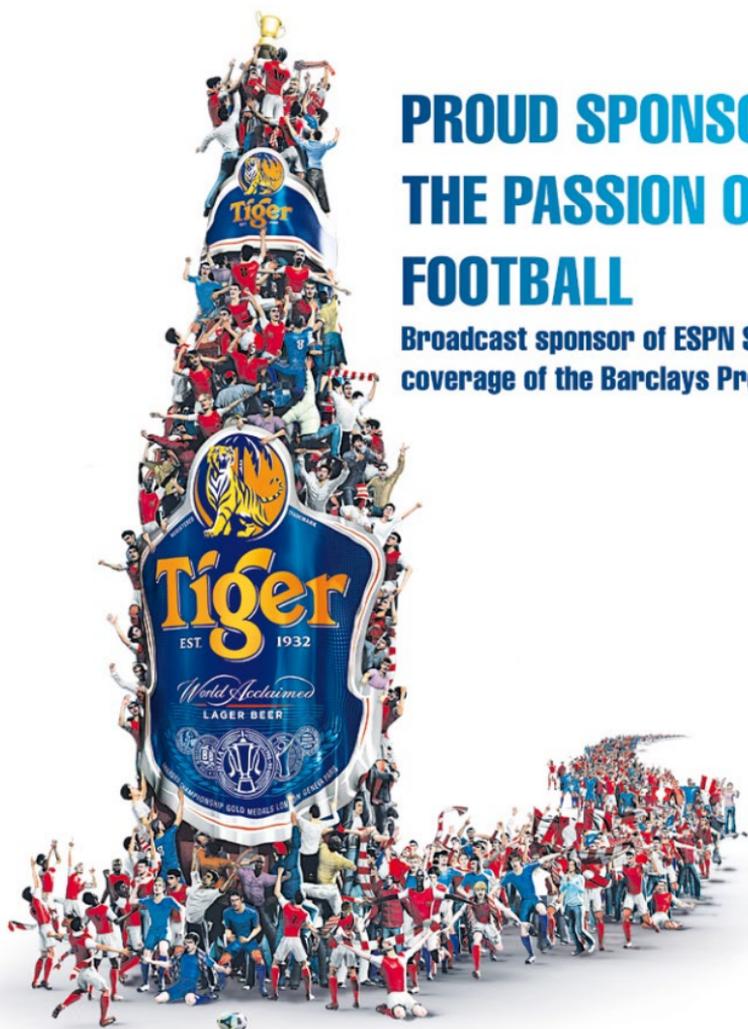
**그럼 같은 노라조 멤버 이혁에게 하고 싶
은 말은?**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편했는지 느껴봐
라.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인기 콘셉트도 노
라조 끝까지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나가
하고 싶은 음악 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
엇인가?**
길거리 헌팅, 쓱스러워서 잘 못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남자친구 있나? 나랑 만나볼 생각 없나?

PROUD SPONSOR OF THE PASSION OF FOOTBALL

Broadcast sponsor of ESPN STAR Sports
coverage of the Barclays Premier League



ESPN



Broadcast sponsor of ESPN STAR Sports'
coverage of the Barclays Premier League



Tiger ENJOY WINNING

MAXIM

☐ SOUTH KOREA

1600만원대 세단의 왕자는?
포르테 vs
라세티프리미어

불세출의 에이스
한화 이글스

류현진

Style

수영복을 입은 남녀의 사투
패션 타투

2010 상반기 결산
NBA
프로야구 시구

남자의 로망
인정 받는 남자 되기
비키니 걸스
넥센 치어리더팀
야구 게임
하주희

JULY 2010
www.maximkorea.net



가격 4900원